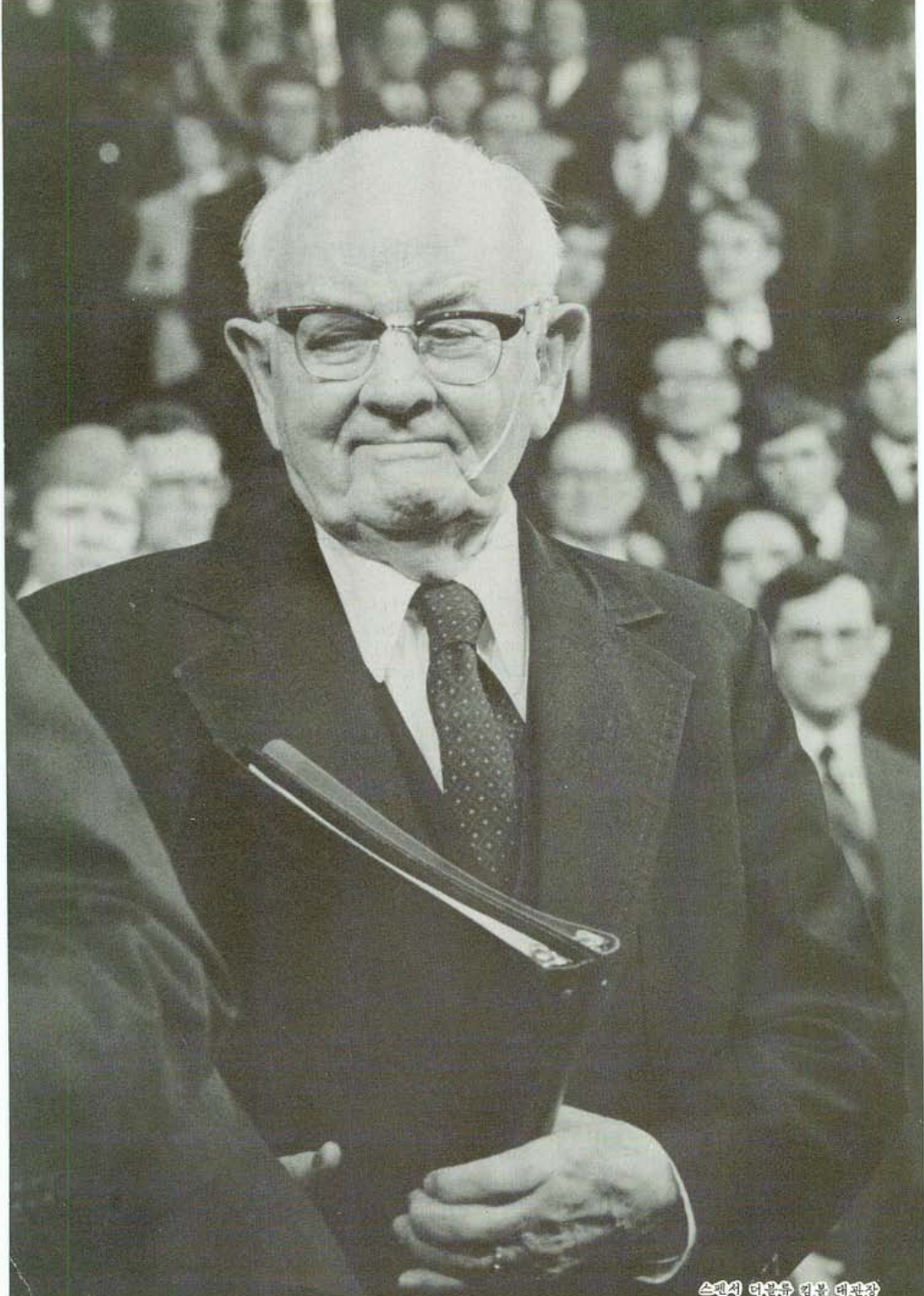


성도의 벗 10

1981





스웨덴의 다발류 김봉 대관장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앤 엘튼 태너
메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힐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처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쉬튼
브랜스 알 맥포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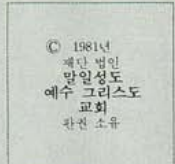
엘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레 시 던
렉스 다 피네라
찰즈 데이 데이
조지 피 리
에프 엔지오 부쉬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료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위도/지부/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차 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1 연차대회 보고.....	2
나의 관리 직분에 대한 보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4
교회 본부 역원 지지.....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7
자신의 품위.....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8
빛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은 우리.....	제이콥 더오거 장로...12
결혼 생활.....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16
상속의 땅을 되찾은 이스라엘 민족.....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20
교회 재정 위원회 보고.....	월포드 지 에드워드...23
1980년도 통계 보고.....	프랜시스 엠 기빈스...24
요셉 스미스 3세 문서와 왕국의 열쇠.....	고든 비 힐클리 장로...26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섬깁니다.....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31
신앙에 이르는 다리를 놓음.....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36
감사합니다!.....	안헬 아브레아 장로...40
빛과 진리.....	데이비드 엠 버튼 장로...41
예언자의 부름.....	리그랜드 리처스 장로...45
저희 아비에게는 더욱 큰 일을 요구하심.....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49
금식 헌금: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함.....	비터 엘 브라운 감독...54
아론 신권 소유자의 책임.....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59
복음 성약.....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60
타인에게 봉사함.....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74
그는 그곳에 계십니다.....	앤 엘튼 태너 부대관장...74
인생—위대한 시험 장소.....	프랭클린 더 리처스 장로...76
서로 사랑하라.....	제임스 엠 페러모어 장로...80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손길을 내림.....	잭 에이치 고슬런드 이세 장로...84
자립에 따르는 축복.....	마크 이 피터슨 장로...89
누구든지 더하거나 제하여 버릴 수 없음.....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96
도덕적 가치 기준과 보상.....	로이드 지 데릭 장로...99
순종—완전한 순종.....	테디 이 브루어튼 장로...103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곧 자신을 구원하는 것임.....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107
마음을 돌림.....	하트만 렉터 이세 장로...110
이 반석 위에.....	브로oks 알 맥콩키 장로...114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118
원칙을 따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120
가족을 돌보는 책임.....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122
별을 바라봄.....	바라다 비 스미스 자매...127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킵.....	엘 리벨 배러드 장로...130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	엘 톰 페리 장로...134
교회 복지의 기본 원리.....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138
대회 말슴과 교회 교과 과정과의 상호 관계.....	142
지역 지도자 메시지.....	서울 북 스테이크 부장 홍 무광...147
해외 소식.....	149
지역 소식.....	153

동 권: 제195호, 제17권 제1호
 동 록: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1981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유진 피 톨
 번 역: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직 514091
 인쇄인: 심희연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628KO PRINTED IN SEOUL, KOREA 10/81 International magazine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

(모세서 1 : 39)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51 연차 대회 보고

1981년 4월 4~5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태버나클에서 열린
대회의 일정 및 말씀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4월 연차 대회의 개최 모임에서 이처럼 웅대한 영적인 목적을 위해 발맞추어 나아가는 교회 지도자와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회에 계신 형제님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위대한 말일의 사업에 관하여 명상하고 기도한 결과, 교회의 사명은 삼중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의식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침과 훈계로 승영에 이르게 하여 성도를 완전케 합니다.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 복음의 대리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죽은 자를 구원합니다.

킴블 대관장은 지도자와 회원들에게 이후로는 “이러한 성스런 원리”에 대한 그들의 우선 순위와 일을 헤아려 보기를 권했다.

킴블 대관장은 4월 4일, 토요일의 4개의 모임 및 4월 5일, 일요일의 2개의 모임 등 모든 대회 모임을 관장했다. 킴블 대관장과 제2보좌인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이 사회를 맡았다.

교회의 총관리 역원 64명 전원과 이 대회에서 지지받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이 참석했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안헬 아브레아 장로로, 남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총관리 역원이 되었다. 이 조치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 수는 41명이 된다. 또한 현재 로자리오 아르헨티나 선교부에서 선교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아브레아 장로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곧 세워지게 될 신전을 관리

하게 될 것이라는 광고가 있었다.

연차 대회 며칠 전에, 김볼 대관장은 미국,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 등지에서 9개의 신전이 더 지어질 계획임을 발표했다. 신전 건축에 관하여, 김볼 대관장은 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업이 발전해 나가면, 전세계에 수많은 신전이 서게 될 것입니다.”

대회 모임 중에 우리는 현대는 “어렵고 힘든 시련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김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경제적인 필요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기본적인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보존하고 우리 성도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 주라는 권고를 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대관장단에서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서한을 띄웠습니다. 그 속에 와드, 스테이크, 선교부 지도자들이 받은 권고와 지시에 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원들이 자립하게 되고, 회원들에게 미치는 부담을 감소시키는 문제는 4월 3일 금요일에 있었던 지역 대표 모임에서 연장 처리되어 강조되었으며, 같은 주제로 열린 태버내클 저녁 모임에서도 강조되었다. *



태버내클 합창단 전경

나의 관리 직분에 대한 보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를 완전케 하고, 죽은 자를 구원하는 삼중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연차 대회에서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다시 한번 큰 기쁨을 느낍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난해 10월 대회가 바로 엇그제 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 그처럼 바쁘고 많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6년도 더 되는 세월이 흐른 듯한 느낌도 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역사적인 태버나클에서 만난 이래, 2개의 신전이 헌납되었고, 4개의 신전이 착공되었습니다. 1980년에는 210,777명에 달하는 많은 수의 새로운 개종자들이 교회에 입교했으며, 1981년에는 그 수가 더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카리브해 제도의 훌륭한 백성들 사이에도 주님의 사업은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대관장단과 십이사도회에 계신 형제님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위대한 말일의 사업에 관하여 명상하고 기도한 결과, 교회의 사명은 삼중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습니다.

1.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2. 성도들이 복음의 의식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침과 훈계로 승영에 이르게 하여 성도를 완전케 합니다.

3.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 복음의 대리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죽은 자를 구원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는 위대하고 영화로운 사명, 곧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모세서 1:39)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것의 일부가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를 완전케 하고, 죽은 자를 구원하는 성스러운 원리를 마음속에 품고, 우리는 국내와 국외에서 성도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힘써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난 10월 연차 대회 이후에 내가 맡은 관리 직분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0월 대회를 마치고 나서 10일 후에,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과 나는 다른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동양에서 갖는 지역 대회를 감리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우리는 10월 18, 19일에 필리핀 마닐라의 아라베타 콜로세움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 모임에서는 약 2,000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며칠 전에 발표된 그 나라에 세울 새로운 신전 부지를 둘러보았습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토요일 오전에 우리를 대통령 관저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가족과 즐거운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마닐라에서 우리는 홍콩으로 여행했는데, 홍콩은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곳으로 1평방 킬로미터당 157,000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10월 20, 21일 양일간에 걸쳐 교회의 훌륭한 스테이크 센터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대만의 대북으로 여행하여, 그곳에서 10월 22

일과 23일에 아름다운 순 옛켄 기념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투숙해 있던 호텔에서 자유중국의 수뇌 지도자인, 순 국무총리와 고 장개석 총통의 아들인 장 총통과 함께 조찬회를 가졌습니다. 그 뒤 우리는 대만성 지사를 주빈으로 모시고 오찬회를 가졌습니다. 대만을 떠나 우리는 “소용한 아침의 나라”인 한국의 서울로 갔습니다. 대회는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가졌는데 하룻밤 사이에 날씨가 급변하여 때아닌 강풍이 몰아치는 몹시 추운 날씨 속에서 한국의 서울 선교부 구내 노천 광장에 모여든 6,000명도 넘는 회원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부총리를 역임한 분을 모시고 호텔에서 오찬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10월 26일, 일요일 늦게 동경에도 착했습니다. 월요일인 10월 27일에 룬니 부대관장과 나는 동경 신전의 경초식을 가졌으며, 오후 3시에는 첫번째 헌납식이 해의 왕국실에서 열렸으며, 신전의 다른 방에도 칼라 텔레비전으로 방영되었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여섯 차례의 헌납식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신전의 헌납식에 뒤이어, 동경 지역 대회가 10월 31일과 31일에 유명한 부도칸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모든 지역에서 또한 선교사들과 특별한 모임을 가졌으며, 동경에서 가진 한 모임에서는 1,500명이 모였습니다. 참으로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영감어린 광경이었습니다. 토요일인 11월 1일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지역 대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날밤 쿠로에 올랐으며, 오는 도중에 하와이에서 3시간 동안 머물며 하와이 신전에서 몇 명의 인봉자들을 성별했습니다.

11월 14일, 우리는 브리감 영 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제프리 알 홀랜드 박사를 임명했는데, 그는 유타주 최고 재판소 소장으로 임명된 달린 에이치 오오코 총장의 후임으로 취임되었습니다.

3일 후, 대관장단은 워싱턴의 시애틀로 여

행하여 벨뷰 근처에 있는 새로운 시애틀 신전을 헌납했습니다.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즉 11월 17일에서 21일까지 13번의 헌납 모임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광대한 북서 지역에서 모여든 43,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여러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뒤이어 추수 감사절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 집에서 가장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1981년 2월 11일, 수요일, 킴블 자매와 나는 남태평양으로 여행했습니다. 우리는 타히티 파피테에서 새로운 신전 기공식을 가졌으며, 선교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타히티 부고등 판무관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청사로 갔습니다.

토요일인 2월 14일에 우리는 뉴질랜드를 경유하여 라로통가에 도착하여 그 도시 근교에 있는 한 비행기 격납고에서 성도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 라로통가에 들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우리는 오클랜드 비행장에 모인 수백 명의 성도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신전과 뉴질랜드 교회 대학에서 그리고 선교사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수요일인 18일에는 통가로 갔습니다. 우리는 누쿠알로파에 있는 아름다운 코코넛 숲에서 신전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통가의 왕과 왕비 및 그 왕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 모임에 참석했으며, 우리는 그 백성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통가에서 우리가 만난 247명의 선교사들 중에서, 235명은 본토인이고 12명은 미국 출신이었습니다.

19일인 목요일에는 아름다운 섬나라 사모아로 가서, 그곳 아피아에서 신전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노천에 마련된 식장에 자리잡은 수천 명의 성도들은 무섭게 쏟아지는 열대의 폭우 속에서도 모든 식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이 행사에는 서사모아의 국가 수반, 수상 및 몇몇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찌기 우리가 서사모아 교회 학교를 방문했을 때, 우리 생애에서 가

장 아름다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학교 캠퍼스에서 가장 큰 건물인 체육관에 들어섰을 때, 1,700명의 어린이들이 체육관 바닥에 다리를 꼬고 뻗뻗하게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4,5세의 유치원생들이 자리잡고, 뒤에는 10대의 중고등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를 때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푸른 색과 노란 색으로 된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검은 머리와 반짝이는 커다란 갈색 눈동자를 가진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고 발랄했습니다.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우렁찬 박수 소리가 장내를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적어도 그날만은 영웅이라도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간단한 모임을 마친 우리는 우리의 컷가를 울리며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 주는 “토파 마이 팔레니”라는 사모아의 이별의 노래가 길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체육관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하와이로 와서 2월 21일인 토요일 아침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비 와이 유 하와이 캠퍼스와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오아후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으며, 그 뒤에 고든 비 힝클리 장로,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및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와 함께 하와이 신전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새로 개축한 방문자 센터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1981년 2월 23일 월요일에 우리는 교회 본부로 되돌아왔습니다.

나흘 후인 2월 28일 일요일에 킴볼 자매와 나는 다시 집을 떠나 플로리다로 갔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성도들과 선교사들 및 몇몇 사업가들과 집회를 가졌습니다. 3월 7일, 토요일에는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에서 새로운 신전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10,000여 명에 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공식에 참석했으며, 조지아주 지사 부처와

몇몇 입법부 의원 및 미 상원의원 제이크진, 폴라 호킨스 의원 등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식을 끝내자마자, 우리는 비행기편으로 푸에르토리코의 산 후안으로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인, 3월 8일 일요일에, 우리는 그 섬에서 스테이크와 선교부의 2,600명이 넘는 새로운 회원들과 회합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끝이어서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했으며 월요일에는 산토 도밍고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그 섬에는 회원 가족이 두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임에서는 1,500명이 넘는 새로운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3월 10일 화요일에 산토 도밍고를 떠났으며, 그날 밤에는 플로리다주의 올랜도 근처의 교회의 데저렛 랜치에서 새로운 방문자 센터를 헌납했습니다.

목요일에 우리는 워싱턴 디시 방문자 센터를 방문한 다음, 워싱턴 신전장단과 만나 몇몇의 인봉자들을 성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인 3월 13일 금요일에 우리는 고든 비 힝클리 장로와 같이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모세의 족보를 전달했으며 그런 다음 대통령 부인과의 만남입니다. 두 분 다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백악관에서 베를어 준 호의에 심심한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뒤 킵블 자매와 나는 곧장 애리조나로 여행하여, 토요일에는 우리가 없는 동안 세상을 떠난 나의 누이인 엘리스 벨슨 자매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3월 15일 일요일에 우리는 본 연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항공으로 80,000킬로미터를 여행한 지난 6개월간은 바빴지만 즐겁고 보람있는 세월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해 가며 교회가 활기에 넘치며 발전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 회원들이 보여 준 사랑과 헌신에 큰 감명을 받았읍니다.

오늘 아침 이 대회를 시작하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동양과 남태평양 및 카리브해의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전하는 사랑과 인사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에 대한 나의 사랑과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시고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주께서 이

위대한 대회가 다 마칠 때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교회 본부 역원 지지

매리는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보좌

우리는 안헬 아브레아 형제를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우리가 방금 지지한 아브레아 형제를 제외하고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총관리 역원과 교회 본부 역원을 지지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



자신의 품위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라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거나 합당치 못한 표준에 의해 평가되지는 않습니까?”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에 나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명을 줄 수 있는 말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는 거룩하신 영의 도움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당시 십이사도에 관하여 보았던 놀라운 시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히버시 킴블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음 시현은 그(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던 것으로 나는 그것을 거의 사실 그대로 회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십이사도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로 나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은 돌연히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한듯, 웃은 다 떨어지고, 무릎과 발바

닥은 모두 짓물렀습니다. 그들은 동글게 선 채, 시선을 땅바닥에 고정시키고 있었습다. 구세주께서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을 위해 우시며,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올슨 에프 휘트니, 히버시 킴블의 생애, 제 2판,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93페이지; 교회 역사, 2: 381 참조)

이 이야기에서 추론해 낼 수 있는 메시지는 이러한 것입니다. 십이사도들은 의로운 싸움을 싸워 나가기 위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것을 참아내었으므로,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있을 뿐, 위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번만이라도 위를 쳐다보았다면, 그들은 그를 보아 주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위해 우시며, 그들을 위해 고통을 겪으시며, 그들 가운데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세상의 기이한 일들의 몇몇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범죄와 비열함과, 빈곤과 두려움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같이 다니는 우리 일행은 번잡한 사람들의 물결을 헤쳐 나가면서, 짐을 가득 실은 당나귀 결을 지나기도 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현을 들어 땅에서 30센티미터만 올려다 보기만 해도 그 도시의 모든 것은 우리 눈에 온통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기름, 금 및 기타 값진 보석의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러한 보물은 땅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형의 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현을 들어 올리면 어떤 보물을 찾게 되겠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무형의 부는 어떤 것입니까? 스테반은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축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사도행전 7:55)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들은 우리들 대부분이 다 알고 있듯이 갖가지 암흑과 도덕적 혼미 속을 더듬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이 대개 소유물로 평가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산을 모으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직, 품위, 사랑 및 거룩함 등이 소유물보다 더 가치가 적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위를 쳐다보니까, 아니면 아래를 보게 됩니까?

이 환락의 세상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인기를 끌고자 하는 소망은 가장 매혹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모든 악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만인의 혐오감을 사게 되는 도박 행위나 아름답게 보이는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인간 행위의 악한 면을 널리 퍼뜨리려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 권고되기도 합니다. 양심을 뜨겁게 달군 인두로 마비시키고, 영적인 것은 마음속 깊이 가두어 놓은 듯이 보입니다. 인생에서 공허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이상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고귀한 생각이나 목적은 충분히 가르쳐지거나, 권고되거나, 가치있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하는 도둑들의 표준은 우리 자신의 고결성이 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많은 세상 사람들의 표준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하고 사소한 생각을 받아들이기조차 허락지 않는 자존심이나 인간의 성실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로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외상 거래와 우리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에게 외상 거래를 베푸는 사람은 우리를 신임하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인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부친이 파산

한 변호사를 부친으로 둔 어떤 사람에게 대해 상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던 일이 생각납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 사람은 파산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빚을 갚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구제가 되었으나, 그를 신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 빚을 다 갚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성실성은 우리가 지닌 각자의 가치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의 신앙과 도덕성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제 행위가 헌신에는 미치지 못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도 믿기를 원했습니다만, 그는 부분적으로 믿었습니다. 모든 악을 버리고 자존심을 키우려면 거룩한 신의 권능하에서 구원의 원리와 복음의 의식에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원리에 헌신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정직해야 하는 것이며, 자아를 버리고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회복된 복음의 원리는 너무도 명백하고 깨끗하고, 자비롭고, 아름다우며, 시들지 않은 사랑으로 꾸며져 있어 구세주 자신의 분명한 모습을 새겨 놓은 듯합니다.

특히 유혹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문제점을 정정 당당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위대한 진리로부터 이탈하여 스스로 곤경에 처한 것을 변명하며, 논리적인듯 보이지만, 나약하고 부당한 구실을 내세워 성스럽고 거룩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합리화시키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지니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라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거나 합당치 못한 표준에 의해 평가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집회 참석시에 우리가 합당했다는 느낌을 받고, 양심을 편하게 하기 위한 마지 못한 참여로 오히려 지나칠 정도의 위안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표준은

가장 낮은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것입니까?

남미에서 살다가 돌아온 나는 공식상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고 자존심의 결여가 그대로 드러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력을 끌기 위해서 또는 편안하다고거나 자연스럽다는 명목을 내세워,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단정치 못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하기는커녕, 가장 좋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위대한 정숙의 미덕을 저버린 사회는 그보다 더 큰 원리인 순결의 미덕을 범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순결을 범한 자들을 저하시키고, 상처를 입히는 무책임한 성관계의 개념을 전하는 자는 신성한 출산의 은사의 목적을 완전히 그르쳤습니다.

혼전 순결과 결혼 후의 정절은 부부 사이의 성스런 사랑을 완전히 꽃피우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순결은 자존심을 키우고 자신의 상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우리 시대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 문제의 하나는 자존심의 부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을 확립해 놓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준을 떠맡기게 되고, 습관적으로 친구들의 압박에 굴복함으로써 항상 약하게 되고 맙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견해에 의존하는 수가 있습니다.

불안정과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자존심의 결여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존중하지 못하는 일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우리는 우리를 존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악을 버리는 것은 인간적인 가치와 품위를 강화시키는 큰 재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세상 사람들은 순결이나 신앙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여, 또 무엇이든

변하기 쉬운 그들 자신의 생각이거나 환상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생활해 나갈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치관이 결여된 사회, 도덕성이 결여되고, 표준이 결여된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와 자존심과 품위를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너무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노인들 역시, “순결은 죽은 후에도 살아 남는다”라는 영국 노팅엄 시의 구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덕성스런 행위의 가치는 양적으로 입증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것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미덕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흔히 배척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측정할 수 없는 주관적인 사항의 중요도를 참작하지 않는 것이므로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며, 가족이 나를 사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가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실질적인 것입니다. 고통도 역시 헤아려 보기 힘들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양적으로 헤아려 볼 수는 없어도 그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6)

거룩함을 좇는 자들의 다짐을 한정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행스런 일이지만, 이것은 자자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일을 완전하게 행하고 있으며, 모든 일을 완전하게 행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창조주께서는 남녀 공히 이기심과 자기 만족에 탐닉해도 된다고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

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시 8:4-6)

무엇을 거룩함의 표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그 해답은 경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운 자 누구이니까”(출 15:11)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거룩함을 좇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행 7:55 참조) 거룩함을 좇는 데서 오게 되는 축복을 주님은 부분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교성 93:1)

이야기를 시작할 때, 나는 예언자 요셉이 당시의 십이사도에 관해서 본 시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들 십이사도가 땅바닥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서 있었기 때문에 구세주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일까지 잘못했다고는 누구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무리가 된 그들은 강하고 끈기있게 성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좌절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영웅처럼 일했고, 그들의 행위는 대담하고 용기있었습니다. 그 시현이 끝날 무렵 예언자 요셉은 십이사도의 사명이 완성되는 것을 보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히버 시 킴블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요셉)는 그들이 하던 일을 다 마치고, 천국의 문에 이르렀을 때까지의 일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인류의 아버지 아담이 서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 주고 그들이 들어가자 그는 한 사람씩 겨안아 주고 입맞추어 주었습니다. 그 후 그(아담)은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였으며, 구세주께서 그들을 한 사람씩 겨안아 주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들 각자에게 영화로운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

시현은 요셉 형제의 마음속에 너무도 깊은 감명을 주어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히버 시 킴블의 생애, 93-94페이지)

자신의 품위는 위로 올라다 보며 거룩함을 추구함으로써 크게 향상됩니다. 큰 나무와 같이,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빛의 근원은 성신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내적인 힘과 평안의 근원이 됩니다.

나는 지극히 겸허한 사람들의 생활에서, 가난한 자와 또한 정상 교육을 받은 유복한 자의 생활에서 우아하게 나타난 인간의 품위와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일상 생활에서 거룩함을 추구한 결실이, 그들의 내적인 품위와 자존심과 인간적 가치에 대한 느낌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폴로니어스의 입을 빌어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요컨대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 충실할 것, 이 한 가지만 지키면, 밤이 낮을 따르듯 스스로 너는 남에게도 충실해질 것이니라.”(햄릿트, 제1막, 제3장, 78-80행)

우리의 자존심은 대개의 경우 우리 스스로 힘들여 일하고, 겸약하고, 될 수 있는 한 독립하고자 노력하는 데서 길러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우리는 인간적인 가치와 품위를 느끼게 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데서 더 높은 곳을 향하고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를 쳐다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감, 곧 성스럽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영감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그의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빛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은 우리



제이쿰 디오거 장로
철십인 제일 평의회

“왕국의 다른 부름에 대한 기존 정책과는 조금 위배된다 해도 할 수 있다면 부부들이 6개월이든, 12개월이든, 또는 18개월간의 선교 사업을 자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31년 전 오늘인 1950년 4월 4일에, 나는 동남 아시아로 3년간의 파견 근무를 위해 화란을 떠났습니다.

이 임무를 맡은 나는 지상의 한쪽에 있는 먼 섬나라를 다니며 그곳에서 농촌 지역의 전력 시설 계획과 개발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그 기회를 통해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야자 기름과 심지로 불을 켜던 등잔불이 전기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섬에 전기가 들어오자, 밤이 대낮같이 밝아져,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진 후에도 개인적인 연구나 오락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발전소가 건립되어야 했습니다. 전기를 각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서 고압선과 배전소도 설치되어야 했습니다.

나는 본토 출신인 시장이 처음으로 전기

스윗치를 누르자 젊은이들의 눈은 반짝이고 얼굴은 상기되었으며, 노인들의 얼굴에는 감사의 눈물이 흘렀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해가 질 때부터 이튿날 아침이 될 때까지 음악과 노래와 무용으로 엮어진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그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26년이 지난 4월 6일에 주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 주님의 영원한 사업에 임하게 하셨고, 그후 얼마 안되어 이번에는 철십인 제일 평의회 of the 일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동남 아시아로 떠났으며,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빛, 즉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방문을 허락하는 모든 가정에 복음의 빛을 가져다 주는 책임을 받아들인 젊은 형제와 자매들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배전소는 동남 아시아에 있는 선교 본부였고, 그들의 전선은 신권의 권능선으로서, 그것이 없이는 어떠한 체제도 전혀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개종자들의 생활 속에 처음으로 영원한 빛이 비쳐졌을 때, 새로운 회원들이 가정의 밤 시간에 그들의 언어로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모든 것 아름답고”(“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찬송가 27장)를 노래부를 수 있게 되었을 때, 기쁨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새로운 선교부가 개설되고 또 교회의 지부가 세워지고, 시온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어, 밝은 빛이 비쳐 나가게 될 때마다 다음의 찬송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동트니 날이 밝는다.

보라 시온 기 날린다.

찬란한 아침이 온다.

하루의 시작 장엄하게

아침 해 솟아오르네.

(“동트니 날이 밝는다”, 찬송가 222장)

형제 자매 여러분, 전세계의 모든 나라에 이처럼 빛이 퍼져 나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에게 빛과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모든 가정에 발걸음을 돌리는 것은 그야말로 성스러운 임무가 아닙니까? 구세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특히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여러 국민의 기가 되게 하라.”(교성 115 : 5)

1981년 4월 4일, 바로 오늘 “너희 모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까?

선교사과에서 매일 받고 있는 선교사 추천서를 살펴보면, 오래 전부터의 기존 전통에 의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도 19세의 장로들과 21세의 자매들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신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한 나이 많은 자매들도 부름받은 곳에서는 어디서나 훌륭한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제한된 수이기는 하지만, 은퇴 연령기에 있는 기혼 부부들도 있습니다. 내가 제한된 수라고 말할 까닭은 이 세상에는 선교사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60 내지 70세 사이의 건강한 노부부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 사업이 전 지구상의 많은 나라에 계속 퍼져 나감에 따라, 복음 선교사로 일할 부부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그들의 기본적인 임무 외에도, 그들은 다른 활동을 하도록 지명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훌륭한 지도자를 아직 찾지 못한 선교 지역에서는, 선교사 부부들이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사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오래된 회원들 중에는 은퇴한 사무 근로자, 부기 계원 및 면허를 소지한 회계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격을 소지한 부부들은 선교부 사무실에서 선교부 비서, 기록 서기 또는 재정 서기로 일할 수 있음

니다. 그 외에도, 계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노부부들은 구체적으로 임무를 지명받으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와드와 지부에 있는 회원들에게 계보에 대한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방문자 센터에서 복음을 가르치거나 또는 선교부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여 왕국 건설을 위해 충실하게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업을 단지 전도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부부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에 의하여 나는 그들이 지금이라도 좀더 훌륭한 통찰력을 가지고, 봉사할 가능성을 다시 생각해 보아, 왕국의 다른 부름에 대한 기존 정책과는 다소 위배된다 해도, 할 수 있다면 부부들이 6개월이든, 12개월이든, 또는 18개월간의 선교 사업을 자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오거 장로님, 우리 손자들 곁을 떠나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잠시 자녀의 곁을 떠나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어린 손자 빌리나 손녀딸 수지 곁을 떠나기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나는 선교 지역에서 일하는 부부들이 겪은 위대한 경험을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랄프 램버트 형제님과 자매님은 오클라호마의 불사 선교 지역에서 18개월간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들이 조그만 지부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느 자매와 그 십대의 아들이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가족의 아버지는 기록상의 회원이기는 했지만, 한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오클라호마에서 은퇴하기 전에 유타에서 살았으며, 어린 집사 시절부터 그는 너무 수줍어 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라거나 다른 어떤 과제를 하라는 부탁을 받을까 두려워 교회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젊은 선교사들과 만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그들은 그를 활동적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램버

트 형제님과 자매님은 그와 동년배의 친구가 되어 그와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얼마 안되어 그는 지부 예산으로 얼마나 현금하던 되겠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그에게 다정하게 설명하자, 그는 처음으로 현금했습니다.

한달쯤 뒤에 금식 주일이 다가오자, 그는 십일조를 바치는 현재의 절차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가 50년 전에 유태에서 살았던 때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후 그는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 얼마 안되어, 그는 그 조그만 지부에서 그에게 어떠한 부름이 주어지든 기꺼이 받아들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사로 성임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는 그의 막내 아들을 아론 신권의 제사로 성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그는 지부장단 보좌가 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장로로 성임되었고, 그의 모든 가족이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함께 인봉되었습니다.

과거에 많은 봉사를 하였고, 지금도 봉사하고 있는 수많은 성실한 부부들과 함께 램버트 형제 자매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다음 성구의 참 뜻을 깊이 이해하게 되리라고 간증합니다.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교성 18:15)

마지막으로, 나는 에드윈 큐 캐넌 이세 형제 자매님이 서아프리카 선교부에서 가졌던 재미있는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나의 아크라에 살고 있는

샘슨 데이비스라는 훌륭한 흑인 말일성도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1963년에 샘슨 데이비스 형제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전자학과를 졸업하고 화란의 아인하벤에 있는 필립스 전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샘슨 데이비스 자매는 화란에 거주하는 남편과 합류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건너왔는데, 어느 날 그녀는 물론 선교사에게서 물문경을 받았으며, 그녀가 살고 있던 하숙집에서 첫번째 복음 토론을 가졌습니다.



대외 방문자



산이수도 영의대의 하워드 피살을 인턴 장로 및 코든 비 인봉리 장로와 인사를 나누는 대관장로의 데이비스 지 롬비 (왼쪽) 부러판장과 일 앤슨 대니 부러판장

말씀드리기 좀 거북한 일이지는 하지만, 나는 샘슨 데이비스 자매가 하숙하고 있던 화란의 하숙집 여주인이 그녀에게 물론 선교사들을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샘슨 데이비스 가족은 그 뒤 15년 후인 1978년에 가나로 돌아왔으며, 샘슨 데이비스 자매는 다시 교회에 나와 일요일 모임에 충실하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족은 선교사 복음 토론을 공부하고, 훌륭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테드 캐넌 형제가 아크라에 있는 수영장에서 그의 어머니와 아들 두 명과 딸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만아들인 크로스비 샘슨 데이비스는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으며, 금년 초에 결국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2주일 전에 샘슨 데이비스 장로는 선교사 훈련원을 떠나 영국 맨체스터 선교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이 아들이 선교사로 떠나기 한 달 전에 교회에 들어온 것은 재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이제는 신

앙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캐넌 형제와 자매는 그들이 한 일의 결실을 그대로 목격했으며, 그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과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하여 특별한 추억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위 두 부부의 경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께서 나이드신 부부의 선교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구세주의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을 느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교회에 개종한 한 사람으로서 나는 복음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일보다 인간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선교사 정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며, 주님의 영광스런 재림이 있기 전에 이 지상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주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겸손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결혼 생활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즉 소년, 소녀, 남성, 여성, 남편과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기, 자녀, 가족, 가정과 같은 말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결혼 생활의 품격은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예 언자 야곱은 백성들이 “정도를 지나쳐 눈이 어두워진지라”(야곱서 4:14)하는 말로, 그들이 평범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분명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찾아 헤메는 때가 많습니다.

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 달 동안 그 말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깊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정의해 보고자 애썼습니다.

그 말은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나는 정교하게 조각한 상자를 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은 다음 그것을 조심스럽게 벗겨, 경건하게 결혼 생활이라는 글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이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므로, 다른 평범한 말을 사용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권장하고 옹호하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뻐해야 다소 필요한 것으로, 더러는 전혀 가치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는 교묘한 방법으로 결혼 생활은 진부한 제도라고 확신시키려 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현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결혼 생활과 연관되는 모든 의무와 제약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관계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기를 바란다 해도, 그들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게 되면 그들의 내부에서 무엇이든 파멸하게 되며 미덕, 자존심, 인격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손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덕은 일단 잃게 되면, 쉽게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날, 그들은 실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즉 소년, 소녀, 남성, 여성, 남편과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기, 자녀, 가족, 가정과 같은 말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결혼 생활의 품격은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비이기심이나 회생과 같은 말이 무시되면 자존심은 사라지게 되고 사랑 그 자체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관계를 맺기로 유혹을 받아 왔거나 현재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하십시오! 그 상태를 계속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될 수 있는 대로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곧 쓰러져 버릴 듯한 결혼 생활이라도 두 사람이 파탄으로 몰고 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한 훌륭한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파괴시키는 사람은 참으로 큰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결혼 생활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을 파괴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가볍게 지나쳐 버릴 수 없을 것이며, 사물의 영원한 계획에서 쉽게 잊혀질 수 없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위협하거나 파괴시키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느끼는 어떤 환멸이나, 타인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을 결혼 생활을 파괴시킬 어떤 행위에 대한 합리화로 삼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중대한 범죄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어린이들은 친진스런 자녀들을 회생시켜 가며 자신의 만족만을 사려드는 불행한 어른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사랑의 표현, 곧 생명을 날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은 결혼 생활 안에서만 합당한 것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은 가족이 태어나는 보금자리입니다. 결혼 생활의 가치 기준이 낮은 사회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호세아 8:7)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히 자멸하게 됩니다!

혹자는 결혼 생활을 불행과 이혼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모든 희망과 꿈은 끝내 슬픈 파멸로 이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에 대한 신앙을 잃거나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생활의 실패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관심이 쏠리게 된다는 것

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많은 차들이 오고 가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곧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아무도 그 길로 안전하게 다닐 수 없다는 그릇된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한 건의 자동차 사고 기사는 신문 제 일면에 게재되어도, 안전하게 통행하는 수백만 대의 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작가들은 행복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에는 극적인 호소력이 없기 때문에 책이나 또는 연극, 영화로 만들려면 갈등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한 사례에 대하여 듣게 되어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나는 결혼 생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간 생활의 이상적인 형태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임하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 요소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 역사의 모든 시기 중에서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결혼 생활을 위해 준비하고 생각하는 때보다 더 좋은 때를 알지 못합니다. 이 시기는 바로 여러분의 시간이므로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혼의 쓰라림을 겪지 않았다 해도,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청산한 사람들에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지켰는데도 여러분의 배우자는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충분히 보상받을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도덕적이며 성약에 충실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며, 그렇

지 않은 사람은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부부 중 한 쪽에서는 결혼 생활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결혼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 쪽 다 잘못이 있다 해도, 나는 결혼 생활을 구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면서 고통받는 쪽은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거니와,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실망으로 여러분이 속을 태우거나 냉소적이 되거나 또는 합당치 못한 행위를 정당화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결혼 생활에 대한 신념은 계속 간직하십시오.

몇 해 전에 내 친구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장기간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들이 손을 떼자 그는 희망을 잃은 채 고통 속에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진 어느 날, 그녀는 남편에게 자기가 죽으면 곧 재혼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필적 뛰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자랐으니 여생을 혼자서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살아왔는데도, 당신이 혼자 지내겠다는 걸 보면 제가 내조를 잘못한 모양이군요.”

적당한 시기에 그는 다시 재혼하여 그들의 생활은 결혼 생활에 대한 그의 신념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그가 사랑한 첫 번째 아내는 자신이 계속 지킬 수 없었던 자리를 대신 메워 준 두 번째 부인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은 안정되면서도, 훌륭한 충족감과 즐거움과 사랑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소망하는 모든 합당한 것과 육체적, 감정적 및 정신적인 모든 것이 결혼 생활속에서 충족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는 온갖 종류의 시련이 따르

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시련은 미덕과 힘을 길러 줍니다.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오는 힘은 남자와 여자를 승영에 이르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결혼 생활이라는 보금자리 속에서 인생이 시작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완성된 사랑의 표현은 반드시 회생이 수반되는 깊은 사랑 속에서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사랑을 나누는 젊은이나,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 신혼 여행을 즐기는 신혼 부부, 어린 아기를 낳아 기르는 부부 등, 모든 인생 과정에서 그들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런 뒤 자녀들이 성장하여 하나 둘씩 각자의 가정을 꾸려 나갈 때, 결혼 생활의 황금기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러한 주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의 또 다른 차원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화로운 하늘의 진리는 결혼 생활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성약을 맺을 수 있고, 우리가 합당하다면 인봉될 수 있어, 죽음의 장막 저 너머에서도 결혼 생활은 안전하고 조금도 흠없이 지속되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영원히 가족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교리는 개인과 가족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시는 인간의 영원한 진보 과정에서 결혼 생활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타오르는 불길이 있으니,

그것은 빛을 던져 줄
 생명의 성스러운 불길이라.
 그 불길이 잘못 붙여지면
 슬픔과 절망의 구름으로
 질식하게 되고
 합당하게 사용되면
 생명을, 가족을, 행복을
 가져 오는 힘이 되리.

암흑 속에서 나온 유혹자가
 악하고 무질서한 행위로
 이 힘을 악용하려 드네.
 심판과 보상의 때가 이르면,
 한때는 생명을 가졌으나
 이제는 죽어 사라진 능력에 대하여
 쓰디쓴 눈물을 흘리리라.

이 능력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바로 그 열쇠임을 나는 알고 있네.
 그것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네.
 결혼 생활은 고된 시련의 장소.
 그 속에서 생의 요소가 결합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육신이 잉태되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의 자녀가
 육신을 갖고 태어나
 선택하고, 시험받게 되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치상에
 온 목적이라네.
 이 지상에서 우리는 선택의 주인공이 되네.

우리 앞에는 선과 악이 놓여 있네.
 의로운 길로 돌아서는 사람들은
 장막을 지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

하나님이 내려 주신 계획으로
 평범한 인간에게
 권능, 즉 하늘의 권능이 주어지네.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생명이 있는 아이, 생명이 있는 인간,
 인간의 형상, 신의 형상이 창조되네.
 이 성스런 은사를 대하는 방법에 따라,
 우리의 진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리!

영원한 사랑, 영원한 결혼 생활, 영원한
 증식.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은 새롭
 게 들리겠지만, 사려깊게 생각해 보면, 이
 러한 이상은 결혼 생활을 강화시키고 안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로도 남자
 와 여자를 결혼 성약보다 더 크게 승영시킬
 수 없습니다. 사회나 교회내에서의 어떠한
 일도 결혼 생활의 중요성을 능가할 수 없습
 니다.

결혼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신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능을 초월하는 권
 능인 영화로운 인봉 권능으로 우리가 영원
 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스런 은사를 받
 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대화: 방은자

상속의 땅을 되찾은 이스라엘 민족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예언은 이스라엘 지파가 그들의 상속의 땅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속주로 인정하는 표적이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가 구세주의 재림으로 절정에 이르게 될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표적으로 예언된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을 들 수 있으며 그것이 완성되었음은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미래록에 시온이 세워지는 것이며, 세번째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상속의 땅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번째 예언의 성취는 예루살렘에 올슨 하이드 기념 동산이 헌납되고 이 거룩한 땅을 둘러싸고 관련된 많은 나라들이 외교 각축전을 벌임에 따라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나는 더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의 땅을 되찾은 이스라엘 자손과 구세주의 재림에 관하여 물문경에 기록된 것을 생각해 보면 누구나 흥미를 느끼는 여러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나는 생각합니다.

리하이 일행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직후(주전 580년 경), 니파이는 장차 있게 될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역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대하여 쓴 뒤,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 관하여 예언자가 이르시되, 저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며 저들의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권세와 영광을 부인함에, 세상의 만백성들에게 매질당하리라 하셨으며,

“또한 저들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기록하신 이를 경멸하였음에,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 방황하다가 멸망하며, 만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미움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예언자가 이르시기를, 그러나 저들이 이스라엘의 기록하신 이에게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할 날이 올 것이요, 비로소 기록하신 이는 저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라.

“그때에 기록하신 이는 바다의 섬들을 기억하시리라. 예언자 지노스는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세상 사방으로부터 한데 모으리라 말씀하셨다 하니라.”(니일 19: 13-16)

니파이는 그에 앞서—그들이 대양을 건너기 전에—형제들에게 “유대인들이 말일에 회복될 일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또한 저들에게 유대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일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사야의 말씀을 들려주었나니, 저들이 회복된 후에는, 저들에게 혼란이 일거나 흩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라.”(니일 15: 19-20)

그후 25년쯤 지나서, 니파이의 동생 야콥은 예루살렘의 주인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저들에게 이르시며, 주가 그렇게 하신 후에 내게 일러 주신 천사의 말씀대로 저들이 주를 매질하여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것을 또한 보여 주셨느니라.

“저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향하여 마음을 강박하게 하며 교만하게 된 연후에, 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실 것이매, 저들이 매 맞으며 고난을 당할 날이 이르리라.

“천사가 이르시기를, 저들이 이르러리 쫓기고 나서 많은 자들이 육신으로 고난을 당하나 성실한 자들의 간구로 하여 멸망은 모면할 것이요, 저들이 흠어져 매 맞고 미움을 받으나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이 구속주를 알게 될 때에 또다시 저들을 상속의 땅에 함께 모으시리라.”(나이 6: 9-11)

후에, 니파이 동생인 야곱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읽음은, 너희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맺으신 성약에 관하여 알게 함이라.

“이는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태초로부터 대대로, 모든 유대인들이 참된 교회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우리 안에 회복될 때까지 곧 저들이 상속의 땅에 모여 저들의 모든 약속의 땅을 세워 일으킬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바라.”(나이 9: 1-2)

“그러나 보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느니라. 저들이 나를 믿으며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날이 이르면, 저들을 이 땅위의 상속의 땅에 육신으로 회복하게 할 것을 저들의 조상들과 언약하였느니라.

“그때에 저들은 오랫동안 흠어져 있다가 바다의 섬에서 나오며, 땅의 사면에서 나와와 모이리니, 열방이 저들을 상속의 땅으로 이끌어 올 것임에 내가 보는 바 큰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나이 10: 7-8)

니파이는 그의 생을 마칠 무렵에 장차의 유대인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되리라고 예언했습니

다. “유대인이 열방의 나라로 흠어지며 바빌론이 멸망될 것이매 유대인들은 다른 백성들에 의하여 흠어지며, (사실,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유대인을 흠어지게 한 것은 바빌론이었읍니다.)

“저들이 흠어진 뒤, 주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으로 하여 여러 세대를 두고 저들을 채찍질하게 하시며, 그렇게 하시기를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량없으신 그의 속죄를 믿게 될 때까지 실로 여러 세대 동안을 설복당할 것이요, 저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아버지를 경배하고, 또 다른 메시아를 바라지 않을 때가 이틀지니, 그때에 기필코 저들이 이 말씀을 믿어야 할 날이 있으리라.

“그때에 주가 다시 손을 들어 잃어 버려지고, 타락된 상태에서 두번째로 주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요.”(나이 25: 15-17)

니파이삼서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현재 우리가 보는 대로, 복음이 이방인들 사이에 회복될 우리 기대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저들이 온전한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내게로 향하여 마음을 강박하게 먹을진대,

“나는 내가 저들을 합당한 때에 다시 모아 저들의 조상의 땅이요,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을 영원히 저들의 상속의 땅으로 다시 내어 주리라고 나의 백성들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버지께서 이같이 이르시노라.

“그후에 내가 이르러 나의 온전한 복음이 저들에게 전파되리로다.

“그때야 저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간구할 것이요.

“저희 파수꾼들이 큰소리를 모아 노래하리니, 이는 저들이 화복한 눈으로 마주 봄이라.

“그때에 아버지께서 저들을 다시 함께 모으사, 저들에게 예루살렘을 상속의 땅으로

내어 주실 것이요,

“저들은 기쁨으로 부르짖어 이르기를, 노래하라 황폐한 예루살렘의 땅이여,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요 예루살렘에 다시 나의 백성들이 거하게 되어 그곳이 저들의 상속의 땅이 되리라.”(니삼 20 : 28—34, 46)

구세주는 니파이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주어 이스라엘의 백성인 나의 백성들을 오래 홀어져 있던 곳에서 다시 모으며 저들 가운데 나의 시온을 일으켜 세우는 때를 알게 하리라.

“.....그날에 아버지의 위업이 시작되어 이 복음이 이 백성들의 잔류민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에 아버지의 위업이 홀어져 있던 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시작되며,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잃어버렸던 지파 중에서 시작되리라.

“참으로 아버지와 더불어 홀어졌던 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그 행하심이 시작되어, 저들로 내 앞에 이르는 길을 준비하게 하시며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게 하시리라.

“또한 아버지께서 열방의 나라 가운데 그 위업을 시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이 그 본향인 상속의 땅에 이르는 길을 예비하게 하시리라.”(니삼 21 : 1, 26—28)

물론은 니파이인들에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성역을 간추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그 지혜로 이미 이르신 대로 이 모든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시게 될 때에 너희는 주님께서 상속의 땅을 회복해 주시리라고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바

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을 알리리라.

“너희는 또한 거룩한 선지자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주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오시는 때를 늦추신다고 말할 필요가 없으며,

“마음으로 너희에게 전해진 말씀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리니, 이는 보라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실 것임이라.

“참으로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의 지파의 어느 잔류민에게도 다시는 욕하거나 모욕하거나 회롱하지 말지니, 보라 주님께서 저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맹세하신 대로 저들에게 행하여 주실 것임이라.”(니삼 29 : 1—3, 8)

모로나이가 구모라 언덕에 감추어 두었다가, 1,400년 후에 요셉 스미스가 꺼내게 될 기록을 마치면서, 물론은 이렇게 기록했읍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집의 잔류민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며..... 이것들은 주 앞에 감추어져서 주가 합당하다 하시는 때에 전해지리니

“보라 이 기록들은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하여지리니, 저들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며,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를 통하여 크고도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사,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어 유대인 곧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회복하사 다시 주 저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상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며.”(몰 5 : 12, 14)

물론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이러한 예언은 이스라엘 지파가 그들의 상속의 땅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속주로 인정하는 표적이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교회 재정 위원회 보고

보고자 월포드 지 에드링
교회 재정 위원회 위원장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에게

우리는 1980년 12월 31일 현재 교회 연례 재정 보고서와 같은 날 마감된 연간 교회 운영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한 재정 결산 및 운영에는 교회의 모든 기금과, 교회 재정과가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타 교회 운영 조직의 모든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산, 회계, 감사, 절차 그리고 기금 수입과 지출 관리 방법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는 대관장단이 예산 절차에 따라 교회의 제반 기금 지출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와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되는 십일조 지출 평의회가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출 위원회는 주례 모임에서 예산에 대한 기금 지출을 관리합니다.

재정과와 기타 조직에서는 빠른 교회 확장과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현대



회계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정 위원회와 법률과는 공동으로 재무성과 주 및 외국 정부에서 부과하는 교회 세금에 관계되는 제반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과와 독립되어 있는 감사과는 세 가지 면, 즉 재정 감사, 운영 감사,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컴퓨터 체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과, 기타 교회 산하 조직(회계는 교회 재정 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선교부, 재정 센터 및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교회 각과 활동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감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회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교회 감사과의 관리의 규모와 범위는 교회의 성장과 광범위한 활동에 비례하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와드와 스테이크의 기금에 대한 감사는 스테이크 감사자에게 지명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교회 재정과가 회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재단 법인의 사업은 전문 감사 기관이나 정부 조직 기관이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연례 재정 보고서와 기타 회계 자료에 대한 검토, 그리고 재정을 맡은 부서의 회계 및 감사 방법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토대로 해서 재정과와 감사과와 법률과의 책임자들이 함께 여러 차례 토론한 결과, 우리는 1979년 한해 동안 들어오고 나간 교회의 일반 기금이 확정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회계되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형제
교회 재정 위원회

월포드 지 에드링
데이비드 엠 케네디
위렌 이 퓨
메릴 제이 베이트먼
테드 이 데이비스

*

1980년도 통계 보고

보고자 프랜시스 엠 기번스
대관장단 서기

대 관장단은 교회 회원들을 위해 1980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발전과 현황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회원 수는 대회 전까지 입수한 1980년도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것입니다.)

교회 단위 조직

시온의 스테이크 수	1, 218
선교부 수	188
와드 수	7, 868
스테이크 산하 독립 지부 수	2, 456
선교부 산하 지부 수	2, 267
(이 통계 수치는 1980년 1년 동안에 1, 105개의 와드와 지부가 증가했음을 나타내고 있음.)	
와드나 지부가 조직되어 있는 국가의 수	83

교회 회원

1980년말 현재 스테이크, 선교부 및 교회 본부 사무실에서 보고된 교회 회원 총 수	4, 638, 000
---	-------------

1980년의 교회 성장

축복받은 어린이 수	103, 000
침례받은 기록상의 자녀 수	65, 000
침례받은 개종자 수	211, 000
(개종자로 침례받은 수치는 대회에 앞서 교회 본부에서 받은 1980년의 보고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사회적 통계

회원 1, 000명당 출산 수	28. 2
회원 1, 000명당 결혼한 사람 수	12. 2

회원 1, 000명당 사망자 수	3. 9
-------------------------	------

계보 협회

신전 의식을 위해 1980년에 조사된 명단	5, 414, 600
-------------------------------	-------------

신전

1980년에 집행된 엔다우먼트의 수	
산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	52, 000
죽은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	3, 962, 000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전의 수	19
설계 혹은 건축 중에 있는 신전	8
(1980년에는 1978년보다 89, 100의 엔다우먼트가 더 행해졌습니다.)	

신권

집사	156, 000
교사	122, 000
제사	236, 000
장로	382, 000
칠십인	30, 000
대제사	157, 000
(이 수치는 1980년에 42, 000명의 신권 소유자가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복음 선교사 수	29, 953

교회 교육 기구

1979—80학년도 총 등록자 수 :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 및 특별 프로그램 등록자	309, 000
교회 학교와 대학 및 삼급 교육 기관	75, 000

복지 사업

현금 또는 생필품의 혜택을 입은 인원 수	160, 600
말일성도 사회 사업의 도움을 받은 수	51, 600
유급 직장에 앞선받은 인원 수	26, 400
복지 사업을 위해 봉사한 연인원의 근로일 수	527, 900

창고에서 분배된 생필품 중량
(단위 파운드)35, 441, 200

한해 동안 작고한 유명 회원 :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인 윌리암 에 이치 베넷 장로; 기스본 뉴질랜드 스테이크 의 윌리암 파키마나 타우리마 부장; 로아 유 타 스테이크의 토마스 리 체플 부장; 산 버 나더노 캘리포니아 동 스테이크의 도날드 레 은 한슨 부장; 대관장단의 전 제 1보좌인, 헨리 더 모일 장로의 미망인, 클라라 알버 타 라이트 모일 자매; 심이사도 정원회의

조지 에프 리차즈 전 회장의 미망인, 베시 홀링스 리차즈 자매; 36년간 미국 관세 위 원회의 전 회원, 에드가 비 브로서드 장로; 미국 보전, 신체 교육 및 오락 연맹의 레오 나 홀브룩 회장. 그는 미국 올림픽 위원회 의 전 회원이었고 국제 올림픽 아카데미에 참가했다.

교회 계보 협회 전 회장인 주니우스 엘 잭슨, 40년 동안 대관장단의 일원 또는 심 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의 서기로 일했고 청년 상향회 본부 임원회의 전 회원인 펠 비 존슨 자매. *



비서인 게리 킬레스파이와 의논하는 심이사도 평의회 의 에즈라 페프트 맨슨 회장

요셉 스미스 3세 문서와 왕국의 열쇠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 문서는 축복문의 사본이지, 어떤 직책을 성임한 기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나는 안헬 아브레아 형제를 환영합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아르헨티나에서 헌신적으로 충실히

일한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 나라에서만 아니라 남미 전역에 큰 영향력을 미친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최근에 발견한 바 있는 1844년 1월 17일에 요셉 스미스가 그의 11세된 아들에게 주었던 것으로 밝혀진 축복문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매스 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의 이목을 주목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예언자의 서기로 일한 토마스 불록의 자필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역사과에서는 교회의 초기 역사에 관련된 갖가지 종류의 유품들을 모아들였는데 그 가운데 그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실제 역사를 별로 알지 못하는 비평가들은 이 발견된 문서를 들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권능선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구실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만 천하에 공개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한층 중요한 의미를



소박하게 피하면서 대의와 외곽하기를 기꺼워는 대의 방문자



계증 언했습니다. “나는 부친에게 성임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읍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부친으로부터 그의 후계자로 성임되지 않았읍니다. 내가 이해하고있는 성임이라는 말에 의하면, 결코 나는 부친에게 축복을 받고 확인받은 것이며,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해도 좋겠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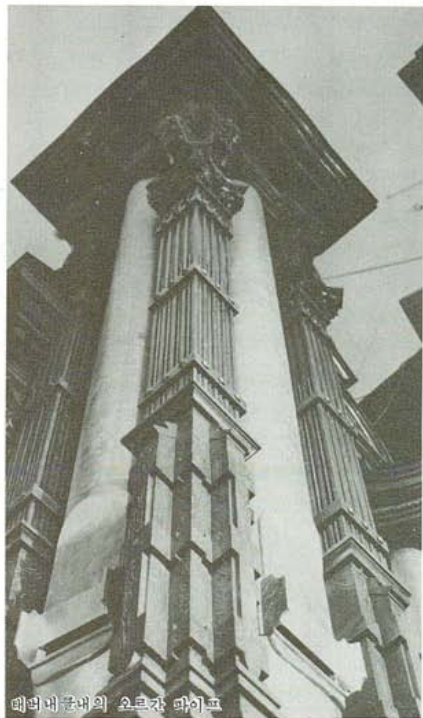
요셉 스미스는 그의 뒤를 이을 많은 사람들과 사람들의 그물을 여러 번 지적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 속에는 그의 형 하이람, 시드니 리그돈,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그의 아들 요셉 3세,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의 아들 데이비드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에 십이사도 평의회가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그 문서의 어법이 가장의 축복문임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요셉 스미스의 직계 후손을 총 회장으로 삼고 있는 복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에서는 그것을 복원 교회에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교회의 역원들은 그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했으며, 그들은 그 대신 다른 귀중한 유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문서를 받아들일것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에 서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케케묵은 논쟁을 다시 끄집어 낼 생각은 없지만, 그 문서로 인해 십이사도 평의회에 전해 내려온 권능이 변동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품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문서에 관한 몇 가지 사실과 그에 관련된 역사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고, 그 상황에서 파생된 몇 가지 사실을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그 문서는 축복문의 사본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직책을 성임한 기록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 축복을 받은 장본인인 요셉 스미스 3세는 미국 캔사스시 순회 재판소에서 1893년에 이렇



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인 울슨 프렛도 그의 아들에게 그가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와 비슷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브리감 영과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아들들을 이와 비슷하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들은 신권의 권능하에서 주어진 모든 축복의 성취는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의 합당성과 충실성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듯이, 신권의 권능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신권의 열쇠와 권능은 교회의 초기 시절에 십이사도 평의회에 주어져 대관장의 사망시에는 그 권능이 합당하고 합법적으로 전달되어 교회가 계속된다는 견해를 따르고 지켜 왔습니다.

예를 들면, 1835년 3월 28일에 받아 기록된 교리와 성약 107편에 들어 있는 신권에 대한 위대한 계시에서, 주님은 교회의 통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대관장단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 십이사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정원회를 구성하며 권위와 권능에 있어서……세 관리 대제사(대관장단)와 동등하다.”(교성 107: 24)

2년 뒤인 1837년 7월 23일에 이 원칙은 계시를 통해 재확인되었습니다. “너희 십이사도회와 너희의 조언자와 인도자로 임명된 대관장단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이 신권의 권능을 부여 받았느니라.”(교성 112: 30)

1841년 1월 19일에 주님은 예언자 요셉을 통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종 브리감 영을 너희에게 주어 십이사도 순회 평의회 의 회장으로 삼느니라.

“이 십이사도는 세상의 네 모퉁이 위에 다나의 왕국의 권능을 열어 그 후에 일체의 산자에게 나의 말을 전하게 하는 열쇠를 지니

고 있느니라.”(교성 124: 127—128)

1841년 8월 16일에 나부에서 열린 특별 대회의 기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이사도회가 대관장단의 뒤에 서서……왕국을 승리로 이끌도록 도와야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대회는 십이사도회와 관련된 스미스 대관장의 가르침을 승인한다는 제안이 표결에 붙여져 가결되었으며, 그에 따라 그들은 그들의 직분을 수행해 나가게 되었습니다.”(“대회 모임 기록”, 타임즈 앤드 시즌스, 2 [1841년 9월 1일자]: 521—22)

주님은 브리감 영을 회장으로 한 십이사도 평의회를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다음 위치에 두어, 예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그의 지시에 따라 교회를 인도하고, 그가 죽은 뒤에는 교회를 이끌어 갈 열쇠와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음이 명백합니다. 본인이 방금 읽어 드린 계시와 나부 대회의 모임 기록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이 주어지기 3년 내지 9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1843년에서 1844년 사이의 겨울, 나부에는 큰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사방에서 교회를 파괴시킬 음모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요셉은 나부의 워터가에 있는 그의 붉은 벽돌집 상점의 다락방에서 십이사도회를 여러 번 소집했습니다. 우리의 기록 보관소에는 이러한 모임을 증거해 주고 그들이 수행한 것을 말해 주는 수많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했던 한 분의 기록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요셉 스미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위대하고 신한 분은 사망하기 전까지 때때로 십이사도를 소집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의식과 통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자기가 기초는 놓았지만, 그것의 완성은 십이사도회에 달려 있다고 자주 말씀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분명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

면 이유에선가 서둘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십이사도회에 신권의 모든 의식과 열쇠, 성약과 엔다우먼트와 인봉 의식을 전해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어깨에 짐을 지우시고 나를 잠시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이제 내가 내게 맡겨진 일을 마쳤듯이, 하늘의 시현과 하늘에서 내게 보여진 형태에 따라 왕국 건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위임하노니, 하나님의 왕국은 세워질 것입니다.”(팔리 피 프랫, “성명서”, 밀레니얼 스타, 5[1845 3월호]: 151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 스미스는 1844년 6월 27일에 카테지에서 폭도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후 8월 8일에 나부에서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보좌로 일한 시드니 리그돈은 한 시간 반 동안에 걸쳐 자신이 교회의 수호자로 지명되었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브리검 영이 사도들을 대신해서 말했습니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순교한 예언자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가 말쑥을 마친 뒤에, 요셉에게 열쇠를 받은 십이사도회가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제안이 표결에 붙여졌으며,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후의 역사에서 그의 지도력을 의심할 사람은 하나도 없음이 분명합니다. 신전 사업과 그 외의 다른 사업이 추진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1846년 2월에는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동이 시작되어 미시시피강 연안의 나부에서 미주리강의 윈터 퀴터스로, 그 뒤를 이어 대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나갔습니다. 그 대열에 참여한 수만 명의 성도들의 신앙은 너무도 컸으며, 주저하지 않고 생명을 바칠 정도로 강한 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뒤에 교회의 대판장이 된 브리검 영을 회장으로 한 십이사도회의 부름에 응하여 이곳의 계곡으로 모이기 위해 나

부에 있는 집을 떠난 사람들의 행위보다 그분의 지도력의 정당성을 더욱 힘있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서를 직접 쓴 장본인인 토마스 블럭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해 봅시다. 그가 그 축복문을 썼다면, 그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그가 사망하면서 남긴 문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토마스 블럭은 1843년 11월에 영국에서 교회에 가입했으며, 1843년에 나부로 이민했습니다. 그는 요셉 스미스의 서기로 일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1846년 가을, 나부를 떠나는 성도들의 마지막 대열에 끼어 들었습니다. 당시 심하게 앓고 있던 그를 총검으로 무장한 폭도들이 둘러싸고, 20분 이내에 시가지에서 떠나지 않으면 쏘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폭도들에게 어쨌든 곧 죽을 목숨이니 쏘라고 했습니다. 폭도들의 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물론교를 부인하면, 이곳에 남아도 되고,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 주겠요.” 블럭 형제는 자기는 합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물론이요. 내가 살아 있는 한 나는 십이사도를 따르겠요.”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는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메추라기 배가 아이오와 야영지로 물려드는 기적에 의해 겨우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1847년 이른 봄에 성도들이 윈터 퀴터스를 떠났을 때, 그는 첫번째 부대의 서기로 뽑혔습니다. 그는 긴 여행길의 일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두번째로 동부를 여행하고, 1848년에 다시 계곡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1856년에서 1858년까지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일게 됩니다. 그가 영 대판장이 교회의 합당한 지도자였다는데 조금이라도 의문을 품었다면, 그

리고 자신이 직접 쓴 축복문에 따라 이 권능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야 한다는 의구심을 품었다면, 것처럼 큰 대가를 치러가며 기꺼이 교회의 회원이 되려 했겠으며, 브리감 영 대관장의 부름에 따라 것처럼 큰 고통을 감수하며 선교 사업을 했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요셉 스미스가 자신의 간증을 피로써 인봉한 1844년 6월 27일의 비극으로부터, 그 뒤 8월 8일에 나부에 모여든 수천 명의 가슴 속 깊이 확인이 된 때로부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꾸준히 전진해 왔으며,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읍니다. 요셉이 갖고 있던 권능, 즉 하늘에서 부여받은 관리권과 똑같은 열쇠와 권능이 바로 그에 의해서 브리감 영을 주축으로 한 십이사도회에 부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의 모든 대관장은 십이사도 평의회에서 선출된 가장 고귀하고 성스런 직분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하늘에서 계시의 영과 권능을 받는 축복을 받았읍니다. 요셉 스미스 이세로부터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에 이르는 고리는 한번도 끊어지지 않았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여러분께 그것을 엄숙히 증언하고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예언과 계시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가르친 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엡 2:20)

우리는 복원 교회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 위에 내려준 가장의 축복이 들어있는 문서를 입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요셉 스미스 가문에게는 큰 가치가 있는 귀중한 유품입니다. 그것은 예언자에 의하여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계시대로 움직여 온 십이사도 평의회를 통해 대관장단이 계승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도 전혀 제기될 수 없읍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십이사도 평의회 의장인 에릭슨과 파우스트 장로와 브리감 영 대관장인 스펜서 더블류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섬깁니다



마빈 제이 애쉬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가 섬기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며,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들이게 되며, 우리가 시간을 들이는 것은 곧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몇 주일 전에, 나는 아내와 함께 오스트랄리아에서 솔트레이크시티까지 가는 여행의 마지막 여정에 올라 오전 6시도 안 되어 택시를 탔습니다. 새벽 3시부터 차를 몰기 시작한 우리의 택시 운전사는 그날의 첫 손님이 된 우리와 몹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부모는 멕시코 시티의 외곽 지대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일리노이주의 시카고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그가 출생한 뒤에 다시 뉴멕시코로 갔습니다. 20년 전에 이 친구는 샌프란시스코에 잠시 들렀다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행장으로 가는 동안, 이 사람은 위대한 진리가 재강조되는 몇 가지 사건을 말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뉴멕시코에 남아 있었으나, 그들은 자식과 손자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으므로, 기회만 있으면 그와 그의 동생을 찾아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뉴멕시코에서 그의 어머니의 건강은 상당히 나빴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는 훨씬 나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 아들은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큰 트럭을 구했어요. 나는 동생과 함께 뉴멕시코로 차를 몰고가 부모님과 모든 소유물을 트럭에 싣고,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서 사시도록 모셔왔어요. 어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랑이 올바로 행해지지만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랍니다.”

이 현명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은 그 다음에도 역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방금도 나는 열 여섯 살 난 아들이 은행에서 시간제 일을 하러 가는 것을 도와 주었어요. 그는 학교에 다니면서, 하루에 두 시간씩 일할 뿐이지만, 어쨌든 그는 일하기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므로, 아들을 항상 직장에 데려다 줄 수 없지만, 집에는 반드시 데려다 줍니다. 아들은 나와 함께 차 타기를 바라며, 나도 역시 그렇습니다.”

보통이 아닌 이 택시 운전사는 다른 중요한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역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 중에 돈이 모자라 쪼쪼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는 대개는 돈 문제로 곤경에 처한 그들을 도와 줄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혼자 쓰기에도 모자라는 월급으로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느냐고 물어 오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도박이나 술이나 담배에 돈을 쓰지 않는다고 말해 줍니다. 아내는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비싼 레스토랑 음식은 사 먹지 않지요.” 그는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니다. “파티는 가족끼리만 한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항상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노름이나 음주 등 돈을 쓰는 행위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운전 기사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험을 통해 사랑의 중요성을 터득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키우는 것은 곧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가르침이 됩니다. 그것은 회생을 요구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곧 우리의 충정을 바치는 것이 됩니다. 그는 사랑의 몇 가지 기본 원리를 힘있게 실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의 말에 도취되어 비행장까지 가는데 한 시간 반이 더 남아 있었으면 하고 바랄 정도였습니다.

이 택시 운전사는 자기의 사랑을 어느 곳에 바쳐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섬기는 것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곳에서 우리의 사랑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사랑의 영역을 합당하게 선택해 놓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자전거나 스케이트 또는 스키 타기 등 균형의 법칙을 배우기를 몹시 바랍니다. 그러다가 타는 것과 속도와 균형 잡기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서 다른 관심사에 마음을 쏟게 되면 새로운 사랑이 생겨나게 됩니다. 농부는 땅을, 학자는 책을, 사업가는 회사를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나, 감독이 와드 회원들을 사랑하고, 청년이 새 차를 사랑하며, 약혼녀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서 받은 반지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악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장래를 망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명예와

행운과 인기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을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옳지 못한 사랑의 대가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역시, 그들이 섬기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돈과 마약과 알코올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을 강도, 살인자,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시킵니다. 처음에 그들은 악한 것이 주는 영향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보배로운 것으로 생각한 것을 위해 모든 것을, 곧 삶과 건강과 자유를 다 희생시키게 됩니다. 감각적인 것과 마약과 거짓을 사랑하는 행위는 점차 악화되어 결국 사탄이 내어 주는 매력적인 것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의 유대는 우리의 계속적인 봉사에 비례하여 강해지는 법입니다. 거짓말을 즐겨 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거짓을 섬기게 됩니다. 사실, 마약 중독자가 거짓말장보다 더 쉽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일에 사탄이 이룩한 가장 큰 과업의 하나는 인간의 마음이 파괴적인 것, 덧없는 것, 세상적인 것에 쏠리게 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최선의 것을 위해 생각하고 계획하려 하기보다는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 “우리는 비난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권리”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젊은이는 “네가 날 사랑한다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 달라.”는 말을 곧잘 합니다. 그는 더 높은 도덕적인 표준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기의 권리로 생각하는 것을 취하려 합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것이 곧 사랑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하든 악하든 일상적인 봉사 행위는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깨버릴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사랑의 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합당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뜻깊은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주며 그것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또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고전 13:4-5 참조) 우리가 신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두 사람의 사랑을 살펴본다면, 그 속에서 근시안적인 “자기 중심적”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희생하는 요소를 찾아보게 됩니다. 구애 기간이나 결혼 생활에서의 참된 사랑과 행복은 정직과 자기 존중, 희생과 관심, 예의와 친절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내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 혼외의 성관계로 미덕과 순결을 빼앗으려는 사람은 친구도 될 수 없고, 영원한 가족도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어리석은 이기주의자로 낙인을 찍는다 해서 너무 가혹할 것은 없습니다. 육적인 것을 탐하는 사람은 사랑과 순결의 열매를 결코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에 교회에 새로 개종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십대의 대부분을 감방에서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음식도 상당히 좋았고, 후한 대접도 받았기 때문에 사정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생활이 썩 지루했으므로, 누가 읽을 거리나, 재미있는 책, 잡지 또는 어떤 것이든 갖고 있다면, 기회있을 때마다 먹을 것을 주고 그것을 빌려 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두꺼운 좋은 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일주일 동안 먹을 돼지고기, 토마토 및 기타 식품들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의 제의를 받아들

이고 내게 그 책을 빌려 주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아주 특별하고 참된 것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빌려 본 책은 물론경이었습니다. 나는 기회가 와서, 선교사들을 찾았고, 내 습관을 바꾸어, 이제는 새 생활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먹을 음식과 바꾼 책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혼치는 않지만, 보람있는 결과를 가져 온 훌륭한 회생이었습니다. 이 개종자는 그가 이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수록 그 책 속에서 찾게 되는 진리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교자의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택시 운전 기사가 한 말을 다시 되새겨 보기로 합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일하기를 가르칩니다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 줍니다. 나 역시 내가 맡은 일을 하니깐요.” 우리의 시간을 내어 주고, 귀기울여 들어주고, 이해하는 마음, 비이기적인 사랑을 베풀고, 때로는 문을 활짝 열어 놓는 것 등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몇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에게서 일하기를 배우는 기회를 빼앗거나, 그들에게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도록 가르친다면, 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야망을 키우기 위해 그들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한 분별있게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이에게 집안에서 일을 하고 무엇인가 기여할 기회를 마련해 주면, 가족에 대한 그의 사랑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에게 그의 재능—그것이 학문이든 음악, 연극, 스포츠, 지도력 또는 그 외의 무엇이든—을 키우기 위해 시간과 회생을 바치게 하면, 그러한 것은 그에게 성취감을 가져다 주므로 사랑이 커지게 됩니다. 자녀들은 그들이 시간과 노력을 바쳐 얻게 된 한 재능이나 소유물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른들인 우리가 좀더 좋은 세상적인 것

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러한 면에 대한 애착심을 키우기란 별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더 큰 집 또는 더 좋은 차나 더 값비싼 보트를 구입하고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희생시켜, 성공과 쾌락의 상징이 되는 것을 위해 어리석은 사랑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섬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랑을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생활을 살펴보고, 우리가 섬기는 것, 희생하고 있는 대상을 알아보고, 이러한 면에 시간과 노력을 바치기를 그쳐야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그런 것에 향했던 사랑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것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뒷받침해 주고 자기를 내어 준다면, 우리의 이웃과 가족은 우리의 사랑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생명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내에서의 부름이나 지명이 때로는 하찮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으나, 그 지명을 작자 기꺼이 완수해 나가면, 주님의 사랑은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개종자가 복음을 사랑할 줄 알도록 도와 줄 수 있을까요? 그에게 섬기고 희생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든 하나님이든, 또는 금이든지 우리가 시간을 바쳐 사랑하고 있는 진리를 끊임없이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함해서, 경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진리를 연구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것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장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생 동안의 지침으로 삼게 됩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일을 가장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회생을 통

해서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과 그 가르침에 대한 감사와 사랑은 복음에 대한 봉사과 실천에 비례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취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랑의 본보기는 물론,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모든 사랑의 행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이 지고한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본보기를 정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정도의 무조건적이고 충분한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사랑을 올바르게 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세주 앞에 간음한 여인을 데려온 것을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 여인이나 구세주에게 사랑을 베포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자는 심산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한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구세주에게 "어떻게 말하겠나이까?"하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죄없는 자가 나와서 먼저 돌로 치라 하자 주위에 물러 있던 자들은 하나씩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는 그녀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한복음 8:1-11 참조)

예수는 간음을 용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합당한 도덕적 행위에 대한 그의 태도에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가르치고, 그녀에게 가장 유익이 되도록 섬겨야 할 필요성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보여 주시고, 속임수나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든 사랑을 보

이는 합당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실어다 준 택시 운전 기사가 “사랑이 올바로 행해지지만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현명하게 말했다 때 그는 필경 그와 같은 기독교의 원리를 그의 생활에 적용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구세주의 행위는 사랑이 우리 생활에서 제자리를 잡아 순서에 맞게 베풀어진다면 우리 모두에게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달라”고 외치는 요인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해 섬기고 사랑하기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정하는 확실한 방법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 : 15)고 한 여호수아의 권고에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활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가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우리가 섬기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며,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들이게 되며, 우리가 시간을 들이는 것은 곧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보람차고 영원한 봉사 행위를 사랑하도록 도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본부 초동협의회 회장단. 왼쪽으로부터 제1보좌 드완 케이콕슨 영 자매, 버지니아 비슬리 캐넌 회장, 제2보좌 마 이클린 패커 그레스리 자매

신앙에 이르는 다리를 놓음



로렌 시 던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개인의 신앙은 복음의 초석이 되며, 우리 개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러하시겠지만, 나도 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노래, 특히 오늘 아침 시작할 때 부른 146장 “의와 진리 지키키에”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확실히 개인의 신앙은 복음의 초석이 되며, 우리 개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인간이 보지 못한 사물의 존재에 대하여 갖고 있는 확신이며, 모든 지적인 존재에 내재해 있는 행동 원리입니다. ……[그것이] 첫번째로 위대한 지배 원리입니다.”(엘 비런드웰 편, 신앙 강화, 7, 10페이지)

야곱은 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온전히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지 못하리라.”(나이 9: 23)고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권능과 행위의 원리가 되며, 우리의 구원의 열쇠가 되는 개인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딤후 4: 12)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너희가 믿겠다는 의욕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믿겠다는 의욕이 내 말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라.”(엘마서 32: 27)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라야 증거를 얻겠음이라.”(이더서 12: 6)

신앙의 은사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단계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단계 중에서 여섯 가지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은 주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또 모든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그에 대하여 베냐민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그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으라. 그가 천지간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믿으며,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만사를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모사이야서 4: 9)

때로 우리는 간막이 속에서 제한된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관해 기도하면서 다른 것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와 주시려 하는 주님의 능력에 한계를 그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존 에이 윌소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연방 정부의 후원을 받아 우리는 많은 연구원들과 함께 토양과 수분에 관한 수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원칙을 추론해 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실망감

을 잊기 위해 아내와 함께 신진으로 갔습니다. 세번째 엔다우먼트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오래 전에 사라져 버렸던 것이 선명히 떠오른 것입니다.”(햇빛 비치는 땅에서: 존 에이 윌소의 자서전,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뉴스프레스, 1952년, 177페이지)

이처럼 신앙이란 주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영감 받았을 때 그것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수년 전 우리가 시드니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을 때, 나는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열심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부는 잘해 나왔으나 경제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날을 택해 나는 금식하면서 주께서 우리가 새로운 성취감을 얻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기도하는 중에 내 아들을 찾아 그에게 축복해 주라는 분명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속삭임에 따라 아들을 찾아, 집안의 다른 방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잘 되어 가니?”

그는 심대의 소년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어투로 “왜요?”하고 대답했습니다.

달리 할 많이 없었으므로, 나는 “너 축복 받고 싶니?”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이상하다는 듯 말없이 나를 쳐다보다가 “예”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축복을 주는 중에 나온 영감은 나나 내 아들에게 똑같이 중요한 것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 두 사람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께서는 내가 선교부에 대한 축복을 구하고 있는 중에, 나로 하여금 내 첫번째 임무인 나의 가족에게 관심을 돌리게 하셨는가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의문을 품

어 보지 않았다면 곧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셋째: 신앙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축복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축복을 받기 위해 계명을 지켜서는 안됩니다.

해롤드 비리 전 대관장은 그가 몹시 필요로 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한 경험을 말씀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이 축복을 받기 위해 간구하고 있는 동안, 그가 얼마 전에 받은 수입 중에서 아직 십일조를 내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주께서 이같이 꾸짖으시는 것 같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축복받기를 원하면서도 그 축복의 토대가 되는 율법에 순종하지는 않느냐?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수입의 십일조를 내고 난 뒤에, 다시 주님의 특별한 축복을 구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네째: 신앙은 우리가 명을 받았을 때 마치 그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히 11:7)

김볼 대관장은 노아의 이러한 통찰력과 방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질 만한 징조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경고는 얼토당토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햇빛이 내려 쬐고 생명체가 정상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메마른 땅에서 방주를 짓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나 시간은 그대로 흘러갔다. ……홍수가 났다. 순종치 않는 자들은 물에 빠지고 말았다. 방주의 기적은 그것을 짓는 과정에서 보여진 신앙에 따라 나타났다.”(기적을 낳는 신앙,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2년, 5-6페이지)

수십년 전, 이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던 암

울한 시기에 오스트랄리아의 엘본 더블류 요
움 선교부장은 어느 신앙심이 깊은 과부의
집에서 배운 일요일 저녁 만찬에 초대를 받
았습니다. 이미 배급제가 시작된 지 오래되
었으므로 여러 가지 좋은 식품이 거리의 상
점에서 사라져 버린 지 오래된 때였습니다.

그 집에 도착한 선교부장은 구하기 힘들
고 여러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음식물이 식
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런 음식물을 들 수 없습니다.”하
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가 하
는 말을 듣고 그는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
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 걱정했습니
다.”하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수년 전부터 총판리 역원의 말씀을 듣고 일
년치 식품을 비축했습니다. 제가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은 모두 이런 것 뿐입니다.”

그녀는 “마치” 음식물이 크게 부족하기라
도 한 것처럼, 음식물을 비축하는 신앙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절실히
필요한 때에 기적을 낳았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족 예
비 프로그램이라는 방주를 지으라는 현대 예
언자의 충고에 따르는 신앙을 보여 그들 자
신이 물려드는 홍수로 인한 재난을 물리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다섯째 : 신앙은 자비를 베풀고 사람들을
믿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구세주는 이러한 사랑을 베푸신 가
장 훌륭한 본보기가 되십니다. 갓은 뱀박과
떨시를 받으신 뒤에도 예수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눅 23 : 34)
이니 그를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을 용서하
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도 또 하나의 본보기가 됩니
다. 시련과 배반으로 얼룩진 삶을 산 그는
카테지로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 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나의 양심은……모든 사람에게 대
하든지 털끝만치도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

(교리와 성약 135 : 4 ; 교회 정사 6 : 555)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런 성품을
지니고 있어 나는 그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한번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던 거지가 그의 집
에 나타나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내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케인트칠
을 해야 할 헛간이 있오. 당신이 케인트칠
을 해준다면,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오.”
그들은 함께 헛간이 있는 곳으로 가 살펴보
고, 그 사람을 잉글랜드 케인트상점으로 보
내 그가 필요한 만큼 케인트를 가져 오도록
했습니다.

헛간을 다 칠하자, 그 사람은 돈을 받고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잠시 후에 잉글랜드씨
가 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람이 헛
간을 칠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케인
트를 가져 갔다고 말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
해서, 내 친구는 속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그 기회를 통해 그의 아들
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한 행위를 내가 알았다면, 그런 것
을 하지 못하게 말했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헛간의 케인트
칠을 했고, 케인트 칠을 한 사람은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를 믿어 주는 사람이 있
었다는 것을 늘 기억할 것이다.”

냉소와 회의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계속
되어 굳어진 마음속에서는 신앙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선한 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파괴시킬 뿐 아니라, 근본적
으로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여섯째 : 신앙은 우리 스스로 신권으로 인
도받을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
쳐 줍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
으니” 그 다음에 그는 왜 이러한 신권 지도
자들을 성도들에게 주셨는가를 말해 줍니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엡 4:11, 13)

신권 지도자들, 신권의 주관하에 계시로 부름받은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가 되어, 결국 구세주를 알게 되고 그의 모습을 우리 몸에 지니 그와 같이 되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게”(교성 1:20)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얼마 전에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이 부름받은 바 있는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스미스 대관장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에게 사적인 문제에 대한 충고를 구했습니다. 결국, 스미스 대관장은 그 사람을 만나 보겠다고 하고,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도 함께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문제를 털어놓자, 스테이크 부장은 그 사람이 취해야 할 바를 말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미스 대관장은 그 형

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형제님께 충고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사람도 당황하며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버리자, 스미스 대관장은 스테이크 부장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충고할 방법쯤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그 충고를 따르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았오. 그러니 그가 신권의 충고에 따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보다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의 지시를 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영감받은 지도자의 충고를 기꺼이 따라야 합니다.)

말일성도는 신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활에서나 다른 사람의 생활에서 신앙을 키우게 되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의 일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며, 이스라엘 지파의 특성은 믿는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믿는 자의 혈통”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신앙은 등대도 되고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으로 태어나 많은 기도와 속삭임으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위로 올려 줍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평화와 기쁨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그것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들을 살찌우고 확신시켜 줍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요셉 스미스는 참된 예언자였으며, 우리는 지금도 사도와 예언자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 나가는 길에서 주께서 우리의 신앙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감사합니다!



안헬 아브레아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새로 부름받은 총관리 역원이 자신의 소감과 간증을 말하면서 그 간증이 “나의 확신이며 나의 반석이며 나의 지주”라고 했다.

며 칠 전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선교부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은 킴블 대관장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나와 아내는 이 부름을 받고 크게 감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책임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는 한 가지 느낌과 말이 꼭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곧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38년 전에 나의 집을 찾아와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 준 두 자매 선교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를 초등학교와 교회의 모든 모임에 데려다 주고, 내가 처음으로 문문경을 읽을 때 함께 읽어 주고, 교회 활동과 신앙 생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 주셨던 사랑하는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막 처원에서 복음의 말씀과 칠판을 받아들였을 나의 부친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11세 소년이었던 어느 일요일 아침, 부친은 나의 침대 곁에 앉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헬, 교회 회원이 되려면 언제나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너는 서약을 맺었으므로 그것을 지켜야 한다.”

나를 돕고 지지하고 언제나 신앙과 복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차서 끊임없이 나의 생애에 영감을 불어넣어 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나의 세 딸에게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그들은 언제나 나의 자랑이며 기쁨이며 행복이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한 지도자와 교사들에게 감사하며, 남아메리카에서 교회가 발전할 수 있게 해준 수많은 선교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들을 미지의 나라에 선교사로 보내 놓고 매일같이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지닌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위대한 구속 사업을 이루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없이 믿고 있는 나의 간증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아는 지식에 감사하며, 요셉 스미스가 거룩한 사명을 받아 그것을 성취했으며, 우리가 그의 사명에 의해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에 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되었음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되며,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현대의 예언자이신 킴블 대관장이 관리하고 지지하고 있으며, 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나의 생애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성신을 통해서 받은 나의 확신이며, 나의 반석이며, 나의 지주인 이 간증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내가 받은 이 부름에 나의 모든 재능과 시간과 노력과 내가 지닌 모든 것을 다 바쳐 봉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은 내가 지닌 감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빛과 진리



디어도어 엠 버튼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의를 행하……면. 유혹을 물리치고 빛과 진리에 따라 생활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교 회에서 우리는 자주 빛과 진리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빛과 진리란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과학도로서 초기에 절대 온도 영(0)도의 개념에 큰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열 에너지가 진무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가 얼마나 찬 것인가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빙점 이하로 떨어질 때 우리는 춥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고 0도에서 얼니다. 그러나 절대 온도 0도는 섭씨 영하 273도입니다. 그와 같은 온도는 외기권의 온도와 비슷합니다.

나는 어린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네바다에 있는 어떤 광산을 조사하러 갔습니다. 우리는 각자 플래시를 갖고 있었으나 여분의 배터리는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광산에 오래 머물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예상했던 것보다 길고 깊었습니다. 아버지가 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갱도의 끝에 이르기 전에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 플래시를 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광산의 조사를 끝낼 무렵 그의 플래시가 회미해지기 시작했고 아버지

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안있어 그의 플래시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내가 다시 불을 켜기까지 춥고 칙흑같이 어두운 가운데서 느꼈던 공포심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리가 갱도 입구에 도착하기 전에 배터리가 모두 나가버렸지만 터널 입구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입구에 가까와짐에 따라 그 빛은 밝아졌고 우리가 따뜻하고 밝은 태양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기분 좋음은 무어라 형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어둡고 추운 곳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빛과 따뜻함보다 어둠과 비참함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주님을 배척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암흑과 추위와 불행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요한일서 1:5)

나는 사탄의 어두운 영역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빛의 영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바깥의 어둠 속에 내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울부짖으며 이를”(교성 133:73) 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둡고 추운 곳에서 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옥의 불”과는 다릅니다. 그 불은 그리스도의 빛보다는 차라리 사탄의 암흑을 택한 자들이 느끼는 영원한 후회입니다.

현대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 그와 같은 빛과 진리는 악인을 버립니다. (교성 93:36-37 참조)

하나님의 영광에만 전념하면 우리의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빛으로 충만하게 된 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교성 88:67 참조)

또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되 어두움이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날이 오리니,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느니라.

“그때에 너희가 나를 본 줄 알리니, 곧 내가 존재하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참빛이요,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풍성하게 될 수 없느니라.”(교성 88 : 49—50)

진리의 빛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는 커다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영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빛을 발하여 너희에게 광명을 주는 빛은 너희 눈을 뜨게 하시는 이를 통하여 오나니, 너희 이해력을 일으키는 그 빛이시니라.

“그 빛은 하나님 편전에서 나와 광활한 우주를 채우느니라.

“그 빛은 만물 안에 있어 만물에게 생명을 주며 또 만물을 다스리는 율법이니, 곧 보좌에 앉으사 영원한 품 안에 계시며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힘이니라.”(교성 88 : 11—13)

하나님의 빛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빛도 포함되며 이 빛은 우리를 따뜻하고 기분 좋게 해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빛은 만물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빛은 예지와 진리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계시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만물보다 낮아지신 것같이 높히 올라가셨으니, 이로써 만물을 아시사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니 곧 진리의 빛이 되셨느니라.

“이 진리는 빛을 말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빛이라. 저는 또한 태양 안에 계시나니, 태양의 빛이시요, 그 태양을 만드신 힘이시니라.

“저는 또한 달 안에 계시나니 달의 빛이시요, 그 달을 만드신 힘이시니라.

“또 별빛이시니 그 별들을 만드신 힘이시니라.

“또 땅이시요, 그 땅의 힘이시니 곧 너희가 서 있는 땅이시니라.”(교성 88 : 6—10)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에는 영적인 빛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빛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빛에 의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사탄은 인간의 자녀들에게 와서 그들의 불순종과 조상의 전통을 이용하여 빛과 진리를 뺏아가는 사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빛과 진리 가운데서 키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교성 93 : 39—40 참조) 빛의 반대는 암흑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의시킨 예언자 모로나이의 권고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간악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하거나,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을 악마의 것이라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

“보라 나의 형제들아, 선과 악을 구별하여 판단하는 일은 너희에게 맡겨진 일이라. 또한 이를 판단하는 일은 낮과 밤을 구별하여 온전하게 아는 것같이 지극히 간단한 일 이니라.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 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 주리라. 무엇이랴도 선한 곳으로 인도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사로 인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온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그러나 무엇이랴도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거든, 너희는 분명히 온전한 지식으로 이러한 것이 악마에게 속한 것임을 알지니 악마는 이같이 행하여 다 하나라도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마의 천사들도 그러하며 악마에게 매어 있는 자들이 다 그러함이라.”(모로 7: 14-17)

인간 내부에 있는 영은 영원한 반면에, 인간의 육신은 죽게 되며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육신보다 더 힘이 있어 육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과 육체적인 욕망으로 우리의 행동이 다스림을 받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육신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하여금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과 육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제어할 수 없는 본성과 욕망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강한 욕망과 걱정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욕구나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걱정과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방편으로써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통제력을 사탄에게 내어 주지 않은 한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세주 이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욕망과 걱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와 같은 욕망과 걱정을 통제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의를 행하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면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빛과 진리에 따라 생활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나는 이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한 어떤 성구에 대하여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이라. 어느 때에도 결코 나는 속세에 관한 율법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나니, 어떠한 사람에게나 인간의 자녀들에게나 내가 창조한 너희 시조 아담에게까지도 준 일이 없느니라.”(교성 29: 34)

이 성구를 이해하기 시작하자 나의 육신의 존재와 육신에 관한 전체적인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것이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나 그 외에 우리가 지상에서 바칠 수 있는 헌물보다 더 물질적인 것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는 이면에는 영적인 근거나 영원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늘 문을 열지 않는지 보라고 하신 것은(말 3: 10 참조)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이것은 이 율법을 잘 지킬 때 우리에게 오는 이 지상에서의 축복과 물질적인 보상에 대한 약속만을



천제에 관해 맹목 스게에서 '빛'을 조이고 있는 그의 방관자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물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활짝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것은 진리와 지혜의 계사라고 생각합니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실 때는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건강과 장수에 대한 세상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또한 지식의 “감추인 보화”(교성 89:19 참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의견으로는 이것이 영원한 보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따뜻함과 빛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바깥 어둠 속에 앉아 추위와 비참함을 느끼는 자들은 그와 같은 평안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절대 온도 0도로 돌아갑시다. 거기는 이론적으로는 전혀 열이 없습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어느 정도로 빛과 진리를 갖고 있든지 그것을 상실하는 과정에 있으며, 기쁨과 행복은 모두 사라진 암

흑과 추위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약하면 빛과 진리는 순수한 예지입니다.

이 교회는 단지 또 다른 교회일 따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회원들 가운데도 회복된 복음이 단지 또 다른 종교 철학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임을 진심으로 간증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 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 교리는 빛이며 진리입니다. 이 교회를 무시하거나 단순히 다른 종교 철학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범하게 되는 가장 큰 잘못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교리는 나 자신의 간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빛과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회가 끝나고 십이사도 제일 평의회 회원들과 악수를 나누는 스펀서 더블류 킵클 대관장

예언자의 부름



리글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에게는 예언자를 부르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들이 이 지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네 번이나 선교 사업을 행할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또한 복음의 회복을 통하여 받은 이 가르침과 수많은 다른 교회의 가르침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두 가지 가르침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예언자 요셉을 방문한 사건에서 배운 사실, 곧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다른 개체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으로부터 나왔을 때와 같이 실제 인격체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놀라운 시현을 받았을 당시 세상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이 영원하며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리는 내가 언젠가는 영원한 세상으로 먼저 간 나의 사랑하는 반려자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 나와 나의 아내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훌륭한 가족을 결합시켜 주는 사랑의 유대가 계속되지 않는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죽음을 영과 육신의 완전한 별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위대한 진리의 하나는 유아 침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침례가 필요하다는 개념은 인간의 착오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팔에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교회의 회원들과 우리의 훌륭한 철학 가운데 몇 가지를 토론했을 때,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가르침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14세된 소년을 택해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열게 하셨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주님은 그 경륜의 시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엡 1:10)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또 하나의 훌륭한 원리, 전세에서의 영의 존재에 관한 원리, 곧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지상에 오기 전에 그분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행 17:26)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히 12:9) 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구절이 마음에 듭니다. 예수님께

서 기도하실 때 그분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마 6:9)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에게는 예언자를 부르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들이 이 지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주께서 영들 가운데서 계셨고 그들 가운데 고귀하고 위대한 자들이 있었다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위대하고 고귀하게 만들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 없었다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들을 나의 통치자로 삼으리라……아브라함아 너는 저들 중 하나라. 너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느니라”(아브라함서 3:22-23)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귀절이 아닙니까? 주님은 이러한 영들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지상에 와서 예언자가 된 영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사건에 관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렘 1:5) 주님께서는 그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기 전에 성임하지 않았을 것이며, 만일 그가 영의 세계에서 지상에 내려와 주님의 대변자가 되도록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던 것이며 용(사탄)은 땅으로 내어 쫓기었으며 그때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땅과 바다는 화 있

을진저 이는 마귀가……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너의 싸움이라”(계 12:7-9, 12)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벤전 5:8)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행하는 일입니다. 그는 하늘의 별 중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계 12:4 참조) 땅에 던졌습니다. 그때 그 무리는 영의 세계에서 가졌던 지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식은 일시적으로 잊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9-10, 12)

이 구절은 우리가 이 지상에 오기 전에 영의 세계에 살 때 갖고 있었던 지식이 완전히 회복되리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식을 잊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구세주의 생애가 가장 훌륭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다음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1, 3, 4)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이 성구에 따르면,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상에

태어났을 때 다른 어린 아이와 마찬가지로 걷고 말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12세에 성전에서 박사들과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그분은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요 5:1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영의 세계에서 지니고 있었던 지식을 갖고 왔기 때문에 천국 전쟁에서 대항하여 싸웠던 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아합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마 23:37-39)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롬 10:17, 14-15)

우리는 파송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악마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 전에 수천 명이 태어났으나 사탄은 모세를 염두에 두어야 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그를 구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바구니에 넣

어서 강에 띄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꺼내어 길렀습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 사탄은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 베들레헴과 그 주위에서 2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모조리 죽이게 했습니다. 그 전에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태어났으나 사탄은 구세주를 염두에 두어야 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탄과 삼분의 일의 영이 내어 쫓김을 당했던 천국 전쟁에 가담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숲으로 기도하러 갔을 때 14세밖에 안되는 한 소년에게 암흑의 권세가 엄습해 왔고 그의 몸으로부터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순간 그의 기도를 통해서 빛기둥이 내려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고귀하고 위대한 자 가운데 한 분이였으므로 사탄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물문경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리하이는 광야에 있을 때 그의 아들 요셉에게 주님께서는 애급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말일에 그의 후손 중에서 모세처럼 위대한 예언자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나이 3:6-9)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에는 모세같이 위대한 예언자는 없었다고 기록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했습니다. (신 34:10 참조) 요셉 스미스는 태어나기 3천년 전에 주님께서 애급의 요셉에게 그의 자손을 통하여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러한 예언자입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도 요셉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그의 아버지도 요셉이라 불리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에게 권세를 주어 저로……나의 말을 전하게 하며”(나이 3:11, 15)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와 그 외에 많은 기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록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그는 이 지상에 살았던 어

면 사람보다 더 많은 진리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저들에게 전 달된 나의 말을 확증하게 할 것임에”(나이 3 : 11)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경전 해석의 차이로 말미암아 수백 개의 인간의 교회가 생겨났으며 이러한 교회들은 계속 불어나고 있으므로 주님께서서는 이미 그들에게 준 경전을 이해할 능력을 이 세 예언자에게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 그분은 요셉 스미스가 “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나이 3 : 15)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거룩한 신권과 복음의 구원 의식을 집행할 권세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부언했습니다. “저를 내 눈에 위대한 자가 되게 하리라.”(나이 3 : 8) 이 세상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는 주님보시기에 위대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선교 지역에 있을 때 겪었던 한 가지 작은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경험은 주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을 전해 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전해 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적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홀랜드에 있을 때 사업가들로 구성된 성경 연구반에서 말씀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저명한 가구상의 집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약 20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그 가구상의 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보편적인 구원에 관해 말씀하도록 약 1시간 30분을 할애해 주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를 위한 사업과 영의 세계에서의 복음 전파, 죽은 자를 위한 산 자의 대리 침례 등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경전의 장과 절을 제시하고 각자 자신이 가진 성경에서 그 구절을 읽게 했습니다. 나는 말

씀을 끝마친 후 성경을 덮고 그들의 논평을 요구했습니다.

첫번째 논평은 그 집 주인의 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해할 수 없군요. 저는 여러 번 이와 같은 성경 연구반에 참석해 보았지만 아버지가 모든 것에 관해 한 마디 말씀도 안 했던 적은 없었어요. 오늘은 한 마디 말씀도 안하셨군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애야, 정말 할 이야기가 없구나. 이분은 우리가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가르쳤고 그것도 우리의 성경을 사용하여 가르쳤어.”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더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복음을 회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렸습니다. 아멘. *



집십인 제일 정원회의 환스 에이 더베이 장로(왼쪽)와 집십인 제일 정원회의 명예 회원인 헨리 더 테일러 장로

저희 아버지에게는 더욱 큰 일을 요구하심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저들이 성장하여.....책임을 깨닫게 될 때까지는 어린 아이를 유혹하는 능력을 사탄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어린이들에게 이와 같은 유아기와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시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 아버지께더욱 큰 일을 요구하도록”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교성 29 : 47-48 참조)

“저희 아버지께는더욱 큰 일을 요구하도록 하였음이니라.” 주님께서 아버지들을 얼마나 신임하며 그들에게 얼마나 큰 책임을 주셨습니까! 오늘날 아버지들에게는 큰 것이 요구됩니다.

아버지에 관해 생각할 때 나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신 아담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그의 후손들을 의로운 방법으로 충실하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관해 생각합니다. 그의 후손들 가운데 그분의 신앙과 견줄 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야곱, 즉 이스라엘을 그의 근면과 오래 참음에 대해 경건에 가까운 감정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내가 리하이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아들들에게 보여 준 모범 때문입니다.

나는 이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 아들의

간증을 맨 먼저 신뢰한 요셉 스미스 일세에 관해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의 6대 대관장이시며 10대 대관장의 아버지이신 조셉 에프 스미스의 모범에 관해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한 고귀한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위대한 예언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위대한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며 그분의 기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버지되시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특별한 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웅만한 열성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의 집은 화평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자손들이 우리 이름을 자랑스럽게 지킬 것이며, 가족의 유대가 영원해질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첫째, 사랑과 주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드십시오. 어린이들은 죄없이 신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 중립적인 환경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가정은 선악간에 그들의 생각과 정서와 표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차 그들은 이런 것에 의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위대한 일은 영원히 지속될 행복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이 존속되는 가정을 이룩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값비싼 가구나 욕실의 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사랑과 인정을 받는다고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있는가 아니면 언쟁과 다툼이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어린이가 부모의 선한 영향을 받기 전에 먼저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기를 원하며, 자녀들이 여러분과 단합하고 여러분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모든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과 아들들 사이에 있어야 할 사랑을 위해 아무리 그들이 고집스럽더라도……자녀들과 말을 할 때는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하는 식으로 거칠게 말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합니다. 필요한 때에 그들을 위로해 주고 함께 슬퍼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함께 눈물을 흘리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달래 주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꾸중하지 마십시오. 배를 들거나 폭력을 쓰지 마시고 정당한 이유와 설득과 거짓없는 사랑으로 토론하고 상의하십시오. 이러한 방법으로도 자녀들의 마음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이들을 바로잡을 길이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복음 교리, 285페이지)

가정을 피난처와 행복의 장소가 되게 할 수 있는 피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주는 것이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내와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돌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온 힘을 다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경청과 사랑과 애정을 주는 것과 같은 중요한 욕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행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곧 알려주세요.

감사를 표시할 때에는
남이 표시할 때까지
미루지 마시다.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즉시 말해 주세요.

돈이나 명성보다
더 가치있는 것은
명량한 성품이니
진심에서 우리나라오는
따뜻한 칭찬의 말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칭찬해야
하겠다고 생각되거든
바로 그때 칭찬해 주세요.
아버지가 들려주는
사랑이 넘치는 말로
자녀와 가까운 사이가 되어 주세요.

(버튼 브래리 편, “지금 합시다”, 미국민의 애송시 모음, 뉴욕 가든 시티 출판사, 1936년, 108—9페이지)

여러분이 지상에서 갖는 가장 훌륭한 기회는 아버지가 되는 기회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하신 이 말씀은 모든 아버지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보다 사업이나 쾌락이나 부수입을 우위에 둔다면, 그 순간부터 영혼을 격하시켜 약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의 가정보다 클럽에 더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그의 생애 있어서 가장 훌륭한 기회를 헤아리지 못하고 진정한 남성이 되는 최종 시험에서 낙방했다는 큰 수치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순간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에 살더라도 단합된 가족에게서 생겨나는 사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어떤 부모보다 더 가치있는 것입니다. 하

나님은 그와 같은 가정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순수한 가정에 사는 청결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처치 뉴스, 1968년 9월 7일, 4페이지)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영이 거합니까?

둘째, 자녀가 진리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십시오.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에게 준 계시에서 아버지들에게 빛과 진리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들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행하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우리들은 교리와 성약 93편에서 요셉 스미스 이세와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와 시드니 리그돈과 뉴웰 케이 휘트니에게 준 이 원리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와서 불순종과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로 인간의 자녀로부터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가느니라.”(교성 93:39)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은 말할 것도 없이 선조들의 나쁜 모범과 가르침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별의 왕국의 상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비뚤어진 면을 묘사해 주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영성을 빼앗는 행위를 유발시키는 수많은 슬로건과 광고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공립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와 교수 보조 자료 까지도 이러한 이론을 가르치며, 어떤 경우에는 거짓을 진리인 양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립 학교에서 윤리 및 도덕 강령에 관해 가정에서 행하고 있는 가르침을 강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인간이 하등 동물에서 발전해 왔다는 진화론이라는 그릇된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도덕적인 가치란 없다고 가르치며, 초자연적인 신앙을 거부하고 있으며, 부도덕한 행위와 동성 연애와

그 외의 도덕적인 행위와 같은 “변태적인 생활 양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은 우리 젊은이들의 신앙과 도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의 보존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낙태를 주장하는 자들에게서 확실한 도덕적인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에게 기대하시는 위대한 일입니다.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과 그릇된 지식과 가르침을 고쳐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저녁 맨 먼저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무엇을 고쳐 주어야 할 것인지 알아보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필요하면 주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진리는 저 악마를 버리느니라.”(교성 93:37)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새로 조정된 일요일 집회 순서는 아버지들에게 일요일에 자기 자녀를 가르칠 시간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가족이 경전을 공부하고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행하는 가족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주님께서 부모들이 가르쳐야 할 특별한 교육 과정을 계시하셨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곧 어디서든지 모든 인간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니,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깨닫지 아니한 것이 그곳에 거할 수 없음이라.”(모세서 6:57)

이 계시의 내용을 더 읽어 보면 그 근본 교리는 아담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사명과 속죄와 찢겨지는 원리와 복음의식,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

거룩한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신의 은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모세서 6:58-59 참조)

형제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의 근본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가르치기는 하는데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가르칩니다. 아버지들에게 부여한 책임은 복음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극히 드른 예를 제외하고는 영원한 축복을 받은 의로운 아들과 딸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통하여 육체적으로 단지 태어났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모범과 가르침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위대한 아버지는 자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세째, 여러분의 집에 질서를 세우십시오

초대 교회 역사에서 아버지들에게 주신 주님의 권고도 그러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시기에 적절한 권고를 하셨습니다. 가정에 질서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반자와 또한 여러분과 자녀들 사이에 조화와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집에 질서를 세우는 것은 매일 매일의 가족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것은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반자가 신진 추천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며, 모든 가족이 승영의 의식을 받고 영원히 인봉되는 것이며 가족이 정직한 십일조와 헌금을 바쳐 무거운 부채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 질서를 세웠습니까?

존 테일러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신권 소유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집에 질서를 세울 것을 요구하노라……그리고

내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각자의 집에서 불의를 몰아내기 바라노라. 그렇게 할진대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나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너희는 성스러운 곳에 함께 모여 그 속에서 나에게 외쳐 의로운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나의 영과 권세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며, 너희와 내 가족과 거처와 집과 가족과 가족과 땅과 과수원과 포도밭과 너희에게 속한 모든 것에 축복을 내려 주실 것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일 것임이니라……나의 말씀이 나아가갈 것이며, 나의 사업이 성취될 것이며, 나의 시온이 세워질 것임이니라.”(1882년 10월 13일, 유타 테리토리,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존 테일러 대관장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 교회 역사와 문서 보관소 사식 원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오른쪽)이 십이사도 평의회 의 고든 비 힐팔리 장로로부터 영접을 받고 있는 장면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아버지들에게 여러 가지 큰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 필수 요건은 사랑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을 만드는 것과 빛과 진리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과 집에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이 성스러운 칭호는 전능자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칭호입니다. 교회에서는 남자들이 부름을 받고 해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의 책임에서 해임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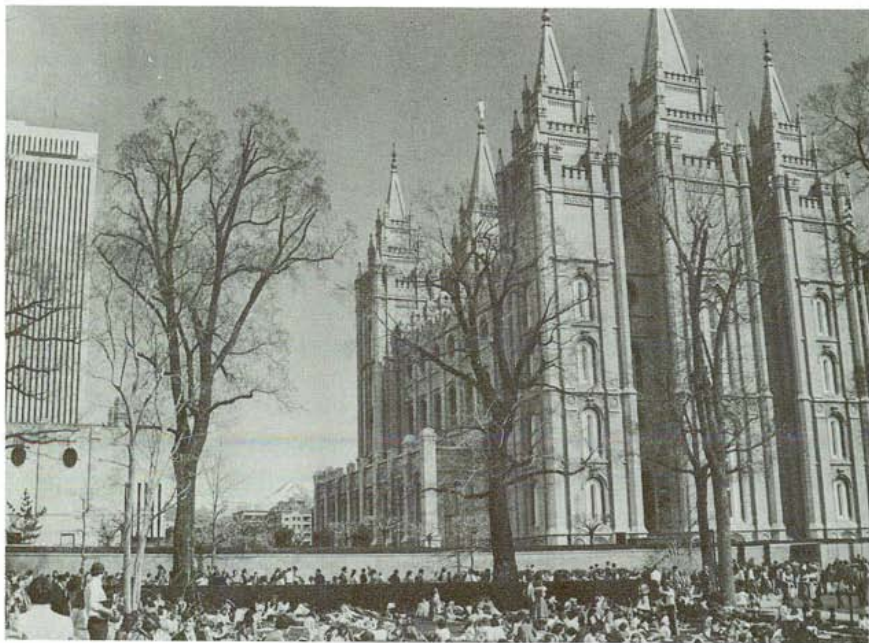
나는 교회를 통해 여행하면서 충실한 가족을 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 모범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충실한 젊은이들을 보고 그들이 행한 업적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위치나 부의 문제가 아니며 이것은 해의 왕국에서 자신의 가족을 승영에 이르게 하겠다는 열망과 근면과 결의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을 잃는다면 우리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족 모두와 그의 후손이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하늘의 집, 곧 해의 왕국에 도착하겠다는 목표를 지닌 가족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가족이 모일 때마다 이것을 강조하며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아버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이 일, 즉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솔트레이크 신전의 장관. 왼쪽에 교회 본부 건물이 보인다.

금식 헌금: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함



빅터 엘 브라운 감독
관리 감독

“이사야서 58장을 분석해 보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금식하고 금식 헌금을 바치기 원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수많은 신권 소유자들의 모임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마음 속으로 기도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지명받은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제의 서론은 구약성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피로와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면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이사야 58:6-11)

이 성구에 관해서 해롤드 비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은 어느 시대나 자세하게 설명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사야서 58장을 분석해 보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금식하고 금식 헌금을 바치기 원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이 응답하시게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되 그분이 응답하시지 않는 상태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곤경에 처하여 부르짖을 때 그분이 함께 계시지 않기 바라십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우리에게 보다 많은 주님의 축복이 필요한 때이며, 온 지상에 심판이 내려질 때이기 때문입니다.”(“듣고 순종하라” 1971년 4월 3일 복지 농업 모임, 타이프라이터 원고 14페이지; 교회 역사 도서관)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구제 사업의 근본 원리는 이 사업이 금식 헌금과 그 외의 자발적인 기부와 헌금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십일조는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메리온 지 롬니 인용, “우리의 근본 목적”, 복지 농업 모임, 1971년 4

월 3일, 타이프라이터 원고, 8페이지; 교회 역사 도서관)

금식 헌금은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제정에 관한 율법입니다. 오랫동안 금식 헌금은 두 끼를 굶고 그 대가를 바치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회원들이 금식함으로써 실제로 남게 되는 식품을 바치게 하였으므로 이런 생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상황이 매우 절박하였기 때문에 금전은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한 사람이 1불을 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킵블 대관장께서는 금식 헌금에 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끼를 금식하여 모든 금액 대신에 몇 배, 때로는 열 배나 되는 것을 바칠 수 있도록 관용과 아량을 지녀야 합니다.”(대회 보고, 1974년 4월, 184페이지)

금식 헌금은 자유의지로써 결정하는 것이며, 각 개인이 내는 액수도 이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십일조와는 다릅니다. 금식 헌금의 액수는 각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만 살아 계신 예언자께서는 반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창고 제도를 운영할 만큼 금식 헌금이 모아진다면 참으로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음 성구가 우리가 얼마나 반대해야 하는가를 알려줄 것입니다.

첫째, 교리와 성약 42편 30절에서 시작되는 이 구절은 헌납의 법에 관해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보라, 가난한 자를 기억할지니, 깨뜨릴 수 없는 성약과 행위로써 네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하여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하느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너희 재물을 나누어 줄은 내게 행하는 것이 되나니, 재물을

나의 교회의 감독과 두 사람의 장로……앞에 바치라.

“그러므로 잉여물은 나의 창고에 잔치해 두어……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느니라.”(교성 42:30-31, 34)

주님께서는 이 원리를 교리와 성약 70편 7절을 포함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필요량이나 부족량을 충족시키고도 이익이 남게 되면 모름지기 이를 나의 창고에 넣어야 하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관원이 예수께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물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눅 18:20-25)

다시 교리와 성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나 주가 모든 산 자를 위하여 만들고 마련하여 준 세상의 축복을 관할하는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모든 사람에게 지우게 함은 필요한 일임이니라.

“나 주는 하늘을 펼치고 땅 끝 나의 손의 창조물을 만들었으니, 그 안에 있는 만물은 나의 것이니라.

“그러나 이는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니, 보라, 가난한 자는 높아지고 부한 자는 낮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내가 나의 성도를 부양하기로 선포한 방법 이니라.

“땅은 충만하고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으나, 참으로 내가 만물을 만들어 인간의 자녀들에게 이를 주어 자유의지대로 행동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어느 사람이 내가 만든 것을 풍성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나의 복음의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자기의 몫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저는 악한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으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리라.”(교성 104 : 13-14, 16-18)

나는 몇 년 전에 그 당시 통가 선교부장이었던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부터 받은 편지의 일부로써 금식 헌금에 관한 말씀의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통가 선교부로부터 받은 금식 헌금에는 1,000불짜리 수표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여기에서 끝나야 하지만 내가 최근에 겪은 경험 때문에 몇 마디 더 첨가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통가는 세계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입니다. 평균 임금은 요행히 적장을 가졌을 경우 한 시간당 12센트입니다……

“나는 최근에 벽지의 한 집을 찾았을 때 해질 무렵에 거기에 있는 한 훌륭한 미망인 자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그녀가 살고 있는 오막살이 집으로 다가갔을 때 아직 날이 밝았으므로 그녀의 주위에서 빈곤의 표적들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착하기 전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창과 쓰레기와 말리는 생선에서 나는 비린내는 처음부터 비위를 거슬러 놓았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교회 형제 자매의 오랫동안의 해후에 대한 감사의 눈물과 따뜻한

은 곧 주위에서 받은 일시적인 불쾌함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녀와 그 나라 말로 대화를 나누며, 그녀가 교회에 대한 사랑과 신앙과 자신이 받은 모든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는 그녀의 비참한 환경에 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내가 축복과 빈곤과 봉사 등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그녀가 오막살이 집으로 가서 조그마한 매듭진 형질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나의 마음은 빛으로 가득 찬 듯했습니다. 그때 ‘금식 헌금’이란 말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무나 갑작스레 그리고 너무나 명백히 들려 오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형질으로부터 3센트를 꺼내어 ‘여기에 나의 금식 헌금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드럽게 말했을 때 너무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어리둥절해 하던 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그 자매에게 금식 헌금이란 다른 사람이 아닌 그녀에게 주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은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물어린 눈을 보았습니다. 먼저 3센트를 그 다음에는 훌륭한 자매를 번갈아 보았을 때 모든 장면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두막집은 대저택으로, 진흙은 황금으로 변하고 있었고…… 세상은 잠시 동안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자연은 정지되어 하늘로부터 나오는, 전 우주를 짙게 메운 다음과 같은 위안을 주는 말씀을 듣는 듯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 5 : 3)

“서산에 넘어가는 해가 하루의 끝을 알리듯이 이것은 또한 그녀의 아름다운 봉사의 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내가 3센트를 받고 영수증을 끊었을 때 다시 나의 과거의 경험이 모두 되살아났습

니다. 나는 '이 작은 3센트가 1천불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감독님들이 금식의 법을 가르치거나 이 성스러운 기금을 사용하여 가난한 자를 돌볼 때 현명하고 분별있게 하기 위해 이 훌륭한 통가의 미담을 기억하시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스테이크와 와드 예산에 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인 압박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을 행하여 회원들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그러한 행사는 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자 여러분은 다른 사람도 여러분과 같은 수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최근에 한 어머니로부터 받은 편지의 일부를 인용함으로써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은 9월에 배구팀 유니폼을 살 돈을 모으기 위해 일주일에 3번씩 저녁 시간과 토요일 아침 시간에 피자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또한 반 파티와 청녀를 위한 새로운 시작, 지도자 훈련, 와드 봉사 활동도 하였습니다.

"10월과 11월에는 일주일에 3일씩 저녁에 배구 연습과 게임을 하였고 와드 저녁 식사, 핼로인 파티, 주중 스테이크 노번의 밤, 댄스 파티 등이 있었습니다.

"1월에는 다시 스포츠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한 농구 연습과 게임이 있었고, 스테이크 표준의 밤과 기금 모으기 활동이 있었습니다.

"2월에는 농구 게임과 더불어 일주일에 세 번 로드쇼 연습과 스키 파티와 스노우 파티와 스테이크 야영 모임, 교회 조직 150주년을 마무리하는 워크샵과 이달 중 적어도 22일이나 걸리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처럼 자세히 말하자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세차, 도너츠 판매 외에도, 아이다호주에서는 여름까지 돈을 모으기 위한 가장 좋은 활동으로 토요일 아침마다 잔디 고르기 등이 있습니다. 5월에는 청남 청녀 합동 아론 신권 야유회, 풀벌반 야영, 소년단 야영 이외에 두 번에 걸친 소년단 1박 야영 활동이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장로는 어제 저녁 지역 대표와 스테이크 부장 특별 연석 모임에서 이 주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에서 한두 문장을 인용할까 합니다. "필요할 때의 회생은 복음의 중요한 일면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러나 사치나 서투른 운영으로 말미암아 요구되는 '불필요한' 회생은 약입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의 스테이크 부장은 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면 즉시 스테이크 예산과 와드 예산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물론 스테이크 예산은 와드 예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치밀하게 평가해야 할 몇 가지 구체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1. 에너지 비용: 사용하지 않는 방의 전등은 꺼 주시기 바랍니다. 냉방 장치나 온방 장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건물 전체나 일부를 사용할 때가 아니면 가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유급 관리 봉사: 와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정원을 돌보고 기본적인 청소를 할 것을 고려하는 가운데 유급 관리 봉사를 다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직업 관리인의 작업 시간을 줄여서 그들이 기계나 그 외의 복잡한 장치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항목에 관한 제언은 곧 인쇄하여 배부할 것입니다.

3. 복지 사업: 모든 사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최대한 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

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와드 회원들이 내는 현찰 현금을 줄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4. 활동: 현 정책은 연례 예산에 와드와 스테이크의 모든 활동 예산을 포함시키고 이러한 예산 이외에는 다른 모금 활동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비싼 비용과 장거리 여행을 요하는 청소년 대회나 활동은 계획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도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율법, 즉 헌납의 율법이 다시 교회의 재정적인 법이 되어 이 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충분히 돌볼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때까

지는 우리의 잉여물로서 가난한 자들을 후히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축복이며 사실상 이것은 우리의 성약입니다.

우리는 복지 사업의 첫째되는 원리로써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재정적인 부담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재정적인 안정을 약화시키거나 그들이 자신의 필요 사항을 돌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는 것이 스테이크 부장과 감독의 책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현명하고 건전한 관리자가 되어 우리의 가르침과 지도력으로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도록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본부 청년 회장단.

왼쪽으로부터 엘레인 캐넌 회장, 제2 보좌 노마 비 스미스 자매, 제1 보좌 앨런 비 다져 자매

아론 신권 소유자의 책임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약한 자가 되지 말고 강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 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간증할 때 어두운 세상에 횡불을 높이 쳐들게 되는 것입니다.”

스캣 홀은 비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부친 가스는 브리감 영 대학교 풋볼 팀의 부감독이었습니다.

최근에 스캣은 어머니에게 흰 셔츠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알록달록한 셔츠를 두고 왜 흰 셔츠를 달라고 하니?”라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흰 셔츠를 입어야 해요.”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왜 그렇지?”하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스캣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흰 셔츠를 입지 않으면 선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때 스캣은 겨우 두 살이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전세계적으로 팽창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채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퍼지듯이 드디어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교성 65:2)고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가족이 휴가

동안에 유타주 세인트 조지를 여행하다가 세인트 조지 신전의 독특한 건축 양식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들은 건물 주위를 구경하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므로 부모는 방문자 센터에 들어가고 두 어린 자녀는 길을 건너 우리의 집회소 가까이 있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초등학교 모임으로 불러들이고 있던 교사가 두 어린 방문자를 보고 “애들아, 와서 초등학교에 참석하지 않겠니?”라고 말하여 그들은 초등학교에 참석했습니다.

방문자 센터를 둘러보고 나온 부모는 어린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찾아 헤매다가 그들이 예배당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을 찾느라고 혼났단다. 어디에 있었니?”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 있었어요.”

“초등학교라구? 도대체 초등학교가 무엇하는 곳이니?”

“초등학교는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는 곳이며 게다가 아빠가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는 곳이에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빨리 가자. 본래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다.”

아이들은 “아빠 우리는 갈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뭘, 갈 수 없다고?”

“우리는 연극을 해야 해요.”

“뭘 연극이라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주에 연극한대요. 연습하기 위해 그때까지 머물러야 해요.”

그 가족은 1주일 동안 세인트 조지에 머물렀습니다.

그 동안 어린이들은 연습을 했고 부모들은 복음을 배워 온 가족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진리, 곧 이미 준

비된 사람들의 마음에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은 세상에 미치는 가장 위대한 영향력입니다.

해군 사관학교 4학년 우등생인 케빈 스카트는 매리랜드 애나폴리스 미해군 사관학교에서 10명의 신입생 식탁을 관리하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4학년 생도는 신입생에게 전략뿐만 아니라 예절 및 기강을 훈련시키는 책임이 있습니다.

4학년인 스카트는 식사 동안에 각 생도들에게 그의 이름과 출생지를 말하도록 했습니다.

신입생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출신인 어베스트 와드 색스 생도입니다.”

4학년 스카트 생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넌 물론이니?”

“예, 그렇습니다.”

“너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고 술과 커피를 마시지 않는단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경도 갖고 있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읽어 보았니?”

“예, 그렇습니다.”

“그 책을 나에게 빌려 줄 수 있겠니?” 하고 스카트는 물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고도 친근한 관계가 발전하여 노스캘리포니아의 스카트 생도와 솔트레이크시티의 색스 생도 사이에는 책과 소책자가 오고 갔습니다.

애나폴리스를 졸업한 케인 스카트는 이제 플로리다 비행 훈련단 해군 소위로 근무하고 있으며 새로 침례받은 케인 스카트는 와드 선교 책임자로 일하고 있으며 와드 회원에게 선교 사업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회복에 관해 간증하고 있으며, 회원들에게 널리 메시지를 전하도록 열성을 다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와드 색스 생도는 이제 해군 사관학교 2학년이며 물론 가족을 돌보는 아들이며 그의 신권 책임을 존중하는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세계 지도를 보고—그 광대함과 수십억 인구를 생각하며—주님께서 젊은 아론 신권 소유자에게 내려 주신 책임에 대해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 개개인을 가족이나 특별한 환경에 두신 방법에 감탄하게 됩니다.

미국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진리와 정직과 순결과 높은 도덕 표준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수호하는 젊은이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경전을 공부할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감적인 가르침에 일치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지혜와 힘이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스러운 신권의 열쇠와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음을 이 세상이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의 젊은 친구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딤후 1:7)

주님은 우리의 손에 거룩한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모든 일을 행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영생에 이르도록 결봉하는 구원의 의식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요셉 스미스가 물론경을 번역하고 올리버 카우드리가 필기자로 받아 적고 있을 동안 그들은 주님께 침례에 관해서 여쭙어 보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늘로부터 한 사자가 빛과 구름에 싸여 내려와”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들을 성립했습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이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아론의 신권을 부여하노라.”(요셉 스미스 2 : 68-69)

요셉 스미스는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칩레를 베풀고 그 다음에 올리버 카우드리가 그에게 칩레를 베풀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 아론 신권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사자는 자기가 “칩레 요한이라 불리우는 그 요한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벨기세덱 신권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자며 이 벨기세덱 신권도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부여될 것이며…”(요셉 스미스 2 : 72)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회개를 의치고 칩레를 베풀고 성찬을 집행하고 감독을 돕고, 특별한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똑같은 거룩한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나이의 젊은이들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겨우 12세 때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은 주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으로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다윗은 간절한 기도와 두려움없는 마음으로 주머니에서 돌맹이를 꺼내어 물때에 넣고 던져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치게 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용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삼상 17장 참조)

요셉 스미스는 14세 때 야고보서에서 다음 성구를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 : 5)

요셉 스미스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이때의 이 글처럼

나의 마음속에 힘있게 임한 일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강한 힘이 나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속의 소망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요셉 스미스 2 : 12, 14-15)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소년 요셉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우리의 장래는 여러분에게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약한 자가 되지 말고 강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 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간증할 때 어두운 세상에 햇빛을 높이 쳐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랑과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목표로부터 무관심하게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소년과 테이트도 했으며, 그러한 관계는 고귀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이 자신의 전생애에 축복이 되도록 생활하십시오. 거룩한 신전에 가서 영원한 축복과 기쁨을 얻을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 생활하십시오. 마리아나를 사용하거나 맥주 또는 강한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도록 권하는 자들의 유혹과 압력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자신의 육신과 영에 얼마나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외설물과 추악한 서적과 영화와 친한 말쑥과 선정적인 음악을 생의 일부로 끌어들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타락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흥미와 흥분과 물질적인 소유물과 즉각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삶을 추

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압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며, 성숙의 과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임을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에게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덕성과 진리, 즉 “의무, 진리, 정의, 자비”를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런 것은 “결정의 표준이 되며……곧고 의로운 길은 가장 짧고 확실한 길”(윌터 리프먼, “위대함의 매혹”, 뉴욕 해럴드 트리뷴지, 1943년 9월 7일)이 됩니다.

선봉을 일으키고 있는 브리검 영 대학교 농구팀이 노틀담 대학을 이기고 난 후, 대니 에인저의 부친은 그의 아들이 더 훌륭한 조건을 갖게 하기 위해 프로 농구 계약을 깨뜨릴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부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니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명예와 위신이 돈보다 더 중요하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막 8:36)

여러분의 인격은 여러분만이 형성할 수 있으며 여러분 이외는 여러분의 인격을 해칠 자도 없습니다.

생이란 다른 사람과의 투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투쟁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보다 강하고 훌륭하고 참된 삶을 추구하고 어제 약속을 극복해 나가야 하며, 잘못을 고쳐 나가고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 하워드 더블류턴터 장로의 손자는 아버지와 함께 십일조 결산에 참여했습니다. 감독은 이 어린 소년이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려고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복음이 참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7세 소년은 14센트의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고 나서 복음이 참되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얻

는 것의 10분의 1을 요구하십니다. 만일 식료품상에서 자루에 식료품을 집어 넣는 일을 한다면 열번째 자루에 넣고 얻은 돈은 주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매주 또는 매월 십일조를 바치십시오. 결코 주님께 빚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풋볼이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학교 당국은 장비를 살 돈도 코우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값비싼 풋볼 구두를 제외하고(우리는 농구화를 사용했음) 값싼 풋볼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코우치로는 교사 가운데 전에 계임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코우치라고는 그 사람밖에 없었고 그 외의 교사는 미식 축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몇 가지 기술, 즉 태클을 하는 방법 또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투인 폴스팀과 첫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 팀은 전 아이다호주 선수권을 갖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가 준비 운동을 했습니다. 상대팀은 밴드도 있어서 응원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팀은 우리의 전교생 수보다 많았습니다.) 그러자 정문을 통해서 그 팀이 들어왔습니다. 11명의 주전 선수와 한 명의 후보 선수를 포함하여 12명인 우리 팀은 30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고 정문으로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게임은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적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차례 경기를 하고 나서는 공을 잡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을 찼고 그러면 그들이 곧 득점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공을 잡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공을 가까

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덜 다쳤습니다.

경기 종료 몇 분 전이 되자 그들은 다소 산만해졌습니다. 함부로 패스한 볼이 나와 함께 하이프 백을 맡고 있던 클리포드 리의 팔에 떨어졌습니다. 놀란 그는 직업 선수처럼 경기하는 상대팀의 덩치 큰 선수가 쳐들어오는 것을 볼 때까지는 어찌할 줄 모르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알았습니다. 그는 빨랐습니다. 그는 점수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달렸습니다. 클리포드는 터치다운을 해서 6점을 땀습니다. 점수판에 그 점수가 나타났습니다. 최종 점수는 10대 6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6점을 딸 자격도 없었지만 셔츠와 양말이 다 떨어

지고 타박상을 입은 결과로 그 6점을 따낸 것입니다.

그것은 교훈을 주는 경험이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팀으로서든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사가 다 그렇겠지만, 성공은 사전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부친은 감독이었는데 내가 신권을 받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내가 집사로 성임되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 전개되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영적으로 보다 높은 경지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너는 신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소한 교사 덕분에 우리가 신성한 일을 행할 축복과 권능을 받았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원회 역원으로서 정원회 회원을 책임지게 되었고 그들이 모두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노인들과 미망인을 위해 장작을 패는 일을 했으며, 교회의 석탄 저장통을 채웠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집회소를 청소하고 계단을 쓸고 교회 마당의 자갈을 정리하였으며, 성찬기와 성찬보가 깨끗한가 조사했으며, 우리의 조그마한 집회소에 참으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부였고 교회는 우리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권을 지녔습니다. 이해심 많은 교사들이 우리를 인도했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었고 젊은이로서의 역할을 넓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젊은 시절에 구세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도록 준비하게 해준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신권을 소유한 젊은이 여러분 모두를 필요로 하십니다. 나는 이 사업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위 방문자

복음 성약



매리는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많은 계명과 성약으로 구성된 복음 그 자체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위대한 성약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지난 10월 대회의 신권회에서 우리는 “신권에 따르는 맹세와 성약”에 관해 생각했습니다. (성도의 빛, 1981년 4월호, 70-73페이지 참조) 오늘 저녁 나는 모든 신권 소유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복음 성약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주께서는 율리암 이 블레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나의 복음의 충만함을 받아들였으니, 복이 있도다.”(교성 66:2) 주님은 복음을 모든 것을 포괄하는 위대한 성약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전세에서 가졌던 천국 회의에서 자신의 영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천국 회의에서 우리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내려가자,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

하여질 것이요,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첫째 지체를 지킨 자들과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리라. 또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아브라함서 3:24-26)

그 회의에서 3분지 1의 영은 복음 성약을 거부했습니다.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는 약속된 보상을 얻으려면 복음 성약을 받아들여 그것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성약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니, 헤아릴 수 없이 너를 축복하여 네 이름이 만국 백성 가운데서 크게 되게 하리라. 너는 네 자손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고 네 자손은 만국 백성에게 성역을 베푸는 직분과 신권을 지니리라.

“나는 네 이름을 통하여 저들을 축복하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네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네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아 일어서서 너를 저들의 조상으로 축복하리라.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와……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속이 복을 받으리니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을 얻으리라.”(아브라함서 2:9-11)

그 이후로 이 성약을 새롭게 맺은 이삭과 야곱이 낳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복음을 이해한 자들에 의하여 “성약의 자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주님과 맺은 최초의 복음 성약은 침례 서약입니다. 엘마는 아빈아다이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광야로 도망쳐 “물몬이라 하는 땅”에 피신해 있을 때 이 성약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가 “……이르기를, 보라 이곳에 물몬의 샘이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안

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애 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 통하고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하며, 죽을 때까지 어느 곳에서나 법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 영생을 얻기 원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너희가 마음으로 이같이 원할진대, 주가 너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너희가 주를 받들어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음에 꺼릴 바가 있겠는가?”(모사이사서 18 : 7-10)

이 경륜의 시기에 주님께서는 침례 성약이라는 말을 교리와 성약 20편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침례 양식에 관하여 계명으로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으니라. 곧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마음으로부터 침례를 받고자 원하며, 상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 진실로 자기의 죄를 모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참으로 끝까지 성결 결심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죄사함 얻는 것을 행위로써 나타내는 자에게는 모두 침례를 베풀어 교회에 받아 들여야 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이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교성 59 : 9)

주님 자신이 가르쳐 주신 성찬 기도문은 우리가 주님과 맺은 복음 성약을 늘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떡을 축복하는 방법은 늘 이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니, 이 떡을 먹는 사람마다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 저희들이 기쁘게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어 항상 그를 생각하여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당신 앞에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케 하소서. 아멘.”(교성 20 : 77)

주님의 계명의 대부분은 특별한 축복, 예를 들면 십일조를 약속하는 성약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인자가 올 때까지는 오늘이라 부르리니, 진실로 지금은 회생의 날이요,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날이다. 십일조를 바치는 자는 인자가 올 때에 붙여 타지 아니하리라.”(교성 64 : 23)

“만일 나의 백성이 이 율법(십일조)을 지켜 거룩하게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 이 율법으로써 내게 시온의 땅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땅은 너희에게 시온이 아니니라.”(교성 119 : 6)

아래의 말씀을 보면 십일조의 성약을 지키지 못하면 커다란 축복을 잃게 되며, 반면에 이것을 지키면 위대한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제1차로 권위회의 에드만 페르르, 에슬 광르와 마르키 페르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말 3:10-11)

특별한 축복을 하신 또 하나의 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보라. 진실로 주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말일에 모의를 꾀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존재할 악과 음모로 인하여 계시로써 이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경고하였고 또 미리 경고하노니,

“곧 너희 중에 포도주나 독한 음료를 마시는 자 있으면 보라 이는 좋지 아니하고 또 너희 아버지 보시기에도 합당치 아니하나니.....

“거듭 이르노니, 독한 음료는 위장을 위한 것이 아니요, 다만 몸을 씻기 위한 것이니라.

“또 담배는 몸이나 위장을 위한 것이 아니니, 사람에게 좋지 아니한 것이요, 다만 타박상이나 모든 병든 가족을 위한 약초니, 숙련과 판단력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느니라.

“또 뜨거운 음료는 몸이나 위장에 좋은 것이 아니니라.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짱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성 89:4-5, 7-9, 18-21)

여러분은 이 성구에 언급된 “멸망의 천사”가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주게 하기 위해 애급 전역에 걸쳐 사람과 짐승의 첫새끼를 모조리 죽였던 사실을 기억

하실 것입니다.

멸망의 천사는 현대 경전에도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 2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가라지틀 모아 태워 버리려고 세상을 추수하라는 큰 명령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교성 38:12)

주님과 맺은 복음 성약을 지키는 것은 신전에 들어가 거기서 해의 왕국의 결혼의 새롭고 영원한 성약을 포함하여 승영에 필수적인 의식과 성약을 맺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성약과 계명과 의무를 충실히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권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십이사도 영의회의 에즈라 베르트. 펜슨 회장(오른쪽)이 정원의 회원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와 인사를 나누는 장면

타인에게 봉사함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우리 모두 이 교회가 가족을 돕는 기구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가족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곳 솔트레이크 태버내클과 전세계의 수많은 집회소에 모여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계층에서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이 발휘하는 유능한 지도력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권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이 교회가 가족을 돕는 기구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가족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이 교회는 의로운 개인뿐만 아니라 의로운 가정을 만들고 키우는 것을 돕기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필요 사항에 늘 관심을 가지며 자기 아내와 가족을 위하여 그 귀한 시간의 일부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역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불필요하게 시간을 빼앗지 않도록 하십시오.

안식일에 너무 많은 모임을 갖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규 모임을 가질 때는 그 모임

이 가능한 한 영적이고 효과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모임을 서두르거나 재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임에서 어렵지 않게 그 모임의 신성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는 주로 안식일에 가족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하여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경전을 공부하고 친구와 친척과 병자와 외로운 사람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한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일지와 계보 사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현재 여러분 가운데 전통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는 축복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필요 사항이 있는 특별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또한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로부터 격려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특히 스테이크와 와드와 지부를 관리하시는 여러분, 1980년 10월의 신권회에서 여러분에게 권고했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교수법을 개선하고 강화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양을 먹이라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15-17 참조) 나는 수많은 우리 교회 회원들이 교회에 와서 분반 교실이나 모임에 계속 참석하였으나 별로 배운 것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너무 많지 않나 하고 가끔 걱정합니다. 특히 그들이 긴장, 유혹 또는 개인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기간에 이런 일이 가끔 생긴다면 특히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효과적인 교수법이야말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는 회원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정규적으로 열심히 활동 중인 사업을 행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참석하였을 때 그들이 어떤 것을 받는지 살피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나는 오늘 아침 말씀에서 최근에 우리가 카리브해의 여러 섬을 방문한 것과 그곳의 선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의 훌륭한 선교 사업은 우리가 그 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칠십인과 몇몇 회원들이 수행해 왔습니다.

산토도밍고에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인 산토도밍고에서 저녁 총회를 열었습니다. 거의 1,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 교회에 가입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약 한 시간이 지났을 때 푸에르토 플라타 지부에서 약 백 명 가량의 회원이 버스를 타고 집회소로 왔습니다. 그들은 버스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약 4시간이면 충분했을텐데 밤 열시가 넘어서 도착하여 집회소에는 불이 꺼지고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실망하여 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개종자로서, 일부는 몇 달 전에, 또 일부는 불과 몇 주일 내지 며칠 전에 개종했습니다.

나와 킴 자매는 길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이 신상심 깊은 자들이 처한 곤경을 알고는 호텔 방문을 두드려 우리를 깨웠습니다. 그는 우리를 깨운 것을 사과했으나 내가 그들이 늦게 도착한 것을 알고 싶어할 것이며,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만원 버스를 타고 먼길을 시달리며 달려온 백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그런 정도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버스가 고장이 나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킴

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기관 고장으로 실망만 맛보게 된 회원들을 만나러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들어설 때까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한 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위안을 받고 만족한 것 같았으며, 다시 버스를 타고 집을 향하여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직장과 학교로 가기 위하여 아침까지는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 선량한 사람들은 잠깐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몹시 고맙게 여기는 것 같았으므로 나는 그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화평과 만족감을 갖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름이며 특권입니다. 타인에게 필요한 것을 위하여 봉사할 때 다음과 같은 구세주의 말씀을 명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형제 여러분, 지금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하여 충고해도 좋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에게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내도록 권고할 때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에게 재정적인 요청을 할 때 따르는 부당한 압박에 대해 종종 보고를 받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요즈음 같이 인플레이와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대에 도처에서 우리 성도들은 곤경에 처해 있으며 모든 면에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원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대관장단에서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공문을 작성하여

어제 발송하였습니다. 그 공문에서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내는 것 이외에 교회 회원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하여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공문과 함께 와드, 스테이크, 선교부 지도자들이 받은 권고와 지시에 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십이사도의 지역 대표에게 이 일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개인이나, 가족이나, 와드 및 스테이크가 수입 한도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배웁시다. 이 원리에는 힘과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궁핍하게 지내던 시기에 비하면 지금은 부유하다고 말했습

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또한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하지만 우리는 꼭 필요한 것, 즉 우리 가족의 복지와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에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모든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의의 대업과 구세주의 대업을 위한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며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화평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필수인 제일 정원회의 폴 에이치 먼 장로

외로운 자들의 긴 대열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오 늘 나는 설교를 하거나 공식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여기에 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는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케이 대관장님은 “마음의 꽃잎”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내 영혼의 창문을 열어 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야고보의 서한은 오랫동안 애독해 온 책입니다. 나는 야고보의 간결한 메시지를 가슴을 뜨겁게 해주며 생동감이 넘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유명한 성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 그러나 우리 중에 그가 정결에 대하여 정의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신앙)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야고보서 1:27)

과부라는 말은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심장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주의해 보라고 경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장황하게

기도하여 의로운 척하나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38, 40 참조)

니파이인들은 직접 다음과 같이 경고받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이르러 심판할 때에 ……과부……를 억제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를 세우리라.”(니삼 24:5)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장고는 교회 회원의 헌물로 유지되나니, 과부와 고아는 이곳에서 지급을 받으며 가난한 자도 그러하니라.”(교리와 성약 83:6)

당시에 이런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구세주께서는 항상 모범을 통하여 과부를 돌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외아들을 잃고 애통하는 나인에 사는 과부에게 몸소 가서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고 슬픔에 빠져 있는 과부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굶어 죽게 된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도 임하셨습니다. 그는 식량을 주고 신앙을 가르칠 권세를 지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옛날, 먼 곳에서 있었던 일이야.” 나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의 집 근처에 사르밧이라는 도시가 있습니까? 나인이라는 마을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도시를 컬럼버스, 콜빌, 디트로이트, 덴버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갖고 있든, 어떤 도시에나 반려자를 잃고 때로는 자녀까지 잃은 과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 사항은 똑같습니다. 고통은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대개 과부가 사는 집은 크지도 않고 우아하지도 않습니다. 대개 그 크기는 작고 모양은 초라하며 그들의 방은 층계의 맨 꼭대기나 복도 구석에 있는 단칸방일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나와 여러분을 그런 집으로 파송하십니다. 음식, 의복, 심지어는 거쳐까지도 실제로 부족한 경우가 있을 것일

니다. 그들을 돌보라는 특별한 메시지는 언제나 주어지고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사람을 돌보며 우는 사람과 지친 사람을 위로하라. 네가 가는 곳마다 친절한 행위를 뿌려 오늘 이 세상을 더 밝게 하라.

특별히 곤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날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문을 펴서 사망 기사를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인생의 드라마가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닥칩니다. 노인들이 비틀거리는 발걸음에서 죽음을 느낍니다. 중년도 채 안된 사람에게 죽음이 닥친 이야기도 들립니다. 때로는 죽음이 어린이들의 웃음을 잠잠하게도 합니다.

장례식 꽃이 시들고 나면 친구들의 호의도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기도와 말씀의 내용도 차츰 잊혀집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내가 일컫는 바 “외로운 자들의 긴 대열”에 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의 웃음소리와 심내 청소년의 왁자지껄한 소리와 사별한 반려자의 부드럽고 사랑에 찬 보호가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는 더 크게 들리고 시간은 더 느리게 가며, 네 벽은 감옥같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이 다시 메아리치는 것을 듣기 바랍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 : 40)

우리는 궁핍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봉사하려고 결심하는 동시에 이 인생의 교환을 배우는 데 우리 자녀를 포함시킬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나는 소년 시절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일요일 저녁 식사를 기다리던 것도 그런 추억의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고기굽는 냄새가 짙은 방에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어 식탁에 앉아서 초조하게 기다릴 때 어머니가 “토미야, 식사하기 전에 이것을 빨리 볶 할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오너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는 왜 우리가 먼저 먹고 나서 그 음식을 갖다 드리면 안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의문을 이야기해 본 적은 없었으며 볶 할아버지 백으로 달려가서는 그가 나오시는 것을 안타깝게 기다리곤 했습니다. 잘 걸지도 못하는 그는 한참 후에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그 음식 접시를 건네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는 지난 일요일에 드린 접시를 건네 주고 수고한 대가로 동전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야단쳐요.” 그러면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넌 참 훌륭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구나. 고맙다고 말씀드려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한 번도 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감사하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나도 심부름을 다녀온 후에는 일요일 저녁 식사가 더 맛있게 느껴졌던 것이 생각납니다.

볶 할아버지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는 살던 집이 철거당하게 되었을 때 80세가 넘었고 혼자 사셨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오래된 현판 앞에 앉아 있을 때 그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자기가 처한 곤경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애처로운 음성으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콘디씨,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나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고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오래된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지갑은 내가 할아버지에게 줄래하면 파자를 사먹으라고 동전을 꺼내주시곤 하던 지갑이었습다. 할아버지는 거기에서 열쇠를 꺼내서 볶 할아버지에게 건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친절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쪽에 있는 내 소유의 집 열쇠입니다. 가지십시오. 물건을 그쪽으로 옮기십시오. 원하는 대로 머무십시오. 집세는 없으며 아무도 다시 당신을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봄 할아버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뺨을 타고 긴 흰 수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날 할아버지는 나에게 큰 감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주신 이름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때 나는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 교훈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탄절이 되면 내가 감독으로 일하던 와드의 과부와 홀아비를 방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시에는 87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단 9명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방문할 때 분명히 성탄절의 영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미리 와서 함께 한두곳을 방문합니다. 웨스트민스터에는 네 과부가 사는 양로원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몇 시간이고 창문가에 앉아서 친구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환영을 받습니다. 선물도 주며 그들을 축복해 주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나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나는 그곳을 떠날 때마다 거의 100세가 다된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할머니는 눈이 멀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님, 감독님이 저의 장례식에서 말씀하고 테니슨의 시 ‘사주를 건너며’를 낭송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형제님이 읽어 주시는 것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다음과 같이 읊습니다.

해 떨어진 하늘엔 저녁별,
그리고 날 부르는 맑은 소리 하나

내가 바다에 배 띄우는 날
사주여, 구슬피 울지 말지어다.

이 목숨이 바다로 돌아가는 날……

황혼 속에 저녁 종소리,
그러면 어둠이 깔린다.
내가 배를 탈 때엔
이별의 슬픔 없iera.

시간과 공간의 이승으로부터 나를
머ल्ली 그 물결이 실어간때도
나 사주를 건너서면
나의 길잡이를 마주 대하리니.

(세계의 명시를 찾아서, 34페이지에서 인용, 한림 출판사)

그러면 눈물을 흘린 뒤 다시 미소를 띄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내 장례식에서는 그것보다 좀더 잘해 주세요.” 나중에 나는 그 부탁대로 해드렸습니다.

퍼스트 사우스에 있는 또 다른 양로원에서 내가 몇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프로 축구 시합하는 도중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거기에서는 두 과부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 시합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편이 이기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합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벗은 되어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그 두 천사 사이에 앉아서 그 축구 시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재미있는 시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나는 모임을 하나 빠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추억을 얻었습니다.

이제 레드우드로드로 급히 가봅시다. 여기에는 과부가 많이 살고 있는 훨씬 큰 양로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불이 환하게 켜진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 방문해야 하는 한 사람은 혼자 자기 침실에 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에 뇌일혈로 쓰러진 이후로 한 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듣기는 하는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나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알아들었다는 표시도 없고 말 한 마디도 없습니다. 사실 어떤 시중드는 사람이 이 환자가 몇 년간 한 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느냐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녀와 일방통행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쁨을 얻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대화를 나눈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의 사랑하는 스펜서 더블류 킵 대관장님이 궁핍한 자가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을 때 통계 숫자는 묻지 않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먹을 것은 충분히 있습니까? 미망인들은 잘 보호받고 있습니까?” 그는 염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조지 엘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이 관리할 때 우리 와드에 어떤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성한 세 딸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병자였습니다. 그들은 체력은 컸으나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고귀한 여인은 자기 딸들을 목욕시켜 주고 먹여 주고 입혀 주고 돌보아야 하는 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별로 없었습니다. 외부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든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감독님은 그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기 위하여 교회 본부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 집은 아주 작아서 아주 싼 값에 내놓았으나 그 신청은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감독은 매우 상심하여 그 빌딩 문앞을 나서다가 조지 엘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눈 뒤에 스미스 대관장님이 “무슨일로 여기에 오셨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감독이 설명하는 것을 주

의깊게 들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잠시만 있으라고 하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미소를 띄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수표가 형제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집을 사십시오.”

“그러나 신청했다가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대관장님은 다시 미소를 띄며 “방금 다시 검토하여 승인이 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집을 샀습니다. 그 불쌍한 미망인은 그들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거기에 살면서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도 하늘 나라의 상을 받으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과부와 홀아비와 외로운 사람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충고하였습니다. “반지와 보석은 선물인 아니고 선물의 대용품이다. 유일한 참된 선물은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다.”(랄프 왈도 에머슨의 “선물” 참조)

우리는 절정의 시기에 하늘에 특별한 밝은 별이 비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가서 아기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현명한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특별한 밝은 별을 봅니다. 그 별은 여러분과 나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때 피압박자의 짐이 덜어질 것이며 굶주린 자의 위침이 잠잠해질 것이며 외로운 사람들이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그들과 나의 영혼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정말로 귀를 기울인다면 한 음성이 우리를 다음과 같이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태복음 25:21)

우리도 그 특별한 별을 보고 이와 같은 칭찬을 듣게 되도록 결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그는 그곳에 계십니다



앤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며, 그가 우리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할 수 있도록 겸손히 간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서 이 훌륭한 음악과 훌륭하신 말씀을 듣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다시 건강을 얻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나는 신앙개조 제 1조와 제 3조에 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나는 이 신앙개조 제 1조에 대하여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이분들이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 생애를 통하여 어떻게 나를 도

우셨는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여성이셨던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 지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한 영의 자녀를 세상에 태어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협력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나는 어머니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감사드릴 것을 확실히 압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서로 다른 수많은 상황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기도를 배울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신의 영을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내가 8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 침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나를 아시며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식사 때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밤에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드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영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식사 때나, 모임의 개최 또는 폐회할 때나, 침례나 확인할 때나, 성찬식에서 빵과 물을 축복할 때, 실제로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가 거기 계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감명을 준 기도는 요셉 스미스가 숲 속으로 들어가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

결같으니”(야고보서 1:6)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서서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드린 것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 교회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드리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나는 밖에 계시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분에게 말

씀드리고 있는 것이며, 그는 우리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할 수 있도록 겸손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 모두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귀기울이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대관장단. 제 1 보라 엘 엘돈 테너 부대관장, 스벤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제 2 보라 매리온 지 린니 부대관장

인생—위대한 시험

장소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우리는 즉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브라함서 3 : 25) 시험받고 경험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읍니다.”

킴 볼 대관장님, 나는 전세계에 퍼져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킴볼 대관장님과 태너 부대관장님과 톨니 부대관장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킴볼 대관장님의 생애에서 기적을 행하셔서 킴볼 대관장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립하는 위대한 사업을 수행할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훌륭한 시대—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으나 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 도덕성의 타락, 분쟁, 다툼, 박해 등에서 악의 권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는 공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 도처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널리 퍼져 있는 의문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이 질문에 대답해 줍니다. 주님은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계명

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4 : 7)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영의 존재, 즉 하나님 아버지 영의 자녀로서 존재하였다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 영이 살과 뼈의 육신을 받고 경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아브라함서 3 : 25) 시험받고 경험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영원한 진보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진보하였고 이 생과 영원한 세상을 통하여 발전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은사와 재능을 받았으며 공부와 기도와 노력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함으로써 이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공부, 특히 경전 공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 : 118) 영원한 진보에는 지속적인 공부가 포함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교리와 성약 93 : 36)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리라.

“만일 어느 사람이 근면하고 순종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보다 한층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었으면 장차 오는 세상에서 그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교리와 성약 130 : 18—19)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경전]에 있는 원리와 영감받은 권고를 읽고 이해하여 적용합시다. 그렇게 하면 개인적인 계시나 영감

이 우리 생활에 필요할 때 우리는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그런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엘사인, 1975년 9월호, 4페이지)

말일의 경전에서 풍부한 현대의 계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구에서는 오늘날의 시련을 감당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경전을 연구하여 얻은 지식은 인생의 모든 활동 분야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며 하나님을 알고 그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담당하는 역할에 관련하여 구세주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누가복음 21:36)고 명하시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누가복음 11: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언자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고 사람끼리 마주 서서 이야기하듯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의 첫번째 원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성도의 빛, 1972년 4월호, 17-18페이지 참조)

브리감 영은 사실적인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여 기꺼이 주님을 돌지 않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도록 간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종교의 한 가지 특성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나머지를 해주실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존에이 윌소, 솔트레이크시티: 테저렛 출판사, 1941년, 43페이지)

“주님, 부디 제가 제 자신을 돕게 해주십시오.” 나는 더 큰 개인적인 권세를 간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개종자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회원이 되기 전에 자주 하지는 않

았으나 가끔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남편과 내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다. 그러나 이 교회가 바로 해답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권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기도는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제 일에 관한 위대하고 영원한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구세주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에 우리가 일해야 하는 것에 관하여 훌륭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두 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는 각 사람에게 그의 능력에 따라 주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이용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 돈을 이용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하자고 하였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늘린 종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마태복음 25:23)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숨겨 놓고 늘리지 않았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며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일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철학입니까!

현재의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제정할 때 대관장단에서는 일차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게으름으로 인해 오

는 불행이 없었고, 실업 수당에 의존해서 생기는 악을 퇴치하며, 독립심과 근면과 겸약과 자기 존중의 정신을 성도들 가운데 다시 심어 줄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교회 회원은 일을 그들의 생활 원칙으로 재인식해야 합니다.”(히버 제이 그랜트, 복지 사업 지침서, 1페이지)

이것은 영원한 원리이며 그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교회는 조직할 때부터 회원들에게 절약할 것과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그 일이 주로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또는 양쪽이 결합된 것이든 그 일을 잘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일의 철학은 건전한 철학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구세주께서는 계속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원리와 비이기심과 희생의 원리를 강조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봉사와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산의 희생에 포함되는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모사이야서 2:17)이라는 베냐민왕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재능은 사용해야 발전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 원리는 구세주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 선교 사업, 예술, 자선 봉사 및 그 외의 수많은 분야에서 재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개종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사랑하는 한 가지 면은 계속해서 배우고 개발하고 성장하는 힘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접촉하면 복음 안에서 또한 인생의 다른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기 재능을 발전시키도록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모두 받아들여되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큰 축복으로 여기고, 열의를 가지고 재능을 함께 나누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부름받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대개 장애를 극복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장애를 통해서만이 배울 수밖에 없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역사상 가장 암담했던 시기는 1838년부터 1839년 사이의 겨울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강탈당하고 피살당하였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배반당했고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암담한 시기로부터 놀라운 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시련을 겪으면서도 교회를 인도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리버티 감옥에 있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위대한 계시를 주신 것도 바로 이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위안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아들이아, 평안한지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교리와 성약 121:7-8)

리버티 감옥의 경험은 참으로 그들에게는 연단하는 자의 불이 되었으며 또한 우리에게 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위대함을 더 잘 이해하고 인식하게 해줍니다.

리버티 감옥에서 있었던 일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분명히 다음의 두 가지 진리가 인상에 남습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우

리 지도자와 교회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둘째,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곤경을 이겨내야 하는가에 관계없이 끝까지 참아야 할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으면서 주님의 위안을 간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예언자 요셉 스미스처럼 “나의 아들이아, 평안할지어다.”(교성 121:7)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불리며 그의 메시지는 개인과 세상에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 생활을 감사히 여기고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평강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마음과 가정에 이 평화를 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된 복음은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라는 의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여기에 있으며,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회복된 복음 계획을 통하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리조나에 사는 어떤 개종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인생을 가장 변화시킨 것은 내가 인생의 목적과 전에는 한번도 느끼지 못하였던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시애틀에서 온 어떤 개종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당신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해주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해주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는 목적과 의미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시애틀의 개종자와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빚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

시며 우리의 구속주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요셉 스미스가 충분한 복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을 회복시키고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주님이 친히 쓰시는 도우셨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오늘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관리하는 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행하신다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영원한 복음 원리에 일치시키고 화평과 행복과 성장을 얻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서로 사랑하라



제임즈 엠 페러모어 장로
칠십일 제일 정원회

“우리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커지며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및 친구 여러분, 나는 지역의 아름다운 합창을 들을 때 그 단원들에게 나는 대회 기간중 태버나클 합창단에서 노래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들이 오해하지 않기 바라며, 나는 합창단석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밑에 앉아서 그들이 매우 아름답게 노래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들과 함께 노래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우 좋아하는 노래의 한 구절은 “주가 사랑하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대목입니다. 오늘 잠시 동안 이 내용, 즉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리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여러분의 아들이 몇 주 전에 나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침 다리를 저는 조그마한 가난한 소년을 본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소년은 누더기 옷에 다 떨어진 신을 신고 번잡한 길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돌아다니며 돈을 구걸하였으나 한푼도 얻

지 못하였습니다. 멀리서 그 소년을 보고 있던 어떤 남자가 마침내 그에게 다가와서 어린 소년을 들어 올리더니 힘껏 껴안아 주고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후 사정을 따지지도 않고 그 아이를 메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 광경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지상 생활에서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인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 새로운 차원의 계명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그 깊은 영향력에 놀라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문자 그대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실재하시며 자녀에 대한 그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진리와 지혜와 권세와 선하심과 사랑을 자신이 창조하여 지상으로 보내신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십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발전하도록 도와 주시고 그를 아버지로서, 용서하는 분으로서, 친구로서, 조력자로서, 율법을 주신 분으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그의 사랑과 잠재력과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그분처럼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분으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이 사랑과 그의 자녀 한 사람이나 온 세상에 미치는 이 사랑의 영향은 기적적인 것이며 남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영원히 온화하게 우리를 관찰하시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기도와 그의 영과 예언자를 통하여 손길을 펼치십니다. 또한 그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들으려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도와 교훈을 주기 위한 그의 계명을 통하여 손길을 펼치십니다.

이것은 시편 작가가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 하심이 충만하도다”(시편 33 : 5)라고 말한 대로입니다.

그는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영원한 진리인 계명, 즉 우리가 거기에 의지하여 살 영원한 표준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 계명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거룩하고 성스러운 방법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방법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이 계명을 변경시켰으나 우리는 온 세상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계명은 필수적이고 영원한 진리이며, 인간이 변경시키면 효력을 잃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이 율법—계명—표준—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가장 고귀하게 표현하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과 그의 신성의 씨를 심기 위한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안전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인식하고 기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한복음 3 : 16) 이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무수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대속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의 계획과 그의 계명이 실제로 내적인 화평을 가져다 주고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인간을 들어 올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지명을 받고 수많은 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며 그의 계명을 지키면 거기에 따르는 결과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에게 오는 새로운 생활, 즉 영적인 깨우침이 따르며 그

것이 참되다는 자신의 증거가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공포에 의하여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 사이에 발전하는 사랑의 유대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활하라는 훈계를 듣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영혼 깊은 곳에서 장벽을 없애고 마음을 열고 진리와 선을 받아들여 변화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커지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자신을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연구와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수많은 자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요한복음 15 : 10)고 하신 그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구세주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 시작하며 똑같은 힘과 권세를 받고 똑같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 : 1-6 참조)

그러면 진실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받고 변화되어 진실로 깊은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고 자기 이웃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대하게 됩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지명을 받고 오레곤으로 가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스테이크 대회가 끝나고 한 어린 아이를 축복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 부부가 방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날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불구의 몸으로 내버려진 어린이를 6, 7명이나 양자로 맞아들였는데 그들은 그 어린이들을 특별한 사랑과 여생을 다 바쳐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서 겸손해졌으며, 그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방에 꽂혔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갖게 되면 모든 인간에게 이

는 결점을 너그럽게 보아 넘기게 되며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 (교성 38 : 24) 되며 할 수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나 형제를 돕고 싶어지며 이제 더 이상 반목, 시기, 편협한 생각, 자만심, 허영심 등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 뜻에 일치될 따름입니다. 경전 말씀은 훌륭하고 분명합니다.

“은 땅에 불화가 일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나파이사서 1 : 15절, 로마서 5 : 5)

그러면 이 말씀은 이런 것을 소유하는 자는 완전해진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히 극복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해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로나이는 이런 점을 깊이 통찰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하여 나를 비난하지 말며 나의 부친이나……저들의 부족함으로 비난하지 말라……다만 너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어 너희로 우리보다 더욱 현명하게 되도록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물몬서 9 : 31)

우리는 바로 이 은사, 즉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얻음으로써 분쟁과 불화와 속단을 물아낼 수 있습니다. 이 은사는 인간의 내부에 있는 힘과 선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 즉 자기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가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이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누구든지 겸손하며 사랑이 가득한……자 아니면 이 사역을 도울 수 없느니라.”(교성 12 : 8)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절름발이 소년을 안아 올린 사랑의 경우처럼 비난이나 머뭇거림이 없이 단지 사랑과 도움이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서, 그의 교회에서, 회

원 사이에서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그의 모범을 보고 따르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의하여 나타납니다.

모든 인간이 축복받을 수 있게 이 지상에 그의 왕국과 그의 교회와 그의 사랑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의하여 나타납니다.

이것은 또한 서로 지극히 사랑하여서 자주 서로 팔을 잡고 서로 사랑을 표시하는 가족에 의하여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예언자이신 킴볼 대관장님과 사도를 주셔서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자녀를 인도하게 하신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의하여 나타납니다.

이런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가족에 의하여 나타나며, 그들은 매일같이 사랑스러운 것, 즉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지고한 표준을 가르치기 위하



매의 방문자와 이해를 나누기 위해 먼저 신 중심인 개인적인의 에프 엘레오 루시 랑도

여 손길을 땀치는 사람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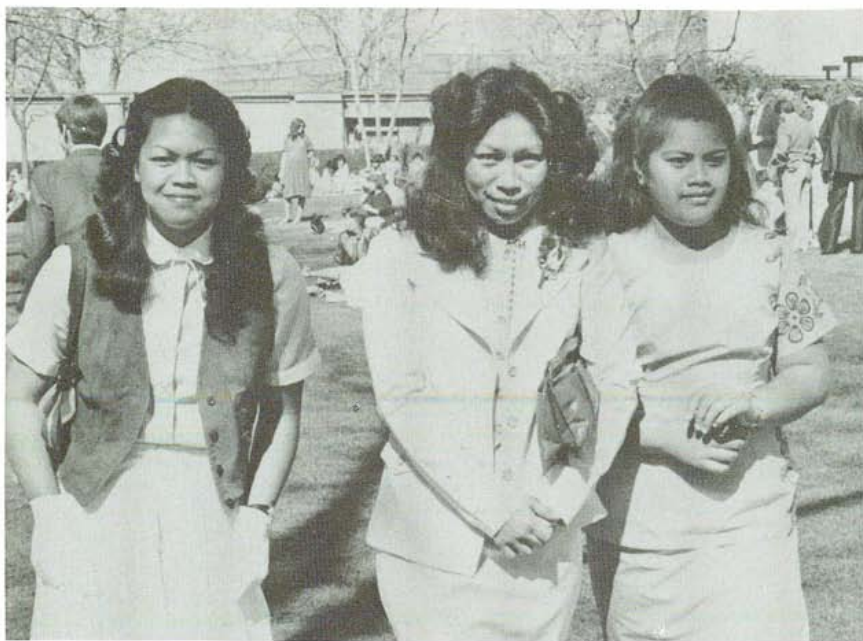
일전에 나는 독일에서 성찬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나는 눈물이 넘쳐 흘렀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82명의 어린이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나는 지상에 교회가 다시 세워진 것과 내가 초등학교에 있었고, 내 자녀들도 그랬으며, 그들이 부르는 노래와 사랑을 배웠던 것에 대하여 감사드렸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그 노래를 수천 번씩이나 불렀으며 그 노래에 담겨 있는 사랑과 메시지에 감사드렸습니다. 바로 그날 그 성찬식에는 첫 아이를 낳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개종자가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어린이들과 교회와 초등학교와 거기에 임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우리 아기를 빨리 나아가서 그 애가 초등학교에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싶어

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것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의 교회, 즉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주신 수많은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하신 변하지 않은 표준이 있는 아름다운 처소이며 피난처가 있습니다.

진실로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영원한 권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속에 내재해 있는 이 정신과 이 화평과 하나님의 이 사랑에 참여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회를 방문한 세 젊은 여성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손길을 내밉니다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장로
철심인 제일 정원회

“우리의 사랑은 단지 말과 선행에 대한 꿈
으로 끝날 때가 많지만 참된 사랑은 비이
기적인 행위로 표현됩니다.”

오늘 아침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에 대한 몇 가지 느낌과 그것이 우리들

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세주의 부활에 대한 기
사를 다시 읽으면서 나는 구세주가 부활하
셔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다른 사람과 우리
의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
다.

여러분은 그 주의 첫날 아침 일찍 마리아
가 주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무덤으로 달려
간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녀는 무덤을
봉해 놓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을 듣고 확인하려고 급히 무덤
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무덤이 빈 것을 보
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구부러 무덤 속을 들여다” 보
았습니다. 그때 무덤 안에 흰옷 입은 두 천
사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여자여 어
찌하여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
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



철심인 제일 정원회의 여러 대언도어 터들 장로가 신임 총관리 역임한 안원 약프리카 장로를 정원으로 맞아들이는 모습



비서인 디 아저 해이코크 형제와 함께 있는 스킨서 리블류 길블 대관장

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보았으나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구세주께서도 왜 우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 가리이다.”(요한복음 20:11-15)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곧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에 대한 큰 사랑과 그가 살아 계신 것을 본 기쁨 때문에 주님을 잡으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주님은 사랑과 관심과 확신을 갖고 영원한 의미가 담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한복음 20:17)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당시에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였겠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은 말로 똑같은 교리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뻐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사도행전 17:28-29)

나는 기도와 연구와 복음대로 사는 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대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영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실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라는 문구에 위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종과 신조와 국적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내부에 신성을 갖



몽민과 여야지를 나누는 진신인 시인 쉐네티의 하브만 배리 이석 광로

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진실로 이 위대한 진리의 영향을 인식한다면 서로서로 더 잘 이해하고 애정과 사랑을 보이게 될 것이며 전쟁과 범죄와 모든 잔악한 행동은 없어질 것입니다.

참된 형제애야말로 우리의 행복과 세계 평화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며 비이기적으로 자신의 은사와 재능과 자원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율법사인 바리새인이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었을 때 주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신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 : 36—40)

또한 그가 지상에서의 삶을 마칠 무렵에 다음과 같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 : 34—35)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애정을 표시하지 않는 자는 사랑이 없는게야”(베로오나의 두 신사, 제 1막 제 2장, 31행)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시작하여 우리 와드 회원들과 비활동 회원과 이웃의 비회원과 장막 저편으로 가신 분들에게까지 사랑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 및 회원 여러분, 복음의 빛이 필요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정의

손길을 펴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그들을 사랑하기를 간청합니다. 나는 우리의 사랑은 단지 말과 선행에 대한 꿈으로 끝날 때가 많지만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깝게 해주는 비이기적이고 친절할 행위로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면서 보인 큰 모범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날 때부터 다리를 저는 사람이 미문이라는 문앞에 앉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오자 그는 구걸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거지는 그들에게서 무언가 받을 것으로 생각하며 즉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끝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는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는 이웃을 돕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말만으로 끝내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경전에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찬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 : 1—9 참조)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내미는 손길과 사람을 승화시키는 영향력입니다.

어떤 훌륭한 친구는 사랑의 깊은 뜻을 배우게 된 경위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계명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나 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비회원과 약혼하였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고 실망하였습니다. 다음날 어머니는 친구에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딸의 약혼자가 훌륭한 젊은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마음이 상하고 배반당했다는 느낌이 들어 화가 났으며, 자기 딸

을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으며, 딸을 보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듣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인도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어머니가 자기 딸이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할 때에만 딸을 사랑하니? 그것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조건부의 사랑이야. 우리 자녀가 착할 때에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야. 그렇지만 그들이 실수를 범할 때는 어머니의 사랑이 더 필요해.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해. 그렇다고 그 과실을 용인하거나 승인한다는 뜻은 아니고 정죄하지 않고 도우며,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심판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뜻이야. 우리는 그들을 헐뜯는 대신에 격려해 주어야 하며, 그들을 버리지 말고 인도해 주어야 해. 우리는 그들이 가장 사랑스럽지 못할 때 사랑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안하면 좋은 어머니가 아니야.”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친구에게 어떻게 감사하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충고가 필요할 때 그를 위하여 그렇게 해줘.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하여 영원히 감사할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딸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그런 순수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배우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같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한일서 4:7-8)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계속해서 사랑을 보이셨으며,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아셨습니다.

그는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광스럽고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셨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베시야라는 주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요한복음 4:29)고 증거하기 위하여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버림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경멸당하는 어떤 나병 환자가 주님을 경배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디”라고 말하였습니다. 경전에서 이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마태복음 8:2-3)

예수님은 가장 극적인 기적 가운데 한 사건을 통하여 개인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중에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셨으며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요한복음 11:33-35)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명의 신성함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한복음 11:25)

구세주께서는 나파이인들을 방문하셨을 때 중요한 훈계를 하셨습니다. “이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27)

나는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다는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가 자신과 우리가 봉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는 방법으로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우리의 예언자가 주신 목표를 받아들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마침내 우리가 대대적으로 전진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 교회가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 있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백성으로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근본적인 결정은 교회의 회원이 각자 내려야 합니다. 교회가 내딛어야 하는 큰 걸음의 폭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디디는 큰 걸음의 폭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지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제 다시 위를 향해 계속 여행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족이나 와

드나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싫어하지 않아야 합니다.”(성도의 빛, 1979년 10월호, 124페이지)

우리 가족과 비활동 회원이나 비회원과 떨어져 사는 친족이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갖고 손길을 뻗치도록 오늘 결심합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생활하는 것을 배우면 개인으로서 교회로서 인류의 형제로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오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제럴드 더 오펀리가 지휘하는

테버내를 합창단 남성 단원, 로버트 칸디익 오르간 앞에 앉아 있다.

자립에 따르는 축복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만 바르게 하면 다른 것은 모두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아내는 선장의 딸이었는데 장인은 바다에서 배를 잃었습니다. 생존자들은 구명 보트를 타고 몇 시간씩이나 떠다니면서 모두 함께 “고해같은 인생길”(찬송가, 14장)을 불렀습니다.

나는 이 합창단과 총관리 역원 여러분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의 구세주인 우리 구속주에 대하여 간증합니다. 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간증에 감사하며 부활절이 가까와짐에 따라 총관리 역원 여러분과 함께 그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일성도로서 우리의 큰 책임은 그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겪는 동안에 방금 합창단이 노래한 것처럼 “고해같은 인생길 주여 인도하십시오”라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성공적으로 인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실 성령이 항상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것도 아니며, 석유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 계명은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 관련됩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로 화평과 행복을 누리려고 싶어한다면 이런 계명을 지킬 만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이런 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양자 택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둘 중의 하나가 우리 생활을 지배할 것이므로 이 엄숙한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고 직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자신의 상황을 영적인 면과 세상적인 면에서 개선하는데 우리의 예지와 독창성을 사용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돕고 싶어하십니다. 진실로 인간은 기쁨을 얻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니파이이서 2 : 25 참조)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장래에 대비하여 잘 계획하여야 하며, 전적으로 현재를 위하여서만 살거나, 지금의 상태가 끝없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근면하고 검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취해야 하며, 특히 영적인 기초 위에 자신의 생활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 그의 방법을 먼저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당하게 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대관장단



영 옌운 대니 부대관장
책 1 보좌



스환서 더 불록 림불 대관장



메리은 거 동나 부대관장
책 2 보좌

십이사도 평의회



에스산 세프드 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러차스



하워드 더 불록 헌비



고든 비 핑클리



토머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아민 세이 앤더슨



브루스 알 영윙커



멜 롱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프랭클린 더 리처스 제이 포머스카인스 닐 에이 맥스웰



찰로스 이 맥시 앨리게 맥하트 이세



로버트 엘링슨



로버트 엘링슨



로버트 엘링슨



로버트 엘링슨



로버트 엘링슨



조셉 비 휘스런



진 상 욱



에이 디어도어 티를



폴 에이저 딘



하프만 란터 이세



토렌 시 딘



로버트 엘링슨



릭스 더 피네가 더블류 그랜트 맥거더 로버트 더 헤인즈 에드워드 하이 고바스



로버트 엘링슨



로버트 엘링슨



로버트 엘링슨



리처드 제 스크드



에프 앤서오 부쉬



요시히코 기부사



모닝드 이 포용앤 데릭 에이 커스미트



조지 피 리



존 에이치 그로머그



레이몽 디오거



본 케이 케더스토론



로버트 이 웨스



리 호머 더딘



세임즈 앨 패리모어



리처드 제 스크드



휴 더블류 피너크



에프 앤서오 부쉬



요시히코 기부사



모닝드 이 포용앤 데릭 에이 커스미트



조지 피 리



존 에이치 그로머그



레이몽 디오거



본 케이 케더스토론



로버트 이 웨스



리 호머 더딘



인웰 아르데아



에프 앤서오 부쉬



요시히코 기부사



모닝드 이 포용앤 데릭 에이 커스미트



조지 피 리



존 에이치 그로머그



레이몽 디오거



본 케이 케더스토론



로버트 이 웨스



리 호머 더딘



세임즈 앨 패리모어

관리감독단



에이치마크 피터슨 제1모과



윌리엄 브리튼 관리 감독



제이 라워드 윙야크 제2모과



앤드워드 제 스미스



에스 덤화스 임



스티어링 더블류 신



헨리 디 태일러



버나드 피 브룩필드



조셉 윌더는



제임스 에이 콜리모어



윌리엄 에이치 피켓 존 에이치 반덴버그



제임스 에이 콜리모어



윌리엄 에이치 피켓 존 에이치 반덴버그



제임스 에이 콜리모어



윌리엄 에이치 피켓 존 에이치 반덴버그



제임스 에이 콜리모어

를 섬기면 영적인 기초 위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요?

인생에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에 둘러싸여서 거기에 따르는 위험, 재앙, 자극, 설득, 유혹 등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면 안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영성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창단과 함께 “고해같은 인생길 주여 인도 하소서”라고 노래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도덕적 및 영적 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설정하신 표준을 배척하거나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암흑을 더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깨끗한 생활을 무섭게 공격하는 부도덕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에 굴복해야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고결해야 하며 자신을 깨끗이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순결을 가르쳐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외치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의 그릇을 지닌 너희여 깨끗하라.”(교리와 성약 38:42)

우리는 점점 늘어나는 술, 담배, 여러 가지 마약 등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충성하여 지혜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율법은 역사상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며 적절합니다. 어느 누구도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오늘날 맹위를 떨치는 약물 중독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도록 유혹합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더 나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고, 가장 나쁜 도적질의 하나인 다른 사람의 부인이나 남편을 도적질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 어떤 형태의 부정적도 멀리하고 우리 이웃이 갖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탐하는 유혹을 모두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개조 제13조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을 믿는다”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대답이 있습니까?

거짓말장이나 도둑이나 불순결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고 완전한 회개가 있는 다음에야 들어갈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부족한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다른 분야,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는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써서 빚 더미 속에 빠져들도록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할인 판매와 설득력있는 광고와 손쉬운 차용과 크레딧 카드의 남용 등을 조장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러한 유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우선 첫째로, 버는 것보다 많이 쓰지 않고, 주의 깊게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 안에서만 쓰도록 결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당한 채무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게 지불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부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습관화된 생활 방식을 제한해야 할 경우, 재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면 본래 우리가 갖고 있던 욕구를 기꺼이 희생하고 이런 불경기로 인

하여 겪게 될 상황에 적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도덕적인 면에 관한 주님의 계명은 대부분 지키지만 세사적인 것에 관한 주님의 계명을 등한시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닥칠지도 모르는 비상시에 대비하라는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생길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항상 다른 사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제적인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입니다.

장래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불경기와 곤경에 대비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지각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집 앞의 가로에는 밤나무가 죽어 있습니다. 봄이 되면 그 나무는 흰 꽃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초록색 밤송이 속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가을이 되면 땅에 밤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디서인지 다람쥐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보도에 앉아서 밤송이를 물어뜯고는 겨울용 식량을 저장하기 위하여 밤을 가지고 재빨리 달려갑니다.

그들은 현명한 작은 동물로서 매우 부지런합니다. 또한 길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들이 놀라지 않는 것을 보면 전혀 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들은 밤 한 톨이라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추운 겨울에 그 밤에다 생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자기가 쓸 밤을 줌을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의존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수확물을 주시지만 그들이 그것을 모아

서 가져 가야 합니다.

그들은 자립에 관하여 훌륭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자연의 피조물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도우실까요? 물론 그렇게 하십니다. 그가 “들의 백합화를……생각하여 보라”(마태복음 6:28) 및 “공중의 새를 보라……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마태복음 6:26)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 즉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립하고 근면하며 미리 계획하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환난의 시기에 대비하고 확실하게 값을 능력이 없는 부채를 피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하여 그가 우리 자신의 진지한 노력에 기꺼이 더해 주실 수 있게 헌신적으로 그분을 섬기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우리가 꼭 필요한 지출을 예상하여 현명하게 재정적인 부채를 줄일 것을 원하십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이 자신의 특별한 재정적인 상황을 해결하고, 반드시 첫번째 것이 첫번째로 오게 하기 위하여 우선 순위를 적으십시오. 그 계획을 따른다면 재정적인 속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물건이 우리의 욕망에 의한 것인지, 실제로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현명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지 프로그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감에 찬 계획입니다. 이것은 교회 회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각자가 자립하는 것을 배우며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조금씩 저축하고 비축하며 수입의 한도내에서 살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자기 자신을 부양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지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이 위대한 프로그램에서는 장식품과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 1년치를 저장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케이크나 애플파이를 먹을 때 사용하는 크림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케이크나 파이가 없어도 살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식품만 먹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지 창고는 위급한 경우에 처한 수많은 합당한 사람을 도와 줍니다. 창고는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언제나 합당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으며 기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창고는 자기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어떤 시련의 시기에도 대처할 수 있게 가능한 한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을 위한 창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감독의 창고는 매우 훌륭한 것이며, 본래의 취지대로 합당하고 충실한 수많은 성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고는 이 교회의 450만 성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급한 필요 사항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자원은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맙시다.

고대에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면 가물을 막고 풍성한 수확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가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면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십일조의 원리가 우리의 복지와 자

기 보존을 위한 주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주어졌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매년 저들이 얻은 모든 이익 중 십분지 일을 바치라. 이로써 나의 성신권을 위하여 저들이 지켜야 할 영구적인 율법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119:4)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십일조를 내는 것이 환난의 시기에 대비하여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일조는 환난의 시기에 대비하여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는 십일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일부에서는 십일조를 내는 것이 옳은 데도 나는 십일조를 낼 수 없다고 말합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큰 환란이 올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십일조를 바치는 자는 ……불에 타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64:23)

또 주님께서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나의 백성이 이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 이 율법으로써 내게 시온의 땅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나의 율례와 심판으로써 이를 지키 ……지 아니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땅은 너희에게 시온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119:6)

그러면 십일조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방패가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까지는 오늘이라 부르리니” 지금 곧 오려는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날이라.”(교리와 성약 64:23)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론에 남아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살려 두지 아니 하리라”(교리와 성약 64:24) 물론 이 말은 그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행위에 탐닉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십이사도 제일 명의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와 인사를 나누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그는 또 오늘날 우리가 처한 도덕적인 면과 영적인 면의 위기에 대해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이라 칭하는 동안에 일할지어다.”(교리와 성약 64 : 25)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섬기며 그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걷고 “주의 그릇을 지닌 너희여 깨끗하라.”(교리와 성약 38 : 42)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면에서든지 죄나 마약이나 빛에 속박되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 : 32) 그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모든 종류의 마약과 부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진리, 즉 그의 복음은 우리가 그를 따르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어야 합니까? 그의 집은

세상의 집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 : 28)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신앙이 약하지 않으면 환난의 시기에도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시험하실 수는 있으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진지한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곧도다 그 기초 주님의 성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놓인 터
그 말씀보다 귀한 말 또 있으랴.

예수 좃는 너희 예수 좃는 너희

안식처 버리고 어디로 가랴.

(찬송가, 16장)

이것이 바로 그의 약속입니다. 그의 말씀은 참됩니다. 기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누구든지 더하거나 제하여 버릴 수 없음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거룩한 기록에 있는 주님의 계시를 연구해 보면 어느 시대에나 끊임없는 계시가 예언자들과 교회를 인도해 주었다는 확증을 얻게 됩니다.”

최 근에 선교 지역에 있는 젊은 친구가 나에게 편지를 써서 성경의 마지막 구절과 그것이 물론경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끝 부분에 저자인 요한이 이 책에서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요한계시록 22: 18-19)

물론경을 부정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성구를 인용해 왔습니다. 아무것도 더하면 안되고 빼도 안됩니다. 그들은 물론

경은 성경 말씀에 더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경이 처음 출판될 때 이러한 주장이 대두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실로 단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깊게 읽어 보면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이 경고의 말씀은 성경 전체나 신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말씀, 즉 “이 예언서의 말씀”에만 국한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신약 중에서 아직 씌어지지 않은 책도 있었고 그때 이미 씌어져 있었던 것도 아직 한 권으로 편집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것을 입증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알고 있는 이 66권의 책을 모아서 편집한 때는 이 책의 끝에 놓이게 된 예언서에 요한이 기록하고도 긴 세월이 흐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 더하는 사람에게 선포한 무서운 재판은 성경 전체나 신약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만 국한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로 이 경고의 말씀에서는 “이 책의 예언”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책은 두 번 다 단수로 쓰였으며 따라서 흥정역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요한이 적은 계시의 책만을 가리킬 수 있을 따름입니다. 또한 아포칼립스(Apocalypse)—회람어로서 계시된이라는 뜻—라고 불리기도 하였었습니다. 이 책은 씌어질 때 다른 책과 연관이 없었으며 새로운 경전 또는 신약으로 알려진 편집된 책에 덧붙여진 것은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종교 토론이 있던 후의 일이므로 책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단수로 쓰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 자신이 계시록을 쓴 이후에 경전을 덧붙였다는 것에 유의하는 것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요한이 밧모섬에 있을 동안에 이 책을 썼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입니

다. 요한이 첫번째 서한을 쓴 것은 밤모습을 떠나고도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만 가지고도 계시가 끊어졌으며 인간은 경전에 더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사실은 요한이 계시록만을 이야기하였다는 증거를 덧붙여 줍니다.

구약전서에도 기록된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된다는 단호한 경고와 명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율법대로 살도록 훈계할 때 기록된 신명기에 있습니다. 토라는 말로 전해진 율법이며 그 율법을 신명기에 기록하기 전까지는 글로 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기록을 끝낸 다음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키라”(신명기 4:2)

나중에 모세는 바로 이 율법서에서 비슷한 말로 이 훈계를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신명기 12:32)

이 훈계는 일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시록의 끝에 있는 금지와 경고의 말씀이 물론 경이 경전에 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문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의문을 일으킵니다. 사실상 이 성구에는 계시록의 끝에 있는 성구와 똑같은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만일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과 똑같이 주장하고 해석한다면 모세의 기록 이후에는 아무런 경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생각은 구약전서의 대부분과 신약전서 전체를 없애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런 훈계를 주의깊게 읽어 보면, 인간은 주님의 계시를 변경시킬 수 없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해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줍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거나 뺄 수 없으며 그렇게 하시지 않으

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제한받는다고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시대나 그의 자녀를 인도하기 위하여 더 많은 계시를 주고 경전을 더할 권리와 권세를 갖고 계시리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룩한 기록에 있는 주님의 계시를 연구해 보면 어느 시대이나 끊임없는 계시가 예언자들과 교회를 인도해 주었다는 확증을 얻게 됩니다. 지속적인 계시가 없었다면 노아가 지구를 휩쓴 홍수에 대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란으로부터 약속된 땅 헤브론으로 인도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계시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한 계시가 선교 사업을 인도하여 솔로몬 신전을 다시 건립하게 하고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이방인의 관습이 침투하는 것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기 전에 남아 있는 열한 명의 사도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20)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는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배도할 때까지 계시로써 교회를 인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마지막 날에 생길 특별한 표적이 계시록을 쓴 사도에게 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요한계시록 14:6)

요한이 미래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한 천사가 잃어버린 복음을 다시 계시하리라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은 성경에 더 이상 계시가 더해질 수 없다는 주장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사자가 우리 시대에 나

타서 그릇된 가르침과 관습에 의하여 없어진 하늘의 권능을 가져다 주고 진리를 회복하였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고 오늘날 살아 있는 예언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의 모든 자녀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항상 그의 종들과 함께 하시며 전세계에서 그의 교회의 모든 일을 관리하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시가 선교 사업과 신전 건립과 신권 역원의 부름을 관리하며,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 승영에 이르지 못하게 할 사회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를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을 의모로 취하지 아니하며 모든 자로 하여금 그 날이 속히 임하는 줄 알게 하리는 자인 연고라. 지상에서 평화가

박달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 그 시각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때가 임박하였도다.

“그러나 주는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며 아이두미아 곧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리라.”(교리와 성약 1:35-36)

구세주께서는 오늘날 지속적인 계시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치하십니다. 나는 주님이 오늘날 그의 종들과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계시는 고대에만 주어졌다고 말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사 어느 시대에나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며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아멘. *



대회에 참석한 말인성도 군인 형제

도덕적 가치 기준과 보상



로이든 지 데릭 장로
칠십인 제일 정교회 회장단

“나는 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나의 친구들이 이 중요한 메시지, 즉 영원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 문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 미국 백성의 역사를 보면 문명은 도덕적인 기초 위에 세워지며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강하면 유복해지고, 도덕적으로 약해지면 스스로 고통당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자유가 도덕성보다 더 오래 가지 않으며, 자유는 아무 대가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백성들은 수없이 바뀌었으나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훌륭한 품행의 기본적인 원리는 영원하며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명령은 항상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경전을 통하여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영혼을 화평케 하며 가족을 강화시키며 인간의 품위를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지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는 자유로운 백성이 될 것이요.”(교리와 성약 38 : 2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 복음 8 : 32)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의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백성은 복이 있다”(시편 33 : 12)

전도서에는 이렇게 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전도서 12 : 13)

구세주께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임이라.”(교리와 성약 6 : 33)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일의 계시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0 : 20—21)

사회의 기본 단위 조직은 가정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가치 기준은 우리의 가족 관계 안에서 확립됩니다. 도덕 원리를 가르치는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가정에서나 책임감있는 부모가 있어 필요한 사랑을 베풀고 인도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상적인 사회의 가정은 도덕적 가치 기준을 가르치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교성 93 : 40)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니라.”(교성 68 : 28)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학교 교사들은 어린이들에게 일생을 통하여 그들의 지침이 될 적절한 가치관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그들의 부모와 보조를 같이 해야 합니다. 가정은 배움의 실험실이 되어서 이런 가치관과 더 큰 가치관이 일상

경험을 통하여 가족 개개인의 생활의 일부가 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부모의 책임을 달성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이 세상에는 가정과 가족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사회가 많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지를 보면 미합중국의 많은 가정에 경종을 울릴 만한 퇴보 현상을 나타내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침식 작용의 원인이 되는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와 이기심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 굳건한 가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편안과 자신의 취향을 만족시키기에 급급하다면 가족과 사회는 그 반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바쳐 하는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이 지상 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이곳과 다음 세상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을 이루는 것은 영원한 목표입니다. 가족 단위 조직이 주는 유익은 이 지상 생활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나는 몇 주 전에 멕시코의 몬테레이로 가는 길에 레이먼 후손인 훌륭한 멕시코 사람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에게 여덟 명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아버지가 된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자녀에 관하여 이야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하실 생각입니까?”

“내가 살 때까지이지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땅 속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겠지요.”

우리는 성경을 꺼내 들고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히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

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한복음 14:2-3)

나는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 질문을 깊이 생각하더니 귀기울여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영의 세계와 부활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는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 세상에서 아내와 자녀와 함께 살기를 참으로 원하십니까?”

“그 밖의 것은 조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물론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책 속에는 그의 조상들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미대륙을 방문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과, 그것이 영원한 가족을 갖는 열쇠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름과 주소를 카드에 적게 하여 스페인으로 된 물론경을 그의 집에 우송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몬테레이에 도착한 나는 그 카드를 선교사들에게 주었습니다. 지난 주에 그 선교사들이 그 가족을 방문한 결과를 보고하는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에 회회를 마치고 우리는 로베르트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의 부인이 울타리로 나와서 우리를 교회 전도사로 알고는 남편이 몹시 바쁘기 때문에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이야기하면서 형제님이 주신 카드를 보여 주자 즉시 그가 나와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그에게는 여덟 명의 훌륭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다시 와서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고 싶다는 뜻을 표시하자, 그는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물론경을 받았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귀중한 은사, 즉 이 생과 다음 세상에서 아내와 가족과 함께 하며, 더 나아가서 부모와 조상과 손자들과 그 후손들과 영원한 가족 관계를 이루며 사는 은사를 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체의 서약, 계약, 약속, 의무, 맹세, 이행, 관계, 교제, 또는 예약이니 ……능력을 이 땅에서 지니도록 내가 성임한 나의 기름 받은 자의 증보를 통하여 계시와 계명으로써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써 …… 맺어지고 계약되고 결봉되지 아니 ……하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한 후에 아무런 효험이나 효력이나 능력이 없으리라 …… 이상의 목적으로 맺어지지 아니한 일체의 계약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을 맺느니라.”(교성 132 : 7)

나는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약속의 성령으로써 맺어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능이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가 오늘날 이 권능을 적절하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가족을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히 인봉하는 이 거룩한 사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나의 친구들이 이 중요한 메시지, 즉 영원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와 같이 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인간은 영체와 육체로 되어”(교성 88 : 15) 있다고 말해 줍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은 무덤으로 가고, 그의 영은 대기하는 장소로 갑니다. 우리는 이곳을 낙원이라고 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구세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당시에 죽은 자의 영의 세계에 강림하신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크고 작은 죽은 자의 무리를 보았나니,

“그곳에는 수많은 의로운 자의 영들이 한 곳에 모여 있더라. 이들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충실하였고 ……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는 소망을 굳게 간직하고 현세를 떠난 자들이니라 ……

“이 수많은 무리가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그들의 구원의 때를 기뻐하고 기다리며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어 충실하였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더라 ……

“그러나 그는 악한 영들에게는 가지 아니하셨으며, 육체로 있을 동안 자신의 몸을 더럽힌 불의한 영들과 회개하지 않은 영들에게 그의 음성을 높여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니라 ……

“그러나 보라, 그는 의로운 영들 중에서 택하여 그의 군대를 조직하시고 사자들을 임명하시어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진실로 모든 인간의 영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도록 위임하셨나니, 복음은 이렇게 죽은 자에게 전파되었느니라.

“또한 택함을 받은 사자들은 나아가 주님의 은혜의 날을 알리고 포로된 자들,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영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더라.

“이와 같이 복음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죄를 짓고 죽었거나 예언자들을 배척하며 범법하고 죽은 모든 자에게 전파되었느니라.”(조셉 에프 스미스—시현, 11—12, 14, 18, 20, 30—32)

오늘날에도 자기가 구원받고 부활할 날을 기다리는 영들이 있습니다. “나는 현세를 떠나는 이 경륜의 시대의 충실한 장로들이 회

개와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통한 구속의 복음을 죽은 자의 영들이 거하는 광대한 세계에서 어둠 가운데 죄로 속박되어 있는 영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회개하는 죽은 자의 영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집행되는 의식에 따름으로써 구속받을 것이며,

“또한 그들의 범법에 대한 형벌을 받고 깨끗해진 후에 그들의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리니, 이는 그들이 구원의 상속자가 됨이니라.”(조셉 에프 스미스—시현, 57-59)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미 세상을 떠나 그들 스스로 필요한 구원 의식을 수행할 수 없는 자들을 찾아 내어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의식이 수행된다면, 그 당사자가 거대한 영의 세계에

서 복음을 받아들일 경우, 이 사업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신전에서 수행되는 의식에는 산 자와 죽은 자를 대신하여 아내를 남편에게 인봉하고, 자녀를 부모에게 인봉시키는 의식이 있어, 가족이 기꺼이 복음 원리에 따름으로써 가족이 영원히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구성원들이 주님이 주신 계명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합당한 도덕 기준을 지킨다면 이 생과 다음 세상에서 모두 특별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늘로 높여 주고 문자 그대로 자유를 가져다 주는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템플 스페이 앞에 놓여진 대외 방문과

순종—완전한 순종



테디 이 브루어튼 장로

칠십일 제일 정원회

“왜 순종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때문입니다.”

테너 부대관장님은 유럽의 여러 선교부를 관리하고 돌아오셨을 때 성공적인 개인이나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속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읍니다. 잠시 동안 그 질문의 뜻을 생각하고 난 그는 한 마디로 “순종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의 권세가 약화됩니다. 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도 약화됩니다.

주님이 93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사악한 자는 와서 불순종과……빛과 진리를 빼앗아”(교성 93 : 39) 잡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악한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순종하고 선한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즈플 퀘테이션, 타이런 에드워즈 편, 뉴욕 : 그로셋 엘드 던립, 1933년, 428페이지 참조)

헨리 와드 비처는 “법은 주인이 아니고 종이다.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법을 다스린다”. (플리머스 설교단의 격언, 윌리엄 드 라이즈메일 편, 뉴욕 : 디 에플턴사, 1887년, 65페이지)고 말했습니다.

왜 순종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크 이 피터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종교는 불사불멸의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복음의 회복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죽음의 세계에서 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직접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들은 뉴욕주 팔마이라 근처에 있는 거룩한 숲에서 요셉 스미스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들은 요셉 스미스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시고 그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모로나이도 여러 번 와서 어린 예언자를 방문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신약 시대의 침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왔습니다. 모세도 커틀랜드 신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왔습니다. ……

“그들은 모두 불사불멸을 실제로 증거해 주었으나, 죽음 후의 생명에 대한 증거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각자 불사불멸에 대한 증거보다 훨씬 더 큰 위대한 목적을 갖고 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 경문의 시대를 열어 주셨고, 하나님의 참된 본성, 즉 그가 한 개체로서 인간이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요셉에게 그리스도를 그의 유일한 독생자라고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본질에 대한 지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로나이는 물문경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멜기세덱 신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세는 유대인을 팔레스타인으로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모으는 열쇠를 가져 왔습니다.” 그

너런 엘리야는 무엇을 가져 왔습니까? (“인봉의 권세. 엘리야의 사명”, 계보과에서 행한 언설로써 출판되지 않았음)

인봉하는 권세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가족이 이 생이 끝난 후에 함께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가족 단위 조직이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가족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축복은 어떻게 얻겠습니까? 순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브라질 사용파울로 사우드 선교부에 글을 잘 읽고 쓰지 못하면서 선교 사업을 시작한 말헤어로스라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공석상에서 기도하기도 겁을 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월포드 카튼 선교부장의 말에 의하면, 바로 이 젊은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교 사업을 끝낼 무렵에 선교부장이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선교사가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백 명 이상 침례를 주었으며, 52주 동안 계속해서 매주 침례를 주었습니다.) 말헤어로스 장로는 매우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선교부장님, 저는 선교부장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부장님은 우리가 매주 침례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그 사실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하기가 늘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파라팅가타 지부의 지부장인 사라이바 형제는 어떻게 선교사로서 성공했을까요? 그는 브라질에서 가졌던 스테이크 대회에서 고든 비헝클리 장로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헝클리 장로는 한해 동안 100명을 교회로 인도하라는 목표를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라이바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될 이유가 없지. 십이사도의 한 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순종해야지.” 지난

번에 내가 사라이바 형제와 이야기할 때 그는 이미 250명 이상이나 침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어떤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인 플로리아노 올리베이라 형제는 어떻게 해서 선교사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그는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훈계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사용파울로의 복잡한 거리에서 차를 몰다가 잠시 도로에서 눈을 떼는 순간 앞에 가는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는 차에서 뛰어내려 자기가 들이받은 차로 급히 달려가서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차를 들이받아서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저의 실수였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가 들이받지 않았더라면 선생님은 제가 전해 드릴 이 메시지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선생님이 일생 동안 기다렸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회복된 복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문의로 종사하던 그는 2 주일 후에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올리베이라 형제는 이백 명 이상에게 침례를 주는 큰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순종, 즉 주님의 요청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마서 57장을 보면 수많은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운 2,060명의 힐라멘의 아들에 관한 기사가 있는데 그들은 그들과 교회에 대적하는 사람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것을”(엘마서 56:47)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엘마서 57장 2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명령에 복종하며 분명하게 임무를 수행하였으니”, 그들은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보호하심을 받고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잠시 의로운 의도로 시작했으나, 불순종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 봅시다. 역대상

13장 7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오는 웃사가 한 예가 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성약의 상징인 께를 만지면 안된다는 경고를 받았읍니다. 그러나 소들이 비틀거리서 께가 떨어질 것같이 보이자 웃사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손을 내밀어 께를 잡았다가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웃사의 행동은 정당했던 것같이 보여, 오늘날 우리는 그가 받은 형벌이 너무 가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진은 인생의 교훈—순종, 완전한 순종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위대한 인물로서 몇 가지에 불순종함으로써 중요한 것을 모두 잃은 사울 왕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특별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사무엘상 15:3)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21만 명의 대군을 일으켰읍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작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사무엘상 15:9)

사울은 실패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불순종으로 인하여 진노하시 왕을 책망하기 위하여 다시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이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



왕신인 제인 정인의 딸 제이 메더스모우 장모와 데스 시 테크 인의 장모

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사무엘상 15:14-15, 22-23)

오늘날 킴볼 대관장님이 지상에서 주님의 대변자가 되시므로,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가령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가 정원을 깨끗이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담장에 케인트를 칠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각자 엔드우먼트를 1년에 한 번씩 더 받으라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각 와드에서 적어도 한 쌍의 부부가 선교사로 나가도록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주일에는 가능한 한 물건을 사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축복을 막고 있음에 틀림없읍니다.

그러면 왜 순종합니까?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왜 그럴까? “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신명기 4:40)

또한 교리와 성약 98편에는 이렇게 써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지켜 준행하면 나 주는 모든 노여움과 분노를 너희로부터 거두어 가리니, 지옥의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교성 98 : 22)

주님이 교회에서 그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예를 하나 더 들어 봅시다. 이것은 교회 정사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1834년 6월 19일에 폭도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물몬들이 캠프를 치고 있을 때 다섯 남자가 말을 타고 와서 물몬들이 “아침이 되기 전에 지옥을 구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리치몬드 레이와 클레이군에서 온 무장한 군대가 피싱 리버의 개울에서 객슨군 군대와 합세하여 이 캠프를 완전히 부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다섯 남자가 캠프에 머물면서 욕하고 복수를 맹세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폭풍이 몰아칠 징조가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캠프를 떠나기가 무섭게 맹렬한 폭풍이 휩쓸었습니다. 우박이 쏟아졌는데 어떻게 나뭇가지 나뭇가지가 꺾였으며, 나무가 강풍에 쓰러져 뿌리채 뽑히는가 하면 캠프 주변에는 사방에 나뭇가지가 깔렸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개천이 급류로 바뀌었으므로 폭도들은 흩어져서 피난처를 구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폭도 한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었고, 또 한 사람은 말이 놀라는 바람에 손이 부러졌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물몬”을 위하여 이렇게 싸우신다면 각자 돌아가서 자기 일이나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6월 21일 아침에(바로 이틀 뒤에) 스콘스 대령이 두 사람을 대동하고 그 회원들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목격하였습니다. 나는 리치몬드 레이군에서 무장한 사람들을 이끌고 여러분을 볼

살시킬 결심을 하고 출발하였으나 폭풍 때문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그들에게 성도들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였으며, 그들은 물몬을 적대하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일에 자기들이 힘어 되어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캠프를 떠났습니다. (교회 정사 2 : 103-6)

이렇게 폭풍우가 치는 동안에 캠프에 있었던 성도들은 그 폭풍우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그들은 왜 보호받았을까요? 그들이 모두 주님에게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결심합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신명기 5 : 27)

이 교회에 관하여 내가 참되게 느끼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신 것처럼, 예수는 살아 계시며, 킴블 대관장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종입니다. 우리 모두 예언자를 지켜 보고 그의 말을 듣고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 구속주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곧 자신을 구원하는 것임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
철십일 제일 성교회

“우리가 현재의 위치에 있게 된 것은 알든 모르든, 좋든 싫든, 고맙게 생각하든 안하든,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 달 동안 교회 본부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동안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전에 알았던 많은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 회원들이 이 왕국을 세우려고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겪는 시련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나는 어른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열중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또한 이기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대에 직접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관심을 쓰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안락이나, 애써 얻어 놓은 안정을 버리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렇게 하려 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나는 어느 곳에서나 자기 이웃, 곧 교회 사람과 교회 바깥 사람을 모두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보살피는 충실한 몇몇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비유를 들어서(그렇게 말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 온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사막 지대에서 한 무리의 여행자들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날씨는 찰랑찰랑하고 길은 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 빨리 도착했으면 하는 마음 이외에는 공통점이란 별로 없었습니다. 모두 다 물과 식량을 갖고 갔으며, 여행하는 도중에 보충해 넣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먼지 구름이 태양을 가렸으며 바람이 모래 기둥을 끌고 와 도로의 낮은 부분을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즐거운 여행으로 기대했던 것이 순식간에 재난으로 바뀌었습니다. 곧 여행자들은 문제는 단지 언제 그 도시에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과연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행은 혼란과 의구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피난처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돌아가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수의 무리가 폭풍을 뚫고 전진하였습니다. 첫날이 끝날 무렵에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물도 부족한 가운데 그들은 모두 사막에서 길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튿날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이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낮익은 이정표는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고 찾기 어려웠던 도로가 흙모래에 완전히 묻혀 버렸습니다. 누구도 어디로 가야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길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그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각자 물과 정착할 피난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다음날 해질 무렵에 그 일행 중에 두 사람이 먼지를 뒤집어 써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힘도 다 빠진 상태에서 그야말로 운 좋게 예상하지 않았던 여관을 찾게 되었음

니다. 안전한 벽과 지붕 밑으로 들어선 그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그들이 받은 축복을 헤아렸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자의 물품을 보충하고 나머지 여행길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험악했습니다. 계속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래가 깊이 쌓여 있는 언덕으로 희미하게 도로 표시가 있는 길이 꾸불꾸불하게 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길에는 이따금 강도들이 나타나 멋모르고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약탈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어쨌든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는 그 도시에서 중요하게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용품과 물을 챙기고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는 저녁 때 까지는 언덕을 통과하리라 생각하고 동이 트자마자 급히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실려온 모래로 길이 막혔습니다. 그는 모래를 퍼내면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잠들었을 때 도둑들이 나타나 그의 물건을 빼앗고 기진 맥진한 그에게 물 한모금 남겨 두지 않아 그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둘째 여행자 역시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몹시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막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었으며 물도 없고 희망도 없이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은 그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아는 사람은 그뿐이었습니다. 그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는 그 너머 도시가 있음을 약속해 주는 듯한 언덕을 한번 쳐다본 다음 돌아서서 자기가 온 길로 도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하늘은 약간 개어 있었습니다. 그는 몇 개의 이정표를 찾아 냈습니다. 그는 자기가 나머지 여행자들과 헤어진 곳이 어디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여러 시간 동안 고생하여 찾아다닌 끝에 많은 여행자들을 찾아

내었습니다. 그는 자기 물통에서 생명수와 같이 귀중한 물을 꺼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길을 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있게 말했으므로, 그들은 모두 그의 뒤를 따라와 그 여인숙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로 가는 길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식량을 장만하고 물통을 채운 다음 다시 폭풍우와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 여행길은 여전히 험했습니다. 아직도 바람이 불고 구름이 태양을 가렸습니다. 아직도 꾸불꾸불하게 나 있는 길에는 두터운 모래 언덕이 쌓여 있었으며 언덕에는 도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행자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모래 언덕으로 길이 막히면 모래를 치우기 위한 작업조를 편성하였습니다. 비틀거리는 사람이 생기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 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보초를 세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그 두번째 사람과 그의 친구들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구조를 받고 물을 얻어 마셨던 사람들이 두번째 여행자를 둘러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찾아 내어 물과 빵을 나누어 준 것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잘 길을 제쳐놓고 사막에서 고생하며 우리를 찾아 나섰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두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 여관을 찾아 낸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물을 여러분과 나누어 마시지 않았다면 맛이 더 썼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곳까지 올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강도들이 공격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도 구해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서둘러 여행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여행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감사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내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서로 인도해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곳에 참석한 우리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 훌륭한 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과 우리가 받은 큰 축복과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 자격을 갖고 활동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막에서 길을 찾으려고 애쓸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시간을 내고 인내심을 갖고 사랑을 보여 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주 잊혀지는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또는 우리 부모나 조부모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위치에 있게 된 것은 알든 모르든, 좋은 삶든, 고맙게 생각하든 안하든,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없으며,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참 힘든 여행이었지만 나는 도착했어. 다른 사람들은 능력껏 도착하겠지. 지금 나는 길을 잃은 사람에게 물을 갖다 줄 시간이 없어. 나는 사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없어.”

주께서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일의 책임자가 되십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정하셨습니다.

그는 때로는 구름이 태양을 가리며 길을 찾지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지 잘 알고 계심에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길을 잃은 다른 사람들을 애써 데려오기를 바라시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까?

그 대답은 명백합니다. 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 과연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12) 그가 길 잃은 양과 생명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디든지 적용된다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지 못한채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에 관하여 조금도 의문이 없게 하시려고 분명하게 말일성도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분명히 지적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아직 받아들이지 아니한 모든 자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나는 이미 왕국을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 이르노니, 복음이 너희로부터 저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느니라.”(교성 84:75-76)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지시하셨습니까? 그는 현대의 예언자를 통하여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게 가장 값있는 일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저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것이니라.”(교성 15:6) 이는 옛날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지고 있는 의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마음을 돌림



하트만 렉터 이세 장로
칠십일 제일 정원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대 기록을 완성하고 개인 및 가족 역사를 작성하고 신전 의식을 가능한 한 많이 수행하십시오.”

오늘 오후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것을 큰 특권이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 나는 주님이 오늘날 지상에 있는 가족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 조직이며,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승영의 기본 단위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같이 생각됩니다. 그는 그의 자녀들이 가족을 통하여 가장 큰 축복을 받도록 계획하셨으며, 신전은 물론 이 영원하고 승영에 이르는 가족을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노아 시대를 제외하고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오늘날보다 더 심각하게 가족이 공격당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상당히 나빴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 당시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 6:5) 나는 내가 알았던 사람 중에는 “그 생각이 항상 악



원정원 제일 정원회의 매리온 더 렉스 장로와 폴 에러더 렉 장로



질서인 제일 정권회의 조지 피리 장로

할 뿐"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서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였다고 말씀하시고, 홍수를 보내사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의로운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서 가족 개념이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 : 12)

오늘날 우리는 노아가 당면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저주로 땅을 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말라기 4 : 6)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것은 엘리야의 직책일 따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교리와 성약 98편 16절에 있는 이런 과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는 "자녀의 마음을 자기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

며 선조의 마음을 자기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열쇠를 주었으나, 주님께서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말라기서를 좀더 분명하게 번역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예언자 엘리야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교성 2 : 1-3 ; 요셉 스미스 2 : 38-39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이 지구가 "황폐케 되는" 것을 막으려고 매우 심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



한 방편자와 이야기할 때하는 질서인 제일 정권회의 에프 엘리오 부위 장로

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를 보내사
살과 뼈의 육신을 받고 자신을 증거할 장소
를 갖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만일 우리
가 더 이상 주님이 그의 자녀를 이 땅에 보
내시지 못하게 한다면 이 땅은 황폐케 되고
홍수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가 틀림없이 지
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
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살아 계신 예언
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는 수많은 이야기
를 하시는 중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 4대 가족 기록서를 완성하고 가능한 한
먼 조상까지 다 찾으십시오.
2. 개인 및 가족 역사를 작성하십시오.
3. 가능한 한 자주 신전을 방문하여 신전
의식을 가능한 한 많이 수행하십시오.

나는 개인 및 가족 역사를 작성하는 것은
어느 것보다도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
리고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더욱 크게
돌리게 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지를 작성하고 개인 역사를 작성하는
것보다도 더 자기 자녀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궁
극적으로 그들은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와
특이한 면을 찾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
기록은 자녀들 자신에 관한 것도 많이 이야
기해 줄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얼마
나 큰 축복이었는가하는 것을 알면 자기 자
신의 가족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될 것
입니다.

또한 가족 역사를 기록하는 것보다 더 자
기 부모에게 자기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
법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큰 의
문을 품게 됩니다. 조상에 관한 것을 쓰기
에 앞서 그들에 관하여 많이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우 깊이 조사하게 됩니다. 조
상을 잘 알게 되면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귀한
사람들로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유산
을 주기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받
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교회와 하
나님의 왕국의 일원이 되고 그들이 사랑하
는 사람들과 인봉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록하라고 명하신 이런 기록은
우리 조상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구원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
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기
록된 대로 요한이 본, 앞으로 펼쳐질 책에 의
하여 심판받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
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
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요한계시록의 이 구
절을 인용한 뒤에 교리와 성약 128편 7-8
절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인용된 이 구절에서 책들이 펴 있
고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 펼쳐 있으나 죽
은 자는 저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음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따라서 여기에 언급된 여러 책은 저들의 행
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임에 틀림없으리니,
땅 위에서 기록된 기록이요.....

“이 의식의 본질은 신권의 권능에 있는 것
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
이다. 이로써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
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는 권
능을 허락받았느니라. 이를 달리 해석하면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기록하면 하늘에
서 기록될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기록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기록
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 죽은 자의 행
위에 따라 그 책으로 심판을 받는 것임이니”
(교성 128 : 7-8)

때로 우리는 일지를 기록할 시간이 없다
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킴
블 대관장님은 지난 8월에 있었던 세계 계
보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까지 나는 개인 역사로 78권의 큰 책을 가득 채웠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개인 일지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너무 피로해서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것을 나 자신과 내 후손으로부터 없애버리지 않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엔사인, 1980년 10월호, 72페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지상 최대의 책임은 죽은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작고한 친척들을 위한 대리 침례를 무시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 의식을 행합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53, 188페이지)

그러므로 시온산의 구조자가 되는 것은 신전 의식을 행하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

입니다. 그것은 4대 조상과 그 이상의 조상을 찾으며 개인 및 가족 역사와 초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행할 거룩한 집이 없다면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전을 짓는 것이 이 경륜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됩니다. 이 시대에 지상에 살면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나라에 주님의 집을 짓는 위대한 일에 참여하여 지상의 모든 자녀들이 복음의 구원 의식을 받고 영원한 가족으로 계속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총관리 역원의 말씀을 동시 통역으로 경청하고 있는 대회 방문자들

이 반석 위에



브루스 알 맥킴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만일 우리가 자신의 구원의 집을 개인적인 계시의 반석 위에 짓고 예수님이 주님이 라는 계시된 사실 위에……짓는다면 그 집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복된 추억을 안겨 준 친구가 한 분 있는데 나는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몇 가지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인간의 입으로 한 말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에 가버나움 근처의 산에서 행해졌습니다.

수많은 유대인 친구들에게 하신 그 훌륭한 말씀은 하늘의 빛으로 그들의 영혼을 밝히고, 타는 듯한 간증으로 그들의 온몸에 불을 붙여 주었습니다. 누구도 그분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 가슴속부터 타오르는 듯합니다.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그는 이렇게 권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 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마태복음 7:24-27)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택한 기초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간 세상에 지은 집은 모두 인생의 폭풍과 시련을 겪습니다. 인생이 거치게 되는 시험 기간은 거룩한 목적에 의하여 비와 바람과 홍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악의 비와 거짓 교리의 바람과 육욕의 홍수가 집집마다 들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신앙의 집, 의의 집, 구원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집이며 거룩한 성소인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참되고 충실한 말실성도는 누구나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왔습니다. 바울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6-17)고 말한 대로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솜씨로 벽돌과 시멘트를 써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폭풍과 위기를 견디고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상속을 받도록 지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녹슬어 버린 못과 육욕으로 썩은 나무로 사악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비와 바람과 홍수가 들이칠 때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것이 될 집을 어디에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우리의 옛 친구로부터 배웁시다.

갈릴리 바다 북쪽의 가이사라 빌립보 근처와 혈문산 근처에서 있었던 훌륭한 광경을 돌이켜 봅시다.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던 수많은 군중들은 세상의 떡을 요구하다가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로 그것을 거절당하자 이 군중들은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참되고 굳건한 믿음을 지닌 소수의 남아 있는 무리들에게는 영적인 휴식이 필요하였습니다. 우선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지상에 사시는 동안에 자주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 즉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 16:13 참조) 그 질문 자체가 그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되는데, 이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신 사람이며 그의 독생자의 이름이 거룩하신 사람의 아들, 즉 인자라는 것을 그도 아셨고 그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배도한 백성들의 환상과 망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악한 안디바가 죽인 칩체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만사를 회복시킬 일라이어로 생각하는가 하면, 그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올 엘리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는 그들의 어리석은 전통에 따라 느보산의 동굴에 언약궤를 감추었다가 그것과 우림과 돌뭍을 지성소로 회복시켜 메시아를 위하여 길을 준비할 예레미야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여러분, 가장 높으신 이의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자 하는 헌신적인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찾습니까? 모두 자신과 이야기합시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맨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주는 약속된 메시아시요, 육신으로 난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은 주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하고 경의스러운 일입니까? 바로 바울이 말한 대로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며,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딤후 3:16)

그러자 머지않아 자신이 변형될 산기슭 가까운 곳에서 거룩하신 분을 아버지로 모신 인자께서는 자기 친구들의 그 엄숙한 간증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마 16: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시와 모든 사람들과의 차이를 매우 주의 깊고 적절하게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불사불멸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베드로의 아버지는 육신을 입은 인간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그렇게 축복받았습니까? 이는 그가 성신의 권세로 예수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시몬의 육신에 거하는 영에게 말씀하사 이 수제자에게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 16:17)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자신과 베드로의 조상의 차이점을 암시하시며 다음과 같이 축복과 교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계시의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라”(마 16 : 18)

이것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의 교회와 왕국을 세울 기초는 달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시로 알려지든지 또는 영원히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누구도 성신의 권세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계시 : 깨끗하고 완전하고 개인적인 계시, —이것이 반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계시 :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명백하고 놀라운 말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해 주는 말씀, 이것이 반석입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아들되심 :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되시며 복음을 통해서 이 생과 불사불멸의 빛을 가져다 주신, 확실한 하나님이 전해 주신 말씀, 이것이 곧 반석입니다.

우리 주님의 간증 : 예수님의 간증, 즉 영의 영, 이것이 반석입니다.

이상 모든 것이 반석이지만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십니다. 모든 시대의 반석, 이스라엘의 반석, 확실한 기초, 곧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다시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씀을 들어 봅시다. “이 닭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닭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전 3 : 11)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엡 2 : 20)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한 옛날의 친구인 이 사도의 훈계를 새롭게 듣게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고후 13 : 5) 그러므로 우리도 자문해 봅시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까요?

만일 우리가 자신의 구원의 집을 개인적인 계시의 반석 위에 짓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계시된 사실 위에 짓고 영원한 반석 이신 그분 위에 짓는다면 그 집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지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영감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를 치는 모든 홍수와 폭풍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 성신의 권능에 의하여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터를 닦는다면, 복음을 믿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구원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반석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 세상을 버리고 육욕적인 것을 피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에게 속한 일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앙의 집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악의 비가 내리고 거짓 교리의 바람이 불고 육욕의 홍수가 우리에게 덮칠 때라도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일성도로서 반석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충실한 사람들이 교묘하고 분명한 음성이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런고로 나의 복음의 기초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면 지옥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보라, 나의 복음,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 너희 앞에 있도다.”(교성 18 : 5, 17)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와 고대 사람들처럼 살과 뼈의 육신으로는 결코 인간에게 제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과 함께 간증합니다. 우리는 성신의 권능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회 방문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판리 감독단 에이지 버크 피터슨 감독.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에게 충실할 수 있게 하셨으며 그의 이름에 의해서만 구원은 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주님이시며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반석이십니다. *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말씀드리면서 현재 우리가 전하고 있고 또한 고대 사람들이 전했던 이 간증과 연관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나 자신과 십이사도 형제님들을 대신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지상에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영원한 복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때가 찬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요셉 스미스 이세를 그의 말일의 예언자로 또한 첫 사도이자 우두머리 사도로 부르사, 베드로와 사도들과 고대의 예언자들이 각자 성역을 베풀던 시대에 소유하였던 모든 열쇠와 신권

과 권능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런 열쇠와 이 거룩한 사도 직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해졌습니다. 요셉 스미스, 브리감 영,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럼, 로렌조 스노우, 조셉 에프 스미스, 히버 게이 그랜트, 조지 앨버트 스미스, 데이비드 오 맥케이, 조셉 필딩 스미스, 해롤드 비리, 스펜서 디블류 킴볼 또한 이 거룩한 사도의 직분과 열쇠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지구를 통치하기 위하여 하늘 구름 속에서 내려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도에서 사도에게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대리자로서 그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실 말씀을 주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의 이름만이 하늘 아래 구원이 임하는 유일한 이름이며, 우리는 그의 대행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 을 하고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신앙과 선한 사업을 갖춘 이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업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디서도 이런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대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과 음악과 앞서 진행된 모든 것을 지켜 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감동을 받았고 기뻐하며 영감을 받았읍니다.

안젤 아브레아 형제를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맞아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는 당분간은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에서 현재의 직책인 선교부장의 임무를 계속 관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는 가장 최근에 뽑힌 총관리 역원으로서 우리 교회의 지도력에 큰 힘과 깊이를 더해 줄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킴블 자매와 함께 세상의 수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이 교회의 활력과 성장을 직접 보고, 스테이크와 와드와 선교부 회원들의 헌신과 비이거적인 봉사로서 크게 격려받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보존하고 우리 성도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

주라는 권고를 받아 왔읍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소채원을 가꾸고 궁핍한 때를 대비하여 일년치 식량과 의복을 보관하도록 권고합니다.

우리는 모든 말일성도들이 훌륭한 이웃이자 훌륭한 국민이 되고, 자기 국가와 국기에 충성을 다하도록 권고합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2조) 모든 미국인과 문명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지난 주에 미합중국 대통령을 살해하려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던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슬퍼하였읍니다. 그때 대통령과 근처에 있던 세 사람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나와 함께 레이건 대통령과 측근들이 속히 건강과 원기를 되찾고 집무할 수 있게 기도하시리라 믿읍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생기든지 그런 폭력 행위를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이 대회 기간에 우리는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순리대로”(모사이야서 4:27) 교회의 성장을 관리하라는 권고를 받아 왔읍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자신의 의무를 행하며, 완전한 심일조와 후한 금식 헌금을 바침으로써 복음의 의식과 축복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라는 권고를 받았읍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태버나클에 모여서 영원한 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급속하게 진전하고 있지만, 시간이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는 총관리 역원들이 미국과 남아메리카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구라파에 9개의 새로운 신전을 지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 새로운 신전이 약 2년 이내에 완성되고 헌납되면 전 세계적으로 신전의 수가 37개로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성도들이 가장 가까운 신전에 가려고 해도 막대한 경비와 시간을

들어서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하므로, 성도들이 좀더 쉽게 신전에 가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일전에 대회의 마지막 모임이 끝났을 때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신전을 짓게 된다는 계획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에 대하여 작성한 상당히 많은 분량의 게보 기록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신전 건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이 발전해 나가면 전세계에 수많은 신전이 서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계가 혼돈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끊임없이 시험받고

있으며 앞으로 닥칠 시련은 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낙담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주님의 사업이 아니라면, 악마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만일 이 교회가 단지 사람의 교회로서 인간의 교리만 가르친다면 우리를 비판하거나 방해하는 일은 별로 없거나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이 교회에서 받드는 이름을 가진 바로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비판받거나 곤경에 처하더라도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과 선한 사업을 갖춘 이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업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디서도 이런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걸음의 폭을 넓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기회를 기뻐하면서 전진하십시오.

이제 이 훌륭한 대회가 끝나는 시간에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은 물론입니다. 발은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으나 이 세상 모든 곳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시간은 너무 짧고 일꾼은 너무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위대한 축복이 필요한 세계의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일이 주님의 사업이며,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의 교회이며, 그는 이 교회의 우두머리이며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독생자이며 이 세상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간증과 나의 축복과 사랑과 애정을 전합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원칙을 따릅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

“우리는 경고하는 태도가 아니라, 부드러운 권고의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기본 원리로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생각하다 보면 우리 개척자의 유산을 회상하게 됩니다. 우리 백성들은 언제나 여러 형태의 수많은 곤경을 겪으며 우리의 신앙을 시험받았습니다. 초창기부터 그랬습니다.

윈터 쿼터스에 있던 성도들이 1846년부터 1847년의 겨울에 대평원을 횡단하는 길고 어려운 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 21년 동안 브리검 영의 보좌로 일하셨던 나의 조부이신 허버 시 킴블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 겨울에 주님께서서는 영 대관장에게 주신 계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은 모든 일에 시련을 겪어야 하나니, 이로써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하여 저들이 영광 곧 시온의 영광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니, 징계를 견디지 못하는 자는 나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하느니라.”(교성 136 : 31)

우리 역사상 아무도 원하지 않던 황폐한 땅에 정착하여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과 굳건한 가족유

대로 인하여 살아 남았을 뿐 아니라 번영하였습니다. 개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고 서로 밀고 당겨 주며 주님께 의지하는 중에 독특한 성품이 형성되었습니다.

나는 아리조나주에서 지낸 소년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을 갈아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돈은 극히 적었고 충분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견디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도 함께 하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음식과 재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참된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에게 의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용할 빵을 얻기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일하였습니다.

개척자로서의 경험을 통하여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습니다. 지금 또다시 우리의 자원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개척자로 훈련받은 유산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해에 걸쳐 이런 복지 모임을 가져 왔으나, 바로 지금보다 더 중요한 시기에 모임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들의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기본적인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세상적인 재물은 많이 갖지 못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부유했던 우리 개척자들이 가르쳐 준 교훈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는 경제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성을 위해서도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개척자 선조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개척자들이 자기가 가졌던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단지

두 끼에 해당되는 돈이 아니라 후한 금식 헌금을 냄으로써 그들처럼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개척자 선조들은 정부가 자기 가족을 돌봐 주기를 바라지 않았읍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이 자신의 보배이며 책임이라 는 것을 알았읍니다.

유복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갖지 못하더라도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일하십시오. 수입의 한도내에서 생활해 나가며 빛을 지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땅이라도 땅을 갖고 있으면 소채원을 가꾸십시오. 휴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영혼에도 유익한 일입니다. 현명하고 주의깊게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십시오. 수입의 일부를 빼어 저축하십시오. 수 많은 욕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족 평의회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우리의 개척자 선조자들은 “희생은 하늘 축복 가져”(찬송가 185장) 오는 방법에 관한 노래를 즐겨 부르곤 하였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역경의 가치를 잊지 맙시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범죄와 폭력 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단연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평정을 찾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읍시다. 사랑하고 선한 이웃이 되라는 주님의 큰 계명을 기억하고 지킵시다. 서로의 차이나 오해가 있을 때에는 형제로서의 친절한 봉사과 순수한 염려와 관심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줄읍시다.

우리는 경고하는 태도가 아니라 부드러운 권고의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기본 원리로 돌아가 원칙을 따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서 폭풍우가 치는 시기를 통과 할 때 도움이 되어 줄 영적인 소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대회의 모임에서 배운 복지에 관한 가르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시기 적절한 것이며 우리가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옮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심분 활용하고 또한 지도자들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표시해 놓으신 그 길로 우리 백성을 인도하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가족을 돌보는 책임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관리 감독단 제1보좌

“모든 면에서 이 권고의 말씀에 들어 있는 것 가운데 우리 가족에게 해당될 만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가정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자기 가족을 돌보는 책임에 관하여 말씀하라는 부탁을 받

았습니다. 이 권고는 직계 가족과 친척에게 모두 적용될 것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훈계의 말씀은 이런 책임을 분명히 밝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성한 가족의 책임에 관하여 말씀드릴 토대를 놓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때때로 그런 것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판단력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하는 일 중에는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별로 가치가 없는 것도 있으리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우리가 성취할 수도 있는 훌륭한 것을 오히려 손상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승영을 위한 준비 단계로는 우리가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수많은 일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고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인간의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매달려 빠르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



템플 스케이프를 돌아보는 대회 방문자



분부 상효부르의 의장, 파파라 비 스미스 자매

이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열 처녀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무리에 관하여 말씀하셨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 믿음이 있는 교회 회원 열 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은 일행이 되어 신앙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설명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때까지 “교회 활동”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 중 다섯 명은 다른 다섯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반은 그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 즉 가장 중요한 등에 기름을 넣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에 관하여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앙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마 25 : 10)

이 경고의 말씀과 좀더 중요한 일을 하라고 지시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물론 경에 나오는 위대한 예언자들과 선교사 중의 한 사람인 엘마의 가르침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엘마는 구세주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칩테탕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성약과 책임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우리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엘마는 모사이야서 18장에서 구세주의 참된 추종자, 즉 참된 제자의 품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죽을 때까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모사이야서 18 : 8-9)

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세주의 제자가 되고, 주님처럼 되려면 서로 섬



대외 방문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원신인 제인 장년의 에릭슨 티 펄스 장모

겨야 하며, 다른 사람의 궁핍한 것을 도와 줄 책임을 맡아야 하며, 인생의 가치받 길을 헤쳐나가면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우리가 지상 생활에서 위대하고 뜻깊은 것을 성취할지라도, 또한 감독, 서기, 회장, 교사, 부모로서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전 13:1-3 참조) 사랑이 부족하면 어떠한 선한 행위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숭고한 사랑의 형태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의도를 알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소망을 알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품행이나 행동에 대한 판단을 삼가하는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판단할 권리를 갖고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청하지도 않은 판단과 편견이 앞서게 되면, 끈경에 빠진 사람에게, 사랑의 태도를 보이거나 기꺼이 도와 주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족 안에서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왕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너희가 도울 것이요, 궁핍한 자와 더불어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눌 것이요, 구절하는 자를 버려 두어 죽게 하지 아니하리라.

“혹 너희는 이르기를, 사람은 저마다 저 스스로 자기의 비참을 불러 갖는 것이매, 나는 잠잠하여 음식을 나누거나 저가 고난을 받지 않도록 나의 재물을 나누지 아니하리라. 그가 형벌을 받음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할 것이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행하는 자는 크게 누우칠 것이요, 이렇게 행하고도 행한 바를 회개치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왕국이 저에게는 조금도 즐겁지 아니하리라.”(모사이야서 4:16—

18)

모든 면에서 이 권고의 말씀에 들어 있는 것 가운데 우리 가족에게 해당될 만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품행이나 행동이 용납될 수 있을 때에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는 그 사람의 행위에 의거하여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하는 것으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참된 제자의 행동을 설명한 엘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참된 제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약한 자아를 벗어나야 하는 곳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다른 어느 곳도 이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자기 가족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사랑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메시지의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 필요한 것을 돌보는 방식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아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단상에서 많은 분들이 가족을 돌보는 우리의 책임에 관하여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이 주님이 설명하신 그대로 이해되고 적용되지 않고 있거나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들어온 이래 우리 친척이 교회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게 버려 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와 친척을 교회에 맡겨 버립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나이 든 자매가 있으면 교회에 맡겨 버립니다. 또는

노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으면 ‘교회에서 우리 부모를 돌보고 먹여 살리게 하자.’ 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친척과 가난한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설교집, 8 : 145)

우리가 기본적인 도덕 원리로부터 이탈해 있을지도 모르므로, 나는 여러 감독님들이 20년 이상 사용하였던 복지 지침서의 일부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친척의 도움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친척이 돌봐 줄 수 있는데도 공공 기관(이나 교회)이 책임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친척 관계나 정의와 공정이나 공익이나 인도적인 견지에서 고려해 볼 때 이렇게 해야 한다.” 또한 다음 말씀을 잘 들어 봅시다. “재정적으로 자기 친척을 돌볼 능력이 있는 교회 회원이 그 일을 거절한다면 그 사실을 그 친척이 사는 와드의 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복지 사업 지침서, 1969년, 4페이지)

그리고 그 지침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시한 내용을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디모데전서 5 : 8)

우선 우리는 자기 가족을 돌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돈과 기타 물질적인 것만을 뜻합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해결되지 않은 욕구가 있습니까?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노라면 주로 육체적인 편안함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과 의복과 옷을 마음속으로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부모님들은 잘 결혼한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적은 돈을 관리하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 주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형제와 자매들이 이와 같이 서로 돕기도 합니

다. 노년의 부모나 조부모에게 물질적인 것을 많이 제공하는 아들과 딸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며 자기 가족을 돌보는 사담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필요 사항이 반드시 물질적인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용서, 격려, 위로, 권고, 이야기를 들어줌, 가르침, 도덕적인 도움, 사랑과 보호의 모범 및 그 외의 수많은 경험은 위기에 처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그들의 그 절박한 욕구는 평생 동안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양로원에서 살아야 하는 할머니가 있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할머니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 담요를 갖다 드렸습니다. 한번은 그렇게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아버지의 어린 아들이 “아빠, 왜 우리는 해마다 할머니를 방문해요?”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할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게 하기 위해서야.”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왜 잘 때마다 새 담요를 갖다 드리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할머니를 찾아뵈었으며 우리가 할머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하기 위해서지.”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쉬었다가 “아빠, 그러면 내가 아빠를 찾아갈 때에는 어떤 색의 담요를 갖다 드리면 좋겠어요?”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애굽기 20 : 12)는 계명을 정당하게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서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자매, 친척을 배척할 수 있는 가족은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가족의 일원이 얼마나 나이를 먹었든지 그를 집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족이 곤궁에 처한 사람을 도움 계획

을 세우면서 서로 권고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족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의로운 일이 생기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릴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전형적인” 물론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그런 사람이 많습니다—우리는 모두 사실상 형제 자매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충실한 사람들은 순종함으로써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가족들이 자기 가족에 대하여 책임지라는 계명을 거부하고 그 율법에 불순

종하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방법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식하는 자들이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태복음 15: 7-9)

오늘 아침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다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이 가르침이 참되며 이 가르침을 주신 분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의심없이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섬에서 온 대회 방문자

별을 바라봄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소득의 범위내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풍족함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 불 대관장님, 태너 부대관장님, 루니 부대관장님, 친애하는 총관리 역원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경제적 압박을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잡지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접하게 되며,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그것을 몹소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나는 남편과 함께 한주일 동안 필요한 물건과 비축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식료품점에 갑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 바구니에 물건을 가득 채우고 값을 지불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점원이 우리보다 먼저 온 손님의 물건 값을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품목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물가 시대에 일정한 소득으로 대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가정과 소액의 연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노인들과 일정한 수입이 없이 생활하는 홀몸이 된 부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현 추세에 맞추어 생활하려면 모든 가사용품을 매우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경제적 여건은 더욱 심각해져 갑니다. 아울러 여성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동시에 이러한 와중 속에서도 만족을 느끼려면 여러 면에서 지혜를 활용해야 합니다.

갓 결혼한 한 신부가 남편을 따라 사막 번두리에 있는 군 주둔지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주택이 별로 없어 집값이 무척 비쌌기 때문에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인디언 마을 근처에 작은 오두막집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섭씨 45도까지 올라가 견딜 수 없었으며, 바람이 계속 불어온 천지가 먼지와 모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지루기만 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명령을 받고 기동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2주 동안 사막에 투입되어 있는 동안 그녀는 더 이상 그곳 생활에 견딜 수 없었던 나머지 어머니에게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곧 답장이 왔는데, 이런 귀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철창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다. 한 사람은 진흙길을,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귀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별을 바라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녀는 우선 이웃인 인디언들과 친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섬세한 직물과 도자기에 감탄한 그녀는 그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순수한 동기에서 우려나온 것임을 알고는, 기꺼이 그녀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그들의 문화, 역사, 그 밖의 모든 것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이 황폐하고 두려운 곳으로만 여겨지던 사막이 이제는 놀랍게 아름다운 세계로 느껴졌습니다.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사막이 변했겠습니까? 아니면 주위 환경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참한 경험을 소중한 것으로 변화시킨 그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비즈 앤

드 피시스, 제 C권, 제5번, 21—23페이지)

어떻게 하면 상호부조회는 여성들로 하여금 벌을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호부조회는 여성들로 하여금 주위 환경을 항상 밝고 새로운 곳으로 만드는 동시에 가정에서 효과적인 경제 원칙을 적용하여 돈과 기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 상호부조회 단위에서 취해야 할 방침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가정 및 금전 관리입니다. 모든 자매들은 가정 및 금전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지침에 따르으로써 가족의 수입내에서 소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수입 이상의 금액을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절박한 이원리를 도의시킬 수 없습니다.

수입내에서 지출하라는 첫번째 분명한 원리는 먼저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운 다음 부수적인 물품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여성들이 지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르으로써 오는 마음의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수입 내에서 지출할 때에 비로소 그들의 삶에는 화평이 깃들게 됩니다.

여성들은 예산을 세우는 방법을 배워야 함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예산을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수입을 초과하여 구입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지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부채를 낳고, 분별없는 부채는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여 대부분의 경우가 정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의 제언에 따라 행한다면 자녀에게 그것을 쉽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저축하라”는 말은 자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말입니다.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저축하라. 자전거, 옷, 또는 혼수감을 살 수 있도록 저금

하라.”는 말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해가 빠 른 말이며 의미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금전에 대한 가르침”, 성도의 빛, 1976년 7월 호, 23페이지)

예산에 맞춰 생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반드시 궁핍을 전제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보다 큰 것을 배우는 경험인 것입니다.

최근에 결혼한 내 친구의 딸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에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적은 수입을 쪼개어 저축을 하고 있다고 적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들뜬 기분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자주 식탁에 오른 음식이 우리의 예산에 비해 너무 단가가 높다고 생각해 오던 차에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고쳐 나가기로 했어요. 어느 날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분말 우유를 이용하여 우유, 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을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내 스스로 일함으로써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성들에게 돈을 관리하는 실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낙천적이며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슬기로운 정신을 기르는 방법까지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원 관리에 대한 방침을 계획해야 합니다. 자매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를 몇 사람이 함께 이용하고, 가까운 곳이면 걸어간 다거나, 털옷을 끼어 입고 온도 조절 장치를 1~2도 낮추며, 햇빛이 쏘일 때는 커튼을 열고 밤에는 치고, 집을 비울 때면 전열기와 전등을 끄고, 그리고 빨래감을 모아서 세탁기를 돌리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재산 관리와 쓰던 물건의 활용 또한 자원 관리의 방침입니다. 한 스메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은 가사 모임에서 헌옷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의복을 만드는 시범을 전문적인 재봉사로 하여금 보이게 하였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자매들이 돈

을 절약하고 동시에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옷을 장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원 관리에 관한 소단위 공과반을 열어 의복을 수선하고, 세탁하고, 고쳐 입는 방법, 즉 의복을 오래 입을 수 있는 효과적인 손질 방법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세탁비에 대해 언급하는 것 역시 여성들이 의복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복을 격식대로 장만하지 않더라도 옷을 조화되고,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호부조회는 자매들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잘 관리하여 실용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만족감과 기쁨을 동시에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한다면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족의 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자매들은 최선의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십시오. 상호부조회는 훈련을 통하여 가장 저렴한 의료비로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스피린 값조차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즉, 건강은 돈을 절약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여성들은 영양가 높은 식단을 짜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식사를 조금씩 하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매일 규칙적이고, 균형있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상호부조회의 지침에 따라 자매들은 영양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에 옮겨야 함은 물론 영양가 높고 맛있는 음식을 값싸게 준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면에서 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교회의 방침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즉, 가사 모임은 계속해서 월례로 갖되, 특별한 필

요 사항이 없는 경우 가사 모임 오찬회는 일년에 여섯 번만 갖도록 권합니다. 또한 상호부조회 회장들은 이 모임이 단순하고 의례적인 다과회가 아니라 검소한 생활을 권장하고, 자매들의 가정에서 자주 식탁에 올리게 되는 식단을 경제적이고도 영양가 높게 준비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교적 경험임을 이해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복지 계획의 기본적인 한 가지 개념은 세심하게 계획함으로써 비상시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자매들이 현재의 필요사항과 장래의 위급한 시기에 대처하도록 가정에서 검소한 생활을 함으로써 이러한 면에서 한 발 앞장서 나가게 도와주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던 때에 필요했던 비상 준비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가 주님의 권고에 그대로 따라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는 인류역사상 가장 훌륭한 복지 계획을 달성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들은 주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조금도 의심치 않고 노아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동물들이 일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러한 방법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였으므로 그들이 수고하고(모든 동물 한 쌍씩을 고름), 항해 중에 모험을 겪고(분명히 맹수들도 있었을 것임), 최초의 무지개가 하늘에 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았을 때 그들은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부지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주님께서는 축복으로 주신 청지기 직분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경제적 압박이라는 커다란 어려움에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별을 바라보고,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도록 주님께서 택하신 예언자와 사도들의 권고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만족과 기쁨을 얻기를 기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킴



엘 러셀 벨라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가정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열쇠에 대해 제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도, 계획 및 자제심입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오늘 나는 가정의 재정에 관하여 이야기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신용 경제가 발달하고 인플레이가 계속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적은 소득으로 높은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미국 전체 가정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가정이 빚에 쪼들려 안정된 생활을 위협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작년에만도 수만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복지 사업과에서 최근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회원의 절반 이하의 회원들만이 일년치의 재정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89퍼센트는 높은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었던 말일성도 여성의 34퍼센트가 가정을 벗어나 직장을 갖고 있으며, 그중 57퍼센트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31퍼센트의 가정이 부족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고, 39퍼센트는 기본적

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수입이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오늘날 우리는 지도자로서 회원들에게 그들 스스로 시간과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오늘날 우리가 생활에 적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엘마가 그의 아들 힐라멘에게도 가르친 원리임을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들아, 이것이 또한 모두는 아니라. 내가 아는 대로 너희도 알아야 하리니, 너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엘마서 36:30)

나는 사업상의 경험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기계적인 습관에 빠져 들어 자신의 창의력, 용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상실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교사는 몇 번이고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마가복음 9:23)

형제 자매 여러분, 가족의 재정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가정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열쇠에 대해 제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도, 계획 및 자제심입니다.

첫번째 열쇠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태도란 우리가 풍요한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현재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최선의 상태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가치있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웠는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나는 보다 많이 봉사할 방법을 찾고 있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상의 것을 하고 있는가?

좋은 태도는 좋은 결과를, 아름다운 태도는 아름다운 결과를, 부족한 태도는 부족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며, 그것은 거의가 우리의 태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현재의 자신에 대하여 그 결과를 환경의 탓으로 돌립니다. 나는 그 환경이란 것을 믿지 않아요.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환경을 찾아 낸 사람들이고, 찾을 수 없을 경우엔 만들어 낸 사람들 뿐이죠.”(와렌 부인의 직업, 조지 버나드 쇼우의 회곡중에서, 뉴욕: 뉴아메리칸 라이브러리, 1960년, 82페이지)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이 정부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은 더욱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상 배급을 주었던 대공황 때 살았던 사람 중에는 아직도 나라에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36년에 대관장단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교회 회원은 일을 그들의 생활 원칙으로 재인식해야 합니다.”(대회 보고, 1936년 10월, 3페이지)

일을 사랑하는 마음은 교회 회원이면 누구나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과거 대공황 시절만큼이나 위험할지도 모르는 풍요한 시대에 살아 왔습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종의 시험과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세대의

젊은이가 겪어 왔던 것보다 풍요하고 넘어가기 쉬운, 바로 ‘황금의 시험’입니다.”(역경의 열매는 달다, 브리검 영 대학교, 윌해의 말씀, 프로보, 1962년 2월 7일, 3페이지)

일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모든 가족은 이 영원한 원리가 각자의 생활에 뿌리를 내리도록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나 자신의 생활 경험을 통하여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첫 번째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하자마자 아버지를 도와 판매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유타 대학에 다니며 시간제로 일하였으므로 처음 두 주 동안은 실통치 않아 10달러도 안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판매원 모임에서 다른 판매원들이 보는 앞에서 내 봉급을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비로소 나는 이것이 내 자신을 다시 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방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서도 판매 일에는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그러한 최하의 보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의 수입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상점에서 같은 상품을 팔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태도가 완전히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이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생애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요 인용집 참조, 에머슨 로이 웨스트 편집,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8년, 19페이지)

형제 자매 여러분, 두번째 열쇠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더욱 가치있는 사람이 되기 위

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특별한 목표를 종이에 써서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을 계획해 본 적은 있습니까?

나는 최근에 매리웃 회사의 호텔 및 식당 지배인의 75퍼센트가 객실 중업원, 버스 안내원, 급사 또는 출납계원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재능을 향상시키므로써 지배인이 될 기회가 주어질 때는 이미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심한 계획을 통하여 야간 학교나 실업 학교에 다니거나 통신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을 수록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자신이 하는 봉사의 가치를 배가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확고한 재정 기반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만족을 느끼고 충분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학업에 충실하고 장래의 생활 보장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십대에 이르면 수많은 직업에 대해 조사해 볼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때 야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때가 되면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이나 직업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직업이 자신에게 부적당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확신을 얻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에 실행에 옮겨 직업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 수입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변호사, 회계사, 은행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 성공한 사업

가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기도하여 인도를 구하고, 마음속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확신을 받으면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님의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누가복음 14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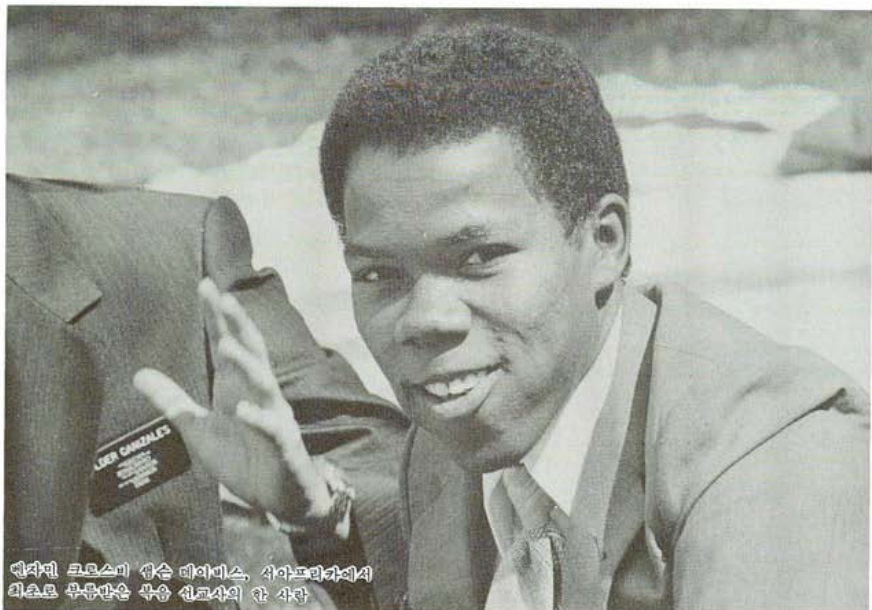
세번째 열쇠는 자신의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소비를 줄이려 할 때 자제하는 것입니다. 후자에 관하여 교회 지도자들은 반드시 스테이크와 와드의 재정적인 요청을 최소한으로 유지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수많은 소액의 부채를 갚기 위하여 과대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곳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대부분을 받지 마십시오. 상당한 기간 동안에 적절한 이율로 상환할 수 있는 은행이나 신용 조합으로부터 용자를 받아 부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그만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자신에게 “우리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어.”라고 타이르고 더 이상 빚을 지지 않도록 하여 자제력을 기르십시오. 어느 날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의 낭비에 대해 이렇게 말했



대리 방문자



에자제 크로스비 같은 데이지스, 서아프리카에서
리스크 무릅쓰고서 성공 신교사의 한 사람

읍니다. “돈을 벌기 전에 쓰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야 하는지요?”

상대방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거 봐요. 이렇게 해서 당신이 돈은 못가지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도로 그 돈을 써서 생긴 것은 있잖아요.”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생각하여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채권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3.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지출하십시오.

4. 필요한 물건과 원하는 물건을 구별하여 지출을 줄이십시오. 물자와 용역과 에너지를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5. 가사 기술을 향상시키고, 집과 승용차 수리, 등 가능한 것은 가족이 하게 하십시오.

6. 현명한 투자를 하십시오. 투기와 일확천금의 꿈은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신의 수입 능력을 향상시키고 증가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직업을 갖거나 아내

와 함께 맞벌이를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정규 직업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보다는 성공을 추구하고자 할 때에 곧 성공적인 태도를 개발하게 됩니다.

“하나가 잘 되면 만사가 잘 된다.”

긍정적인 태도, 잘 짜여진 계획 및 지속적인 자제를 통하여 우리의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열의를 일상 생활에 적용시킴으로써 수입을 더욱 늘리고 가정에서 실천함으로써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와 아울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자신의 시간과 자원의 훌륭한 관리자가 되며, 재정적으로 안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모든 가족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족의 필요 사항에 대한 계획을 짜는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집행 위원회를 머리로 삼아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준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혼 의식을 기다리는 열 명의 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명의 현명한 처녀는 결혼 잔치 때에 신랑을 맞이하였고, 다섯 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가게에 갔다 와서 이미 문이 닫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호소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대답 밖에는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오늘 나는 신권이 교회의 기본인 것처럼 복지 사업의 기본이 되는 과제를 맡았습니다. 나는 신권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에게 정규적이며 지속적으로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에 대해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 필요성을 주시킴으로써 지명을 받았습니다.

잠시 동안 지도자들의 보고서를 통해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 우리의 임무를 얼마나 훌륭히 수행하여 왔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부터 1978년에 이르기까지 총 금식

현금 보조액은 매년 15퍼센트씩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적 혼란을 맞게 되어 작년에는 무려 32.5퍼센트로 뛰어 올랐습니다.

현물 보조를 조사해 보면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1970—78년 기간 동안 현물 보조의 연 증가율은 11.3퍼센트였다가 작년에는 53.5퍼센트라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경제 침체로 인하여 등불도 못켜는 회원도 있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시급히 교회에 원조를 청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수년 동안 자조 자립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족들에게 가르친 것이 의도했던 것만큼 효과적이지 못했음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 복지 제도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준비를 갖추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회원을 돌보기 위한 의도로 마련된 것이 아님을 상기해야 합니다. 교회 복지 제도는 지진이나 홍수 등과 같은 물질적인 큰 재난을 당한 회원을 원조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 및 생계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다시 생계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자기가 예비해 놓은 것이 없는 것을 알고 교회에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봅시다. 자신의 복지에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하여 것처럼 무거운 짐을 교회에 지우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분석해 본 바로는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한 물자 관리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각 가족이 자신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도록 준비하게 하는 예방에는 너무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본 원리를 가르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이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에 있

어서 우리의 복지를 위한 노력의 최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보다 많은 회원들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이 예비해 놓은 것에 의존하고, 교회의 원조를 청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를 해야 합니다.

1800년대에 뉴햄프셔 지방에 살았던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무엇보다도 독립심과 자조 정신을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그는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란 자신을 돌보고, 이웃을 도우며, 남의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갖지 않겠다는 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부인이 죽었을 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집에서 손수 관을 만들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면 관 속으로 들어가 가슴에 손을 얹지. 그러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데니까. 그런 다음 누군가가 뚜껑에 못을 박고는 진흙 속으로 밀어 넣겠지.” 매리온 지롭니 부대관장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존경하는 교회 회원으로서 자기 자신을 부양하는 책임을 스스로 타인에게 전가시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볼 책임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가족을 돌볼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교회 복지의 기본 원리, 신권 소유자에게 하신 말씀, 1974년 3월 6일, 2페이지)

가정이 복지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가족 조직에 초점을 맞춰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가족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족의 필요 사항에 대한 계획을 짜는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집행 위원회를 머리로 삼아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양친 중 한 분이 계시지 않거나 혼자 살고 있는 경우라도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표를 세울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가족은 자기 다른 필요 사항을 가지고 있음

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자녀가 결혼한 경우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따로 살고 있으므로 그들의 필요 사항도 다릅니다. 자기 가정과 가족을 가진 딸, 가족과 함께 학생 주택 단지에 전세들어 있는 아들, 아직 대학생인 새로 결혼한 딸 아이와 그 남편, 이들은 각자 서로 다른 필요 사항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필요 사항도 해가 바뀔에 따라 변해가고 있습니다.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은 가족 집행 위원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각 가족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직업의 발전, 재정 및 자원 관리, 교육, 건강, 가정 생산 및 비축, 사회적, 정서적, 영적 힘에 있어서 각 개인의 독특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가정에서는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가족 평의회를 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자녀들에게 가족의 기본적인 책임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또 그러한 결정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결혼 적령기에 이른 성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이러한 책임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가족 평의회에서 행동 규범과 자립심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이 루벤 글라크 이세 부대관장님은 옛 격언을 이렇게 바꾸어 설명하였습니다.

“일만 하고 놀 줄 모르는 아이는 우둔해진다.” 그러나 놀기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아이가 되고 맙니다.”(해럴드 비리, “참된 사랑을 베풀”, ‘복지 농장 모임에서 행한 말씀, 1968년 10월 5일)

나는 끈기있게 정원 일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마친 후에 당근 싹이 다 뿔뿔해 땅바닥에 널려 있고 잡초만 가지런히 남아 있는 것을 보셨을 때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우리 가족은 퇴비를 쌓고 선반에 깡통이나 병을 올려 놓는 기술뿐만 아니라 빈 깡통과

병에 채울 과일이나 채소를 재배하고 가공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교회 조직 중에서 가족을 돕는 첫번째 방법은 신권 가정 복음 교육과 상호부조회 방문 교육입니다. 이 조직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먼저 감독, 정원회 지도자 및 상호부조회 회장에게 회원들의 육체적, 정서적, 물리적, 영적인 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해 줍니다. 또한 회원들을 교육하고, 각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벨기세맥 신권 정권회 지도자는 복지의 원리, 즉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이해하고,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정직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희생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복음 교사를 훈련하여 그들이 가족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고, 가족의 필요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 사항을 갖고 있는 회원이 있는 경우 회장은 감독과 다른 정원회 회원들과 함께 은밀하게 사랑이 넘치는 방법으로 그 필요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정원회는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제대로 충족시킬 때에야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원들은 정원회를 통하여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방문 교사에게 자신 봉사에 관한 것을 훈련시킴으로써 와드의 자매들에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도움과 힘을 주는 동시에, 방문이 제대로 행해지고, 그들의 필요 사항을 사랑 가운데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는 때에는 자매들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매들은 바느질, 통조림 만들기, 훈제 및 기타 식량 비축 방법을 가르치고 실시합니다. 영양과 건강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독서와 문화 예술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있으며, 근면하고, 가사 기술과 복음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권회와 상호부조회가 함께 일하면 각 가족이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이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임을 실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엔사인지를 통해 히버트 형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엔사인, 1980년 6월호, 41-42페이지 참조) 대가족의 가장이며, 한 아내의 남편인 그에게 만성 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상의한 끝에 그들이 기쁨과 마음의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그때를 대비하여 스스로는 물론 가족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가족 역사 기록을 작성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때를 대비하여 일년 치의 식량과 기타 생활 필수품을 저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언서를 준비하고, 모든 보험과 법적인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서로를 돌보고 가정에서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히버트 형제가 사망하기 몇 주일 전에 집이 화재로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비축 식량이 모두 타버렸으나 함께 일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며, 역경에 처해서도 좌절치 않는 가족의 단합은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히버트 형제가 죽었을 때 슬픔은 컸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에 주어진 막중한 책임에서 볼 수 있듯이 감독이 관리하는 와드 조직에 의해 그 직원들에게 세심하고도 실제적인 훈련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감독은 와드 복지 봉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와드내의 모든 복지 사업을 감독하고 궁핍한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복음 원리의 가르침과 복지 사

업의 기본 프로그램을 잘 조화시키고, 금식의 법을 가르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과 존경심을 갖고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회원을 돕고, 궁핍한 회원을 은밀하게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합당한 전문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복지 사업 자원 지침서, 1980년, 9페이지)

감독을 돕는 것이 바로 스테이크 조직입니다. 감독은 스테이크 부장에게 도움을 청하여 지도력을 훈련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고등 평의회와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조직으로 하여금 필요한 훈련을 시키게 합니다.

주님의 조직이 효율적으로 일을 분담함으로써 회원들이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실천하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명의 스테이크 부장은 평균 약 1,180 가정을 담당하게 되며, 한 명의 감독은 약 108 가정을, 한 명의 정원회 지도자

는 약 60 가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 복음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가정은 3가정이 됩니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기본은 바로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입니다. 회원들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책임을 적절히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데에는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각 신권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가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뉴햄프셔 지방에 살았던 어떤 노인은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이 지나쳐 자신의 무덤까지 파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자립과 예비 정신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배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철심인 제일 정원회의 전 알 목 장로

교회 복지의 기본 원리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진정한 안정은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만 오는 것입니다. 안정은 바로 의로운 생활의 결과입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아침 훌륭한 말씀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매년 두 차례씩 이 건물에 와서 오늘날의 교회 복지 사업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교회 안정 계획이란 명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오늘날 그 당시에 붙여진 이 명칭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그대로 안정, 진정한 안정은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만 오는 것입니다. 안정은 바로 의로운 생활의 결과입니다.

물론경에는 일천 여 년에 걸쳐 의로움과 사악함의 결과를 보여 주는 한 백성의 역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에는 땅에서 번성하였고, 불순종하였을 때에는 악, 전쟁, 기근, 노예 상태로 빠졌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주님의 계명에 따르고 그분과 성약을 맺고 그분의 영으로 축복을 받았던 가족과 종족과 나라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들은 의로움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번성하였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매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침실의 지인 성인들의 드림 시퀀스 장면과 리버도어 일 버튼 장면



익십원 데일 켈렌의 데어담 리요자 썸프

또한 물문경에는 우리가 따르면 사악함과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진정한 안정을 누리게 해주는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안정을 누리고 싶어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은 물론 정부까지도 심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점점 지출을 늘리고 저당을 잡히며 부채와 채무를 누적함으로써 균형을 잃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립심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기 쉬운 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우리의 가족과 행위와 개인적인 발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영원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 위에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시어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따를 때에만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가 처음 안정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 총관리 역원이 하신 말씀 중 몇 가지를

최근에 다시 읽었습니다. 나는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의 권세와 진지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이 교회 안정 계획의 실시를 내용으로 한 대관장단의 편지를 읽던 날인 1936년 10월 대회에서 행한 것입니다. 클라크 부대관장님이 이 안정 계획이 단지 복음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참된 기독교 교의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였는지 유의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여 왔습니다. 즉, 우리는 복음의 계획을 갖고 있으며, 복음의 계획은 영적인 필요 사항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필요 사항까지도 돌보는 것이라고 선포하여 왔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로서 함께 살 수 있고,



익십원 제이 정원의 회장단. 왼쪽으로부터 영 러셀 벨라드 장로, 딘 엘 라슨 장로

만인에게 평등한 조직과 원리에 따라 단합하여 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획은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것이고 지상의 모든 나라에게 부여되는 계획이므로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대회 보고, 1936년 10월, 113-14페이지)

1943년 4월 4일에도 이 단상에서 우리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이루어진 교회 안정 또는 복지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첫째, 모든 개인은 독립과 노동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최초의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준엄한 계명을 주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우리에게 부과하신 계명입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창세기 3:19)

“둘째로 본인 다음으로는 가족 모두가 그를 부양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자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개인이 자신을 부양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그의 가족이 그를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면, 그 다음에 교회가 복지 계획을 통하여 이 계획을 받아들이고 자기 능력껏 그 계획에 따라 일하는 회원들을 ‘가족 수와 형편과 부족량과 필요량에 따라’ (교리와 성약 51:3) 돌보는 입장에서 서는 것입니다.”(매리온 지름니, 대회 보고, 1943년 4월, 27-28페이지)

나이 많은 회원들은 대부분이 총관리 역원들이 반복하여 강조한 이 가르침을 여러 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젊은 회원, 감독, 스테이크 부장은 몇 사람이나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더우기 우리는 한 민족으로서, 국가로서, 세계 공동체로서 자립이라는 기본적인 전체 조건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자립의 원리는 교회의 기본 교리인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엘로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여 지상에 보내실 때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모든 산 자를 위하여 만들고 마련하여 준 세상의 축복을 관할하는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모든 사람에게 지우게 함은 필요한 일임이니라.

“땅은 충만하고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으니, 참으로 내가 만물을 만들어 인간의 자녀들에게 이를 주어 자유의지대로 행동하게 하였느니라.”(교성 104:13, 17)

모든 개인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생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자신의 노력과 결정에 의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오묘하고도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을 따름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축복이나 부족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와 책임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자립의 원리는 또한 교회의 기본 단위원 가정에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족의 부양, 발전과 상호 부조, 가족의 단합을 통한 가족간의 신뢰 등의 개념은 동시에 자립의 원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기본적인 단위 조직입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기구도 가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약과 영원한 신권의 통치에 의하여 영원한 가족 단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약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때가 되면 자녀가 부모를 돌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 20:12)는 계명은 현대 이스라엘에도 적용되며 교회의 모든 충실한 회원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자립의 원리에 의해 일반

적으로 가족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 전까지는 개인의 세상적인 문제와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 자원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리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성한 후에 저들은 교회에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 바꾸어 말하면 그 부모가 저들에게 상속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주의 창고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느니라.”(교성 83 : 5)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원조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개인으로서, 가족 단위로서, 최선을 다하였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교회 가족으로서 서로를 부양해야 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부양 방법이 기본 원리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1898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조셉 에프스미스 대관장님이 하신 사랑에 관한 사려깊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복지 프로그램 이전에 관한 말씀임)

“모든 사람은 고통당하지 않기 위하여 꼭 필요할 때 외에는 자선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곤궁한 처지에 있을 때 ‘당신이 내게 해주는 것에 대신하여 나도 당신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자립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받는 것에 만족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대회 보고, 1898년 4월, 48페이지)

감독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때 모두 이 자선의 법칙에 따르면, 준자에게나 받는 자에게나 참된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궁핍한 사람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찾아온다면 교회의 모든 사람이 기꺼이 복지 계획에 참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격려를 받는다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빨리 자립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원상대로 회복하였을 때에는 자신도 최선을 다해 이 프로그램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나는 복지 사업의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리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자는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삼 강조하는 바이지만 복지 사업은 단순한 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의 복음입니다. 복지 사업의 원리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또한 기독교인이 현실적인 일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은 경건과 살아 있는 예언자의 권고에서 이런 원리를 배워서 자신을 부양하고 가족을 돌보며 관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헌금에 참여하여 우리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 주기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끝으로 베냐민 왕(오늘 이미 니파이인의 위대한 지도자인 베냐민 왕에 대해 인용하였습니다.)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성역을 마칠 때에 오랫동안 친절하고 영감적인 그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 왔던 교회 회원들에게 이러한 슬기로운 권고를 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행할진대 항상 기뻐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며 언제라도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함은 너희가 날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니, 나는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각각 가진 대로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영적으로나 육신으로 병든 자를 찾아 저들의 원대로 구제하여 위로하기 바라노라.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되 지혜롭게 순리대로 행하여야 하나니,”(모사이야서 4 : 12, 26—27)

우리가 지혜를 갖고 수양을 쌓아서 이 위대한 원리를 실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대회 말씀과

교회 교과 과정과의 상호 관계

이 도표는 복음을 공부하고 있는 부모나 교사나 회원을 위해 1981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을 성인 및 청소년 교과 과정과 연관시켜서 정리한 것이다.

멜기세덱 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

공과	총관리 역원
2	스펜서 더블류 김볼(복지), 엘 톰 페리, 엠 러셀 벨라드, 바바라 비 스미스
3	빅터 엘 브라운, 에이치 버크 피터슨
4	토마스 에스 몬슨
7	디어도어 엘 버튼
8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11	하트만 렉터 이세
12	에즈라 태프트 벤슨
14	보이드 케이 패커
15	로렌 시 던
16	매리온 지 린니(신권)
18	제임즈 엠 패러모어
19	엘 엘돈 태너
20	마크 이 피터슨, 프랭클린 디 리차즈, 테더 이 브루어튼
21	보이드 케이 패커
22	고든 비 힝클리
23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이콥 디오거
25	로이든 지 데릭, 하트만 렉터 이세, 에프 버튼 하워드
27	스펜서 더블류 김볼(신권)
28	브르스 알 맥쿱키
29	엘 엘돈 태너
30	제임즈 엠 패러모어, 에프 버튼 하워드,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32	하워드 더블류 헌터
33	제임즈 이 파우스트

1981-82년도 가정의 밤

공과 총관리 역원

- 1 마빈 제이 애쉬튼
- 2 하트만 렉터 이세
- 4 제임즈 이 파우스트
- 8 에즈라 태프트 벤슨
- 11 보이드 케이 패커, 로이든 지 데릭
- 13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엠 패러모어,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 16 엔 엘돈 태너
- 17 로렌 시 던
- 20 프랭클린 디 리차즈, 엠 러셀 벨라드
- 21 엘 톰 페리
- 23 스펜서 더블류 킴볼(복지), 엘 톰 페리, 엠 러셀 벨라드, 에이치 버크 피터슨
- 26 마크 이 피터슨, 바바라 비 스미스

1981-82년도 복음 교리반

공과 총관리 역원

- 30 고든 비 힝클리
- 31 하워드 더블류 헌터, 로렌 시 던, 테니 이 브루어튼
- 32 매리온 지 롬니(복지), 리그랜드 리차즈, 디어도어 엠 버튼
- 33 브르스 알 맥콩키, 로이든 지 데릭
- 35 마빈 제이 애쉬튼
- 37 프랭클린 디 리차즈, 하트만 렉터 이세
- 38 에즈라 태프트 벤슨
- 39 테디 이 브루어튼
- 41 테디 이 브루어튼
- 42 보이드 케이 패커
- 44 안헬 아브레아

기초 복음반

공과 총관리 역원

- 1 프랭클린 디 리차즈
- 2 브르스 알 맥콩키
- 3 엔 엘돈 태너, 로렌 시 던
- 6 데이비드 비 헤이트
- 7 스펜서 더블류 킴볼(토요일 오전), 리그랜드 리차즈
- 8 보이드 케이 패커
- 9 마빈 제이 애쉬튼, 제임즈 엠 패러모어,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 10 빅터 엘 브라운
- 11 에즈라 태프트 벤슨, 로이든 지 데릭, 하트만 렉터 이세, 에이치 버크 피터슨

주일학교 제14반

공과	총관리 역원
23	디어도어 엠 버튼
31	토마스 에스 몬슨
32	제이콥 디오거, 에프 버튼 하워드
35	마크 이 피터슨
36	빅터 엘 브라운
37	마빈 제이 애쉬튼, 제임즈 엠 패러모어,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38	보이드 케이 패커
39	로이든 지 데릭, 하트만 렉터 이세, 에이치 버크 피터슨
42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프랭클린 디 리차즈

주일학교 제16반

단원	공과	총관리 역원
1	1	디어도어 엠 버튼
	2	마크 이 피터슨
	4	데이비드 비 헤이트
2	3	하트만 렉터 이세
3	1	프랭클린 디 리차즈
	2	제임즈 이 파우스트
	7	테디 이 브루어튼
	11	토마스 에스 몬슨
	13	제이콥 디오거, 에프 버튼 하워드
15	로이든 지 데릭,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에이치 버크 피터슨	

주일학교 제17반

공과	총관리 역원
1	마크 이 피터슨
2	제임즈 이 파우스트
3	마빈 제이 애쉬튼
11	보이드 케이 패커, 로이든 지 데릭
15	매리온 지 롬너(신권)

제16, 17반을 위한 부록 공과 주제

- | | | |
|---|--------|--------------------|
| 1 | 칭지기 직분 | 스펜서 더블류 김볼(토요일 오전) |
| | | 스펜서 더블류 김볼(신권) |
| | | 스펜서 더블류 김볼(일요일 오후) |

2	이스라엘의 회복	매리온 지 롬니(토요일 오전)
3	복지의 기본 원리	매리온 지 롬니(복지)
4	가장의 역할	에즈라 태프트 벤슨
5	계시	리그랜드 리차드
6	요셉 스미스 3세의 기록	고든 비 힝클리
7	왕국의 열쇠	브르스 알 맥콩키
8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	엘 톰 페리
9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킴	엠 러셀 벨라드
10	신앙	로렌 시 던
11	사랑함	제임즈 엠 패러모어
12	감사	안헬 아브레아
13	금식 헌금	빅터 엘 브라운

성도의 벗 기사

14	“킴블 대관장께서 도덕에 관해 강조하십시오”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981년 4월호, 155페이지
15	“고백”	제이 루벤 클라크, 성도의 벗, 1981년 8월호
16	“신성 모독에 대한 킴블 대관장의 말씀”	스펜서 더블류 킴블, 성도의 벗, 1981년 9월호
17	“영적인 악어”	보이드 케이 패커, 성도의 벗, 1976년 8월호, 26페이지
18	“새벽녘”	로렌 시 던, 성도의 벗, 1981년 11월호
19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스펜서 더블류 킴블, 1981년 8월호

1981—82년도 상호부조회

공과	방문 교사 메시지	영적인 생활	가사	사회 관계
8	토마스 에스 몬슨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9			바바라 비스 미스	스펜서 더블류 킴블 (일요일 오후)
10		매리온 지 롬니 (신권)		토마스 에스 몬슨
11		브르스 알 맥콩키 안헬 아브레아		

복지 사업 자원 지침서와 관련된 대회 말씀은 신권 지도자나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복지의 원리 및 정책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복지 사업 자원 지침서(1980년판)

제목	총관리 역원/기타 지도자
1 “복지 사업에 기초를 둔 복음 원리”	스펜서 더블류 킴볼(복지) 메리온 지 롬니(복지), 마크 이 피터슨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프랭클린 디 리차즈, 엠 러셀 벨라드, 제이콥 디오거, 제임즈 엘 패러모어, 에프 버튼 하워드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빅터 엘 브라운, 에이치 버크 피터슨
2 “조직과 임무”	스펜서 더블류 킴볼(일요일 오후)
3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 그램을 통한 절약 생활과 예방”	마크 이 피터슨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제임즈 이 파우스트, 하트만 렉터 이세, 로렌 시던 엘 러셀 벨라드 바바라 비 스미스
4 “도움을 주고 받음”	메리온 지 롬니(복지),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후)
5 “창고 자원 제도”	마크 이 피터슨, 빅터 엘 브라운
6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회원”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후), 제임즈 엘 패러모어
7 “계획과 훈련”	

*이러한 많은 메시지 가운데는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복지 사업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여섯 분야에 대한 준비를 갖추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개인 및 가족에서부터 복지 사업 위원회 및 평의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위의 조직, 의무, 계획 및 훈련을 설명하고 있다.

유의 사항: 복지 사업 위원회 및 평의회는

모임중에 적어도 10분을 할애하여 훈련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위에 열거된 말씀에서 주어진 권고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사용할 훌륭한 훈련 지침이 된다.